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BIG FOREST MOVEMENT’ OF ANSANDONGSAN CHURCH:
THE CASE OF CHURCH PLANTING**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 연구: 분립개척을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Dong Sung Park (박 동 성)

Lynchburg, Virginia

March 2020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Yunseop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STUDY ON BIG FOREST MOVEMENT OF ANSANDONGSAN CHURCH: THE CASE OF CHURCH PLANTING

Dong Sung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is dissertation aims to study about the ‘Big Forest Movement’ conducted by Ansan Dongsan Church which experienced healthy growth in its community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he Korean church has been leading growth and revival through church planting. However, from the 21st century, church growth is rapidly declining and planted churches are also experiencing severe period of decline. There are still many churches being planted but the reality is that many of them are not growing or being shut down.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for this phenomenon but the main reasons would be the lack of preparation and no practical alternative to measure the church plantation.

Overall, through studying Separation Church Planting which is one of the visions of “Big Forest Movement” for reproducing churches, this study will observe how the small group ministry conducted in Ansan Dongsan church is reproducing health communitie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will study the 11 churches, including Dongtan Dongsan church which the researcher planted, that were planted as a part of ‘Big Forest Movement.’ The researcher will examine how these churches are growing into health communities. As a result, the researcher aims to contribute in new church planting movement by presenting a desirable church-plant

model through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value of 'Big Forest Movement' of Ansan Dongsan Church, and thereby, provide a stable church planning alternative.

Abstract length: 224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BIG FOREST MOVEMENT’ OF ANSANDONGSAN CHURCH:
THE CASE OF CHURCH PLANTING**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 연구: 분립개척을 중심으로

Dong Sung Park (박동성)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논문은 셀목회를 통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경험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연구하는 것에 있다. 한국 교회는 과거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이 둔화되어지고, 개척교회 또한 심각한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개척되는 교회가 많으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은 실정이다.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부재 된 준비와 개척을 가늠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큰숲운동’의 비전 중에 하나인 교회의 재생산을 위한 분립개척을 연구하여, 안산동산교회의 갖고 있는 셀목회의 영향력이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큰숲운동’의 일환으로 분립개척한 동탄동산교회를 포함한 11개의 분립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그 결과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가치를 분석, 평가하고, 안정된 교회 개척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개척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새로운 개척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30 words

ACKNOWLEDGEMENT

감사의 글

지난 23년 동안의 교회와 목회의 여정속에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학문에 게으른 내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으로는 여러 번 그만 두고 싶다고 말하고 마음으로는 수백 번을 그만 두고 싶다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생애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동탄동산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고, 부족한 종을 돕기 위해 마음을 다한 동탄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그 사랑과 이해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 연구’라는 논문을 위해서 설문에 응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11개 교회의 선배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동산교회를 개척하시고 수십년 세월 동안 목회 일념과 영혼 구원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나의 스승과 같고 나의 아버지वाद 같으신 안산동산교회 김인중원로목사님과 어머니와 같으신 이재순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셀목회를 통해서 분립개척을 실현하는 ‘큰숲운동’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역사적 과정을 함께 했던 헌신자들과 안산동산교회의 당회와 큰숲위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동산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학문적인 향상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지도해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김윤섭 교수님, 행정의 일을 함께 맡아준 최영식 목사님과 김낙중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나를 초대하고 졸업하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논문의 마무리를 하게 된 동역자 된 박성호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논문을 관두려고 할 때마다 격려로 이끌어준 나의 좋은 친구이자 최고의 아내인 이경미 사모와 힘내라고 외쳐준 자녀들과 나를 낳으시고 길러 주신 어머니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	vii
감사의 글	
TABLES	xiv
표	
ABBREVIATIONS	xvi
약어	
SUMMARY	xv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2. Scope and Limitation	3
범위와 한계	
3.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9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5. Review of Literature	10
문헌 검토	
CHAPTER 2: Understanding Small Group Church and Church Planting	17
제 2 장: 셀교회에 대한 이해와 셀교회의 개척이해	
1. Biblical Theory on Small Group Community	19
셀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이론	
1) Small Group Community in the Old Testament	19
구약에 나타난 셀공동체	

2) Small Group Community in the New Testament.....	22
신약에 나타난 셀공동체	
2. Small Group Community in the Church History	29
교회사에 나타난 셀공동체	
1) Monastic Movement and Small Group Community	31
수도원 운동과 셀공동체	
2) Reformation and Small Group Community	35
종교개혁과 셀공동체	
3) Modern Church History and Small Group Community.....	37
근대 교회사와 셀공동체	
3. Biblical Theory of Church Planting.....	42
교회 개척에 대한 성경적 이론	
1) Church Planting in the Old Testament.....	43
구약에 나타난 개척	
2) Church Planting in the New Testament	46
신약에 나타난 개척	
4. Church History Theory of Church Planting.....	53
교회 개척에 대한 교회사적 이론	
1) Church Planting in the Early Church and Medieval Church	53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교회 개척	
2) Church Planting in the Reformation Period.....	55
종교개혁시대의 교회 개척	
3) Church Planting in the Modern Church History	56
근대교회의 교회 개척	
5. Theological Theory on Cell Community and Church Planting	58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에 대한 신학적 이론	
1) Community Theology	59
공동체 신학	
2) Koinonia Theology	68
코이노니아 신학	
3) Diaconia Theology.....	72
디아코니아 신학	

6. Sub-conclusion.....	75
소결론	

CHAPTER 3: Study on ‘Big Forest Movement’ and Church Planting of Ansan Dongsan Church79

제 3 장: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연구

1. The Birth and History of ‘Big Forest Movement’ of The Ansan Dongsan Church	80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 태동과 역사	
1) Influence of Ansan Dongsan Church on History of Korean and ‘Big Forest Movement’	80
안산동산교회의 한국교회사적인 공헌과 ‘큰숲운동’	
2) The History of The Vision of Ansan Dongsan Church and Birth of ‘Big Forest Movement’	81
안산동산교회 비전의 역사와 ‘큰숲운동’의 태동	
2. Small Group Church and ‘Big Forest Movement’	89
셀교회와 ‘큰숲운동’	
1) Soil of Small Group Church.....	89
셀교회의 토양	
2) Conversion to Small Group Church and ‘Big Forest Movement’	92
셀교회로의 전환과 ‘큰숲운동’	
3) Essence of Small Group and Concrete Beginning of ‘Big Forest Movement’	96
셀의 본질과 ‘큰숲운동’의 구체적인 시작	
4) Small Group Pastoral and ‘Big Forest Movement’	97
셀목회와 ‘큰숲운동’	
5) Transition to Small Group and Fruit of ‘Big Forest Movement’	107
셀전환과 ‘큰숲운동’의 결실	
3. ‘Big Forest Movement’ and Separation Church Planting	112
‘큰숲운동’과 분립개척	
1) Preparation and Training as Pioneer	112
개척자로서의 준비와 훈련	
2) Verification of Church Planting	120
분립개척에 대한 검증	
3) Support and Patronage of Church	126

교회의 지지와 후원	
4) Prepare Prayer Meeting for Church Planting	127
개척기도회 준비	
5) Practical Preparation for Church Planting	128
개척의 실제적인 준비	
6) Sending Ceremony	131
파송식	
7) Collaboration of Big Forest Churches	132
분립개척한 교회들의 협력	
8) Post-Management and Support	132
사후관리와 지원	
4. Sub-conclusion on ‘Big Forest Movement’	133
‘큰숲운동’에 대한 소결론	
CHAPTER 4: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136
제 4 장: 설문 및 분석	
1. Questionnaire Survey	136
설문조사	
1) Purpose and Procedure of Questionnaire Survey	136
설문의 목적과 절차	
2) Participants in Questionnaire Survey	137
설문 참가자	
3) Methods of Questionnaire Survey	137
설문조사 방법	
4)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Questionnaire	138
설문내용과 구성	
2.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138
설문 결과	
3. Sub-conclusion of Analysis	160
분석에 대한 소결론	
CHAPTER 5: Introduction of ‘Big Forest Movement’ of 11 Pioneering Churches and Suggestions for Separation Church Planting	169
제 5 장: 11개 분립개척교회의 ‘큰숲운동’ 소개 및 분립개척을 위한 제언	

1. Eleven Church's 'Big Forest Movement'	170
11 개 교회의 '큰숲운동'	
1) Grace Dongsan Church	170
은혜의동산교회	
2) Joy Dongsan Church	176
기쁨의동산교회	
3) Blue Light Church.....	179
블루라이트처치	
4) Great Forest Dongsan Church.....	186
더불어숲동산교회	
5) Restoration Dongsan Church	194
회복의동산교회	
6) Gospel Light Church.....	199
복음의빛동산교회	
7) Green City Church	204
그린시티교회	
8) THE Happy Stage	209
THE 행복한 STAGE	
9) Dongtan Dongsan Church.....	214
동탄동산교회	
10) Day Church	221
Day Church(날마다교회)	
11) Baegot Dongsan Church	226
배곧동산교회	
2. Sub-conclusion on 'Big Forest Movement' of Eleven Churches	230
11 개 교회의 큰숲운동에 대한 소결론	
3. Advance Suggestions for Church Planting in Korean Churches	233
한국교회 분립개척을 위한 발전적 제언	
CHAPTER 6: Conclusion	237
제 6 장: 결론	

Appendix A.....	240
부록 A	
Appendix B.....	242
부록 B	
Appendix C.....	244
부록 C	
Bibliography.....	248
참고자료	
IRB Approval.....	258
IRB 승인	

TABLES
표

1. 설문 참가자 프로필	57
2. 나이 및 분립개척 연수	61
3.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에 대한 견해	62
4. 셀목회의 실천에 대한 질문	63
5. 셀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64
6. 셀의 중요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65
7. 셀사역을 하게 된 동기	66
8. 셀목회 강조를 위한 목회적 수단	67
9. 성도들의 셀모임 참여를 위한 노력	68
10. 셀과 셀 모임에 대한 평가	69
11. 셀에 대한 지식	70
12. 셀의 중요한 핵심	71
13. 셀에 대한 정의	72
14. 정기적인 셀모임	73
15. 셀리더모임 인도	74
16.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셀모임의 중요성	75
17. 교회의 셀경험	76
18. 셀 안에서의 성장	77

19. 잘 되어지는 셀 사역	78
20. 셀 안에서의 셀리더의 성장과 준비	79
21. 셀을 통한 전도와 영혼구원	80
22. 셀리더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	81
23. 셀전도를 통해 분셀(분가)을 하려는 비전	82
24. 셀성장을 통한 분셀(분가) 경험	83
25. 분립개척에 대한 관심	84
26. 분립개척에 대한 강조	90
27. 분립개척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	91
28. 실제로 분립개척한 경험.....	92
29. 셀목회의 가치를 통한 분립개척의 의지	93

ABBREVIATIONS

약어

AD	Anno Domini
BCC	Bible reading Confession Convert
CAKE	Come Ask Know Enjoy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CBMC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CHC	City Harvest Church
CI	Corporate Identity
DNA	Deoxyribo Nucleic Acid
FCBC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LTG	Life Transformation Group
MG	Mission Group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AN	Preaching and Next
RPM	Renewal Pioneer Mission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TS	Transformation School
VIP	Very Important Person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e Korean church has been growing along with church planting. The reason for stagnation of the Korean church's growth is due to the passive attitude in church planting. This passive attitude must be reformed and devoted preparation in church planting is needed along with its active attitude.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about Separation Church Planting conducted through 'The Big Forest Movement' of Ansan Dongsan church; which is the church where the researcher had served at for 7 years. 'The Big Forest Movement' is a movement that conducts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which pursues healthy communities. All the 11 churches that were planted through Separation Church Planting are showing stable growth. The researcher will study the small group ministry and the 'Big Forest Movement' of Ansan Dongsan church and analyze how they influenced the 11 churches. In addition, the researcher will evaluate the value of the 'Big Forest Movement' and the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e resources that the researcher applied for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ing: surveys and interviews from 11 senior pastors who conducted Separation Church Planting, various kinds of books, articles, dissertations, research data, and media data. Theological ground for this study lies on theology of community; theology of Koinonia; and theology of Diaconia. Community is a form of how the God of Trinity exists. God as community forms His relationship through the fellowship of Koinonia and the service of Diaconia. The church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this community characteristic. The researcher aims to present this community characteristic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and to suggest a church planting model that the Korean church should pursue.

CHAPTER 2

UNDERSTANDING SMALL GROUP CHURCH AND CHURCH PLANTING

In chapter 2, the researcher studied the definition of church planting and its theological meanings through observing the Bible and church history. The researcher will argue that there is an inevitable cause and effect relation between the small group ministry and church planting and that stable church planting is conducted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hat builds a healthy community. A small group that regards relationships important forms a basic community in small group churches. A small group is a spiritual family community that executes various roles in a church. Small group ministry is conducted through these kinds roles that small groups partake.

The New Testament provides various grounds for small group communities. Genesis 1:26 shows that God made community that reflects God's image of Trinity: His existence as community. In Genesis 2:18, God saw human as community 'very good.' Community exists as 'a suitable helper' with mutual responsibility and dependence. Mark 3:14 says that the reason for establishing 12 disciples' community is to be together. This corresponds with Matthew 18:20 which talks about how Jesus will be among 2 or 3 people who gather in His name. Jesus is with them when the church exists as a community. Acts 1:13-14 presents that the essence of a community is unity. Acts 2:42-47 shows that unity is formed through Koinonia which refers to mutual relationship and Diaconia which refers to service. Paul also presents in 1 Corinthians chapter 12 that mutual relationship and service are what builds the variety and unity of the body of Christ. Church planting shown in the Bible is related to God creating the community. The first community emerged in Genesis 2:22-25 was created for God's vision. This creation notion corresponds with the definition of ecclesia, the church, which means 'assembly of the called.'

Thus, church planting should be regarded as an expansion of communities of the called. In Joshua 17:15, Israel expands its community by ‘clearing a place for themselves.’ The New Testament commands communities to expand through the Great Commission and that is fulfilled through the Holy Spirit.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led numerous churches to be planted through spreading the gospel and sending missionaries.

Observing the church history, churches were planted in order to restore the Early Church community characteristic. As Christianity was officially approved as state religion in Rome, this community characteristic was altered with a building. Monastic movement emerged to overcome this. In the beginning, monastic movement was led by people such as Anthony, Pachomius, and Benedict; in the Middle age, through the Waldensian Community; and in the Reformation era, through ‘the third form’ communities and home centered communities such as Anabaptists. Pietism followed in the modern times and was led by people such as Spener, Francke, Zinzendorf, and Wesley. This ignited the world mission and church planting.

In conclusion, church planting is connected with theology. They both share the community theology that is grounded by the community characteristic of God and share the Koinonia theology and Diaconia theology which refers to building communities through mutual relationship and service. The principle of church planting is to establish the community characteristic and this being expanded is church planting.

CHAPTER 3

STUDY ON BIG FOREST MOVEMENT AND CHURCH PLANING OF ANSAN DONGSAN CHURCH

In Chapter 3, the researcher will study the ‘Big Forest Movement’ and church planting of Ansan Dongsan church.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will argue the importance of small group ministry and church planting that ‘Big Forest Movement’ pursues, and thereby emphasize the practical preparations for church planting.

Ansan Dongsan church’s ‘Big Forest Movement’ grew from a vision in history. The foundation of the vision was social responsibility, discipleship and laymen ministry that pursue healthy community characteristic, small group ministry, and community movement of the kingdom of God. In this history of vision, relationship centered community was established and was be able to turn into a small group church. Rapid growth of the church led the community characteristic to be weakened. However, unceasing hope and challenges for the community led to experiencing the power of community that became the DNA of small groups. The power of small groups lies on leaders bearing leaders, small groups producing small groups, and churches planting churches. This vision in the small group ministry led to the ‘Big Forest Movement.’ It is about establishing a ‘Big Forest’ through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individualistic local church centered ministry. The vision of this ‘Big Forest Movement’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is well melted in the church’s vision and in the 8 essential values.

Through switching to small group ministry, ‘Big Forest Movement’ resulted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Despite the fact that the church was a mega-church, the community characteristic increased and the numbers of church members increased from 10,000 to 15,000. Then, the church went through Separation Church Planting by the church being

separately being planted into 12 different churches. The ‘Big Forest Movement’ was led to being dedicated for the Korean church and the local society.

The preparation for Separation Church Planting in Ansan Dongsan church is conducted through 8 stages. The first stage is preparation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planter or the pioneer. The contents include transplantation of the vision, relationship training, ministry experience through delegation, training leaders through small group nurturing,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small groups. The second stage is the verification of the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e contents include verification of the calling, sympathy for the community, verification for quality and capability as a minister, support from the ‘Big Forest Movement Board,’ and the verification from the church conference. The third stage is the support and adherence from the church. In this stage, there emerges voluntary participations for church planning and adequate supports. Additional supports are offered from the church members. The fourth stage is preparing prayer meetings for church planting. Extensive announces and encouragements for participating in church planting are made. Not only do church members participate voluntarily in prayer meetings but also support church planting ministry with finance and their gifts. The fifth stage is practical preparation for church planting. The contents include men power preparation, financial preparation, spatial preparation, and pastoral preparation. The sixth stage is the dispatching ceremony. Offerings are made while dispatching ceremony for all the church planting members is being held with all the church members attending. The seventh stage is collaboration of the other churches that already conducted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ese churches give support actively with church planting data and know-hows in all procedures from preparation stage to when church plantation is over. The eight stage is the follow-up management and support. After executing church planting, supports for stabilization after church planting are offered for the

several following years. The ‘Big Forest Movement’ of Ansan Dongsan church is a small group community movement to restore the community characteristic and is done through Koinonia and Diaconia. These know-hows help the church planting to have no fear.

CHAPTER 4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The purpose of the survey was to analyze how the ‘Big Forest Movement’ was being conducted in the ministry field of 11 churches which carried out the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rough the ‘Big Forest Movement,’ and thereby, evaluate the influence of Ansan Dongsan church’s ‘Big Forest Movement.’ This survey was done onlin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senior pastors from 11 churches which was planted through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e survey is composed with 29 questions and individual interviews. Interviews were done through individual meetings and each for about 90 minutes. Data collected from these relates to the analysis of the survey in chapter 4 and in-depth analysis of each church in chapter 5.

Chapter 4 consisted with three categories of analysis: observing if small group ministry, which is the foundation for the ‘Big Forest Movement,’ is being conducted; observing if the essentials of small group ministry is being applied to the ministry field; and observing if attempt for Separation Church Planting is being execu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urches were actively carrying out the small group ministry. The essentials of small group ministry were well being applied and there were active attempts for Separation Church Planting as well as the succession of the ‘Big Forest Movement.’

Analysis in procedure of small group ministry for each church was conducted through observing preferences for small group ministry, emphasis on small group ministry, and questions on specific endeavors and practices for small group ministry. Identically, 60% answered “Definitely Yes” and 40% “Yes” when asked about the preference and practice of small group ministry. Small group ministry was being conducted positively and actively. 70% answered

“Definitely Yes” when asked if they were emphasizing the small group ministry and 60% “Definitely Yes” for asking if there were specific endeavors for small group ministry. Analysis shows that the small group ministry field is very active. 80% answered “Know very well” when asked about the cognition of the essentials of small group ministry. For questions on essential elements for small group churches, 50% answered “Service and Care,” and 20% each answered “Spiritual Growth” and “Fellowship.” This analysis shows that Koinonia and Diaconia is strong in these small group ministries. For questions on the definition for the small group, 90% answered “Small group is a lifestyle,” and 70% answered “Small group is a family.” This shows that the essentials for small groups are life and community characteristic.

Analysis on influence from the small groups was done through observing pastors’ participation in small groups. 100% of pastors were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and 70% were leading meetings for small group leaders. This shows that small groups strongly influence the ministry. Preparation for small group leaders were done 100% within the small groups and members showed much interest in becoming small group leaders. 90% had vision for small groups being separated through saving souls and evangelism. 80% of the churches experienced small group separation, thus, it shows that the essentials of small group ministry were well being applied.

Regarding answers on questions if they had vision for Separation Church Planting, 80% answered “Definitely Yes,” and 20% “Yes.” For answers on questions on if they were emphasizing the Separation Church Planting, 70% answered “Definitely Yes.” 8 churches out of the 11 churches conducted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e small group ministries and the fruits of Separation Church Planting of the 11 churches are the evidence that shows the ‘Big Forest Movement’ of Ansan Dongsan church is well-being succeeded.

CHAPTER 5

INTRODUCTION OF BIG FOREST MOVEMENT OF THE 11 CHURCHES

Chapter 5 will present in-depth analysis of the ‘Big Forest Movement’ conducted by the 11 churches that were planted through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rough analyzing the interviews, the researcher will argue that the ‘Big Forest Movement’ can be a practical plan and a model for Church Planting for the Korean church. The key point of the interviews was to see if the productivity and influence of ‘Big Forest Movement’ was well being displayed at each church.

Through analyzing the 11 churches, 8 values and attributes of the ‘Big Forest Movement’ were found. First is durability. The 11 churches are all conducting small group ministries and 8 of them are carrying out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ey are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small group ministry and attempting Separation Church Planting. Second is expandability. The influence of each church was permeating into cities and local communities. Third is variety. Each church was conducting various ‘Big Forest Movement.’ They were influencing schools, counseling centers, N.G.O.s, and cultures. Fourth is stability. Material and men power support from Ansan Dongsan church aids the churches’ independence in the early days and pastoral stability. Especially, small group ministry through men power increases the settling rate and stabilizes the ministry. Fifth is adventurousness. Ansan Dongsan church is not afraid of pioneering or experimenting. This adventurousness makes the ministry dynamic and not stagnated. Sixth is creativity. Each 11 church conducts creative ministry through communities. Leaders do not lead everything. Rather voluntary participations in creative plans are made through communities’ Koinonia. Seventh is possibilities. Churches that grew through the ‘Big

Forest Movement' are standing firm as good models, being introduced through seminars and ministries in Korean churches, and giving challenge for another 'Big Forest Movement' and church planting. Eight is independence. Planted 11 churches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within 1 or 2 years. The foundation of small group ministry makes this possible. This independence leads to taking another challenges and Separation Church Plantings.

Church planting through the 'Big Forest Movement' becomes a model for the Korean church which grew from church planting. The researcher will present 8 suggestions regarding what endeavors should take place for the Korean church to conduct Separation Church Planting. First, mega-churches and capable churches need reformation in community theology and endeavor in Separations Church Plantation. Second, challenges in small group ministry that should be loyal to the essence of ministry is required. Third, well prepared Separation Church Planting is required. Fourth, there needs to be an endeavor in producing, leading, and growing small group communities. Fifth, church planting should be conducted through adequate and consistent support. Sixth, a network for building communities together is needed. Seventh, there is a need for preparation of church planting that includes consideration of the field and strategy. Eighth, model for a new church should be provided.

CHAPTER 6

CONCLUSIONS

The main reasons for slowing down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are due to the lack of healthy ministry which makes stable church planting possible and due to passive church planting.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rough ‘Big Forest Movement’ of Ansan Dongsan church can be one of the alternatives for the Korean church. As seen in chapter 4, all the 11 churches were actively conducting the ‘Big Forest Movement.’ The importance of small groups was being emphasized; small group meetings were actively being conducted; and the essentials of small groups were well being reflected in the ministry. Overall, not only there was enthusiasm for Separation Church Planting but also had practical plans for it.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8 churches out of the 11 churches had already carried out Separation Church Planting. As seen as chapter 5, all the 11 churches were nurturing leaders, expanding small groups, executing specific efforts for Separation Church planting, and thereby, the ‘Big Forest Movement’ was being routinized.

In spite of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its participants were pastors who conducted Separation Church Planting from a mega-church, Ansan Dongsan church, and was analyzed mostly with its pros, it is clear that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rough ‘Big Forest Movement’ and healthy small group ministry can be a significant alternative for the Korean Church and church planting. The researcher anticipates for further study on realistic troubles of the ‘Big Forest Movement’; on evaluation of the ‘Big Forest Movement’ from the laymen’s perspective; and on the field of 2nd generation churches that were separated and planted from the 11 churches.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한국 교회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교회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1960년도에 5,011개에서 1990년도에는 35,869개의 교회로, 교인의 수도 같은 기간 동안에 623,072명에서 12,091,837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¹ 이러한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²

이런 한국교회의 성장을 통해 교인의 숫자의 증가와 교회의 숫자의 증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교회 개척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³

이러한 놀라운 교회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 그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와서는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90년도 이후 2009년까지 교회의 수는 매년 증가하기는 했으나 교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를 멈추었다.⁴ 이런 사실은 인구통계조사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인구는 9,675,761명으로 1990년도에 비해 250만명 가까이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이런 흐름으로 볼 때에 2050~2060년 경에는 400만, 아니 300만 명대로 교인 수가 줄어 들 수도 있다.⁶

1) 기독교대언감편찬위원회, 「기독교 대언감」 (서울: 기독교문사, 1991). 216.

2) 이상규, “교회사로 살펴본 교회개척과 교회 성장”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1999), 75-83.

3) 오현철, 「새천년을 향한 한국교회에서의 교회개척에 관한 전략연구」 (성결대학교 역사연구소, 1995). 165.

4) 교회성장연구소,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설교뱅크」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10). 119 ; 한기총과 NCKK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교회 수는 6만1400여 개로 파악됐다. 이것은 1990년도에 3만 5869개와 비교할 때 많은 숫자의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목회자는 1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독교 전체 인구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5) 통계청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earch/search.do#>, 2020년 3월 13일 접속.

6)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감소 등과 같은 자연적인 성장 둔화의 요인과 함께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이미지 실추가 큰 요인이 되었다. 교회에 대한 시선은 냉소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위기는 이미 성장하여 기반이 잘 세워져 있는 기성교회보다는 새로 개척하는 교회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다.⁷ 이런 현실은 개척을 시작한 상당수의 교회가 1년 안에 문을 닫거나 나머지 교회도 미자립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는 현실을 통해서 확인되어진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교회의 교회 개척에 대한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었고, 교회 개척을 회의적으로 여기게 했다고 본다. 한국교회의 교회 개척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더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교회를 통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교회는 1950년대 이후로 교회 개척에 큰 관심을 갖고 4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성장 이후 미국교회는 교회 개척의 의지를 상실하고, 교회 개척에 힘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교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⁸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이런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은 교회 개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실천방안의 부재와 함께 나타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런 교회 개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적극적인 교회 개척과 더불어 준비가 충실한 교회 개척을 실행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교회의 성장기 때에는 소위 믿음으로 깃발만 꽂으면 성도들이 모이는 시기가 있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비난받는 기독교의 사회적 현실 속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근거한 교회 개척과 더불어, 충실한 준비가 있는 교회 개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셀교회 가운데 하나인 안산동산교회에서 7년간 사역을 했고, 안산동산교회가 ‘큰숲운동’의 일환으로 분립개척한 11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분립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건강한 공동체성을 근거로 한 셀목회를 기반으로 한다.

7) 김인호, “교회개척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서”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2), 70-5.

8) C. Peter Wagner, 「교회성장을 위한 교회개척 가이드」,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5-8.

이러한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준비가 충실한 교회 개척을 통해 안정적인 교회 개척과 성장을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연구하되 안산동산교회의 큰숲분립개척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큰숲운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국교회의 교회 개척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2. 범위와 한계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셀목회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한국교회에 전하기 위해 큰숲분립개척뿐 아니라 건강한 셀목회를 전달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교회 개척을 위한 코칭과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큰숲운동’은 먼저는 안산동산교회 내부적인 셀목회의 현장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 범위를 큰숲분립개척에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큰숲운동’이 공식적으로 태동되기 전에 개척된 시화동산교회를 제외한 11개 교회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연구범위에 두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의 건강한 셀목회를 위한 ‘큰숲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 운동을 통해 분립개척된 11개 교회를 통해 연구 분석하고, 분립개척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

3. 성경적/신학적 근거

1) 셀의 성경적 근거

(1) 구약

성경에 셀이나 셀목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셀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공동체이고, 이런 셀목회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살펴야 할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공동체이며,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이 인간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반영한 것이고, 결국 셀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방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관계성’에 있다.

(2) 신약

이런 근거는 신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기록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경험시키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셀공동체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기록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은 공동체인 셀을 하나님께서는 처소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⁰ 또한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가정에 세워진 교회였다. 당시 예배를 위한 건물이 없이 가정에 모였고, 그 집을 중심으로 셀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다.¹¹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모였던 장소이자 교회가 태동한 장소부터가 마가의 어머니집의 다락방이었다. 사도행전 1장 13 - 15절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 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9)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38.

10) 이평강, 「만점짜리 셀리더로 서기」 (서울: 두란노, 2012), 37.

11) Vincent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 신문사, 2005), 5.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셀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신약에 나타난 성경적인 셀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셀공동체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3) 기타

이 외에도 셀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많다. 창세기2장 18-23절의 돕는 배필에서, 교회가 집에 모였다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로마서 16장 3-5절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의 많은 형제와 성도들이 가정에 있는 셀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개척의 성경적 근거

(1) 구약

구약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연속이기에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여긴다.¹² 이러한 구약에 등장하는 교회의 시작은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최초의 가정공동체가 최초로 개척된 교회인 것이다.¹³ 창세기 2장 22-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12)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4), 206.

13) Henry C. Thiessen, 「조직신학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645.

중의 빼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개척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에 개척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개념을 내포한다고 봐야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개척’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와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에서 단 두 번 기록된다. 이 구절은 가나안 시대의 교회 개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을 이룩한 순수한 개척교회임을 알 수 있다.¹⁴

(2) 신약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 공동체가 유지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개척되고 성장했다.¹⁵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개척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기록한다.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는 핍박을 통해 교인들은 사방으로 흠어졌고 흠어지는

14)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35-6.

15) 이규승, 「성공적인 개척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1997), 34.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개척하게 된다.¹⁶ 이런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안디옥교회가 개척된다(행 11:19-21).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복음을 이방으로 확장하였고,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지역과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다. 3차 전도여행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볼 때에 개척은 선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타

이 외에 개척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10장 2-4절, 마가복음 6장 7-13절, 누가복음 9장 1-6절의 열두 제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지상명령을 통해서¹⁷ 등장하고,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교회의 시작 속에서도,¹⁸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초대교회의 시작된 상황 속에서도 개척의 본질이 등장한다.

3) 셀과 개척의 신학적 근거

(1) 공동체신학

셀교회와 교회 개척의 신학적 근거는 공동체신학에서 찾아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현진은 이에 대해서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를 개별적으로 취급하였다. 즉 관계적인 측면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회를 삼위 하나님의 정태적인 존재방식 이해에만 초점을

16) Ibid., 35-6.

17) Elmer Towns, 「사도행전식 교회개척」, 김재권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16.

18) 전호진, 「선교학」, 67.

맞추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동태적인 사역 방식의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삼위일체 교리의 역동적인 면을 또한 찾아볼 수 있다.”¹⁹ 이는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동체적 존재방식은 인간 창조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진다. 하나님은의 인간 창조는 자신의 신성이 손상되지 않고 자신을 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²⁰ 때문에 셀은 ‘기독교 기초공동체’이며, 개척은 이러한 기초공동체의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공동체가 창조의 목적이라면 공동체는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인간창조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성경의 명령 속에도 그대로 실현되어진다.

(2) 코이노니아 신학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법은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적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와 목적의 수행방법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을 통하여 실현하신다.²¹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협력하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본성을 근거하고, 코이노니아가 생명의 본질임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육신과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통한 생명의 회복사역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결실이 셀공동체이며, 셀공동체는 코이노니아의 실행되는 곳이다. 또한 이런 코이노니아의 확장의 개념은 교회 개척과 필연적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디아코니아 신학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성육신을 통해서 실행되었다. 인간과 교제하고

19)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2.

20)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19.

21)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26.

소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실행 방식이 성육신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또한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준비되었고 실행되었다. 또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12제자 공동체 안에서 성육신 되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고, 인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 이러한 종이 된 성육신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죽음의 복종이 바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이다.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인류 회복을 위한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행된 디아코니아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친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와 셀공동체는 성육신의 원리가 실현되어 종이 되고 섬기는 공동체로 존재한다. 개척의 원리 또한 이에 지나지 않는다. 개척은 성육신을 통해 세상과 코이노니아하신 그리스도의 방식인 디아코니아를 그대로 취하고, 세상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어 섬겨야 하는 것이다.

4.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셀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셀목회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재생산하고 있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연구하기 위해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11개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설문조사하여 분석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11개 교회의 목회자들을 인터뷰하여 ‘큰숲운동’이 각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지를 연구하고 소개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바람직한 교회 개척의 대안을 한국교회에 제시하고자 한다.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 제기, 연구범위와 한계, 성경적 신학적인 근거, 연구방법론과 문헌검토를 진행한다. 2장에서는 셀목회에 있어서 셀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성경적이고 신학적 이론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서 셀목회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성을 실행하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 개척을 위한 대안임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7년간 사역한 안산동산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셀목회를 실천하는

지와 이러한 셀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큰숲운동’에 참여하고 또한 분립개척을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한다. 4장에서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으로 개척된 11개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셀목회의 현장과 11개 교회의 ‘큰숲운동’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큰숲운동’을 통해 개척된 11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안정된 교회 개척을 위한 대안과 바람직한 개척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5. 문헌 검토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한 문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셀목회를 이해하기 위한 학자들의 문헌들이고, 두 번째는 안산동산교회가 펼치고 있는 셀사역을 담아낸 셀목회에 관련된 문헌들이고, 세 번째는 셀목회와 개척과 관련되어진 박사학위 논문들이다.

1) 셀목회관련 문헌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²²는 안재은이 소그룹을 주제로 쓴 책으로 공동체의 영적성장에 목적을 두고 쓴 책이다. 저자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16년간 강의하면서 목회에 적용한 경험을 담은 책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소그룹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다루었다. 연구자는 공동체신학의 기초를 다루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교제와 코이노니아를 다룰 때에 사용할 것이다.

「실천적교회론」²³은 은준관이 쓴 책으로 교회 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대해,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실천신학적인 답변을 쓴 책이다. 한국교회의 위기 진단과 더불어 신약시대부터 20세기까지에 이르는 교회론의 논쟁을 역사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3부의 역사적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사에 등장하는 교회론과 다양한 공동체 운동에 대한 정리된

22)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23)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관점들을 셀교회의 역사적 관점들을 다룰 때에 사용할 것이다.

「셀 교회 지침서」²⁴는 셀교회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의 책이다. 이 책은 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의 교과서로, 그가 25년 동안 셀을 현장에서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담은 책이다. 이론뿐만 아니라 셀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와 셀교회를 어떻게 전환하고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다루고 있는 책으로 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셀목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사용되어진다. 안산동산교회에서의 셀목회의 실천적 경험들은 랄프 네이버의 셀에 대한 이론과 근거가 바탕이 되었다.

「셀 교회론」²⁵은 박영철이 셀교회와 관련한 교회론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본질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셀교회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는 전 세계의 셀교회를 방문하여 그 경험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인물로 셀교회의 성경적인 필요를 설득하고 있다. 이 책은 셀이 성경적인 공동체임을 성경신학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자료로 쓰인다.

「제2의 종교개혁」²⁶은 빌 벡햄(Bill Beckham)이 쓴 책으로 교회가 대그룹과 셀 그룹으로 두 날개를 가진 교회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저자는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유를 셀그룹의 상실에서 찾는다. 교회는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데, 하나님은 셀공동체 안에 내재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분으로 묘사한다. 교회가 셀목회의 흐름을 잊어버리게 된 교회사적인 이유를 찾고, 셀공동체가 와해된 문제점을 저자는 설득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저자의 견해를 셀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견해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는 차원에서 본 도서는 사용되어진다.

「공동체 신학」²⁷은 김현진이 공동체 교회론, 공동체 교회사, 공동체 성령론 등 공동체를

24)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5)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4).

26) Bill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27)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성경신학으로 규명한 책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실천하려는 자들에게 그 성경적인 원리와 지침을 제공한다. 공동체 신학을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한 문헌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책이다. 특히 코이노니아 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공동체의 핵심을 코이노니아로 다루어 교회론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는 차별하여 공동체적인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고 했던 역사속의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현대의 공동체까지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는 코이노니아의 실현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신학적 도움을 많이 입은 문헌이다. 이는 안산동산교회에서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루는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교회사에서 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한 역사적인 의미를 안산동산교회가 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성과 맞물려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쓰인다.

「디아코니아 신학 선언」²⁸은 장승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를 신학적으로 조명한 문헌이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이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디아코니아를 이루어 증으로 계시하셨다고 저자는 말한다. 즉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소통하신 것이다. 저자는 이런 디아코니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세상과 소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연구자가 경험한 셀공동체는 관계 중심적이다. 이는 코이노니아되신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반영된 것으로, 이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디아코니아로 전개되어 공동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의 코이노니아의 관점이 디아코니아로 이어지는 것은 본 연구자의 셀목회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에 상당한 이론을 제공한다.

「바울의 공동체사상」²⁹은 로버트 뱅크스(Robert J. Banks)의 책으로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격을 제시하는 책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으로, 교회의 공동체신학을 다룰 때에 교회론적 공동체에 대한 바울적인 시각으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와 가족으로서의

28) 장승익, 「디아코니아신학 선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29) Robert J. Banks, 「바울의 공동체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18).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신학을 다룰 때에 포괄적으로 사용될 책이다.

2) 안산동산교회와 관련된 셀 문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³⁰는 박용규가 안산동산교회의 30년 역사를 역사적으로 다룬 문헌이다. 안산동산교회 김인중의 개척과 복음의 열정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책임을 목회로 실현한 스토리를 역사학적으로 분석하고 풀어낸 책이다. 특히 셀목회의 시작과 전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숲운동’이 시작되어진 배경과 그 일환으로 시작된 교회 분립개척운동의 전개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³¹는 김인중이 안산동산교회가 추구하는 셀목회에 있어서 8가지 핵심가치를 다룬 문헌이다. 그가 제시한 셀교회의 가치는 공동체성이 반영된 비전을 담아 내고 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가족, 섬기는 종, 동등한 인격, 동등한 사역자, 영혼 구원의 열정, 세계 선교의 열정, 하나님 나라 확장, 대가 지불이다. 이 책은 셀목회가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나 수단이나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셀목회의 진정한 가치는 성경이 제시하는 공동체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³²는 김인중의 셀목회에 있어서의 리더론을 다룬 책이다. 리더의 자세, 리더의 사명, 리더의 코칭, 리더의 통찰력을 목회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전적인 흐름에 맞추어 써내려 갔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리더는 언제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사람을 얻기 위해 화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끝까지 용납하고,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며, 리더를 길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0)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안산: 큰숲, 2009).

31)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8).

32) 김인중,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울: 두란노, 2009).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네 기둥」³³은 김인중이 교회는 무엇인지 셀목회를 통해서 경험한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그는 먼저 교회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즉 공동체는 인격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셀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상호책임을 강조한다. 혼자서는 안 되며 함께 여야 한다는 함께함의 능력인 코이노니아를 다루고, 서로 덕을 세우고 책임지며 후원자가 되라고 요청한다. 셋째는 리더십을 다루는데,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이 되라고 말한다. 넷째는 번식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셀교회의 비전을 제시한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³⁴는 김인중이 안산동산교회를 처음 개척하여 안산동산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까지 현장에서 전도로 일군 안산동산교회의 이야기와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세우는 과정까지 교회의 모든 모든 성장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러한 안산동산교회의 전도의 역량이 셀교회로의 전환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했다. 안산동산교회의 비전의 역사와 ‘큰숲운동’이 태동하게 되는 배경을 다룰 때에 본 도서는 사용되어질 것이다.

「셀목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³⁵는 송창근이 안산동산교회 부목사 시절에 김인중과 더불어 안산동산교회를 셀교회로 전환하게 된 8년간의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그 가치가 높다. 여기에서 셀교회를 위한 배경과 도전, 그리고 셀교회의 준비와 시행착오, 셀교회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과 전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셀교회로의 전환을 통해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시작되었고, 그는 이 일을 다루는 미래목회연구소의 소장으로 사역하며 ‘큰숲운동’의 열매를 거두게 된 이야기를 총망라하여 책에서 다루었다. 때문에 이 책은 셀교회로 전환하려는 교회에 지침서와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그는 안산동산교회의 청년부 안에서 먼저 셀을 적용하고 시도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본 연구자는 그가 ‘큰숲운동’으로 블루라이트교회를 서울 흥대에 개척한 이후에 그 청년부를 이어서 사역하면서 셀목회의 현장성을 경험하게 된 축복을

33)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서울: 두란노, 2013).

34) 김인중, 「나는 행복한 전도자」 (서울: 규장, 1996).

35)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누렸다. 때문에 안산동산교회의 셀의 핵심가치뿐 아니라 셀이 얼마나 공동체에 체질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경험들을 3장에서 써내려 갈 것이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또한 어떻게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를 4장에서 다룰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상에서 다룬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에 관련된 문헌을 통해서 3장의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를 분석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3) 셀목회와 개척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역동적인 셀교회 전략 연구”³⁶에서 신경식은 셀교회의 목적이 교회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한 셀목회와 그 역동성의 근거를 셀목회에서 오는 공동체성에서 찾고 있고, 그 예로 본 연구자가 사역한 안산동산교회를 셀교회의 사례로 연구했다.

“한국교회에서의 교회 분립개척전략”³⁷에서 김용국은 한국 교회 내에서 교회의 분립개척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모델 교회들에게서 본받을 점들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교회 분립개척의 성경신학적인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고, 실제로 분립개척의 과정을 어떻게 준비할 지에 대한 흐름 정리를 잘 하고 있다. 2장에서 분립개척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3장에서 안산동산교회의 개척의 과정을 정리할 때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전통적 교회로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³⁸에서 이영배는 셀 교회로의 전환 시에 이루어지는 토양화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룬다. 셀이 부흥의 수단으로 다루어 지고 시스템으로만 다루어 지는 목회현장과 성급한 시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토양화

36) 신경식,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역동적인 셀교회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37) 김용국, “한국교회에서의 교회분립개척전략,”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38) 이영배,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토양화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를 다룬다. 이 부분은 3장에서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의 전환과정과 병행해서 분석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다.

“공동체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셀교회와 셀 리더십 연구”³⁹에서 심민수는 교회의 본질을 공동체성에서 찾고 공동체적 교회를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차원에서 논의하되, 셀교회의 공동체성을 신학적인 면에서 논하고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적 교회의 이해를 위한 성경신학적 뼈대를 제공하고, 공동체 교회로서의 셀교회의 이해와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2장에서 공동체적 교회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개념을 정리할 때에 사용되어 진다.

4) 연구를 위한 핵심 성구

본 연구를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한 핵심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18절은 구약에 나타난 셀공동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로 삼았고, 신약은 마가복음 3장 14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사도행전 1장 13-14절, 사도행전 2장 42-47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3-5절, 빌레몬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을 통해 셀공동체에 대한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위해,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 22-25절,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7장 18절을 연구하였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1장 19-21절, 로마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0-11절을 근거로 연구하였다.

39) 심민수, “공동체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셀 교회와 셀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6).

제 2 장

셀교회에 대한 이해와 셀교회의 개척이해

본 논문은 건강한 셀목회 추구가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셀목회를 통해서 12개의 교회를 개척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연구하여, 한국교회에 바람직한 개척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먼저 셀목회에 대한 이해와 셀목회를 통한 개척이해를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충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셀목회와 개척은 필연적 인과관계에 있고, 교회 개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셀목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이 그 기초임을 논할 것이다.

셀목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할 것이다. 셀목회는 셀이 교회의 DNA가 되고 신경이 되도록 하는 목회이기 때문이다. 셀목회의 첫 시작은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가 1980년 집필한 「Successful Home Cell Group (성공적인 가정 셀 그룹)」에서 처음 사용한 것을 교회성장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셀교회가 무엇인지는 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의 주장을 봐야할 것이다. 네이버는 셀교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여 세계 교회에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986년 싱가포르 로렌스 쿵이 개척한 FCBC(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를 함께 동역하면서 세계적인 셀교회로 성장시켰다. 이런 경험으로 세계 여러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컨설팅해 주었고, 그의 책 「셀목회 지침서」가 1989년 출판되어 셀교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⁴⁰

네이버는 셀교회를 정의하기를 “비전통적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셀 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40)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43.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라고 한다.⁴¹ 이런 정의에 따르면 셀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영철은 셀교회 모델의 가장 큰 특징적인 면을 교회의 모든 구조가 셀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는다. 셀 그룹들이 교회의 핵심을 이루며 특정한 방식으로 매주 모인다는 것이다.⁴²

데이비드 핀넬(David Finnell)은 셀은 예배, 하나님 경험, 섬김, 복음화를 위한 신자들로 구성된 유기적인 몸이라고 설명하는데,⁴³ 유기적이라는 말은 셀공동체가 긴밀이 연결되어 떼어 낼 수 없는 몸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셀교회를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로 보며, 동시에 5-15명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셀은 예배, 교제, 기도, 전도, 양육, 봉사 등의 기능이 수반되며,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소그룹을 나타낸다고 말한다.⁴⁴ 셀을 기독교 기초공동체로 보는 이런 관점은 데이비드 핀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셀을 기독교 기초공동체로 표현하면서 셀은 사도행전에 등장한 교회의 기초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⁵

이를 토대로 볼 때에 본 연구자는 셀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셀교회는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관계로 모인 셀 소그룹이 기초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다.” 이러한 셀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 공동체성이 기초가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41) 박영철, “한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3), 3.

42) 박영철, 「셀 교회론」, 230.

43) David Finnell,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23.

44)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97.

45) David Finnell,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230.

1. 셀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이론

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동체성을 교회의 기초공동체인 셀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셀목회를 추구한다.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개념은 바울에 의해서 다양한 유비로 다루어진다. 바울은 공동체를 논할 때에 등장하는 은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은 건물과 권속(가족)과 몸이다. 바울의 건물 은유는 지역 공동체들을 세우는 사도들의 사역을 언급할 때에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을 이 작업을 맡은 건축자로 묘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과 장성하기까지 성장해야 함을 말할 때도 이 은유가 사용되었다.⁴⁶ 이것은 빌 벡햄(Bill Beckham)이 「제2의 종교개혁」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된 은유들은 ‘몸’, ‘가족’ 그리고 ‘건물’이고,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이 은유들은 통합되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체계들이라고 말한다. 몸은 유기적 생명 체계이고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체계이며 건물은 구조적 체계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은유로 표현할 때 몸의 개념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본다.⁴⁷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셀교회와 셀목회는 성경이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걸 바울의 공동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때문에 셀목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이론은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다.

1) 구약에 나타난 셀공동체

(1)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구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에 그 존재방식 자체가 공동체인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46) Robert J. Banks, 「바울의 공동체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18), 96.

47) Bill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212.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창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상호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관계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공동체는 ‘관계를 통해 상호 소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재은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에서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도 관계적 존재 양태를 띠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독특한 ‘상호 교제’(Inter-communication)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인 사람도 상호 교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⁴⁸ 본 연구자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모든 공동체의 기원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1인칭 복수 표현이다. 인간 창조에 있어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밀접한 협의와 상호 협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을 몇 가지 보게 된다. 첫째, 공동체의 기본은 관계를 통한 상호 소통과 교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 협의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공동체성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셀의 공동체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다. 셋째, 공동체는 존재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인간창조의 목적은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에 잘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속성은 셀교회의 속성에도 잘 반영되어진다. 타락한 세상은 피조물에 종 노릇 당하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피조세계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피조된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된 인간의 신적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과

48)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28.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을 창조주와 독특한 관계에 두며 창조주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다.⁴⁹

(2)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인간 공동체의 시작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인 공동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상호교제와 소통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하와를 창조하신 의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홀로 존재해서는 안되며 공동체로 함께 존재해야 됨을 의도하셨다. 이는 피조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아담이 동물과 달리 짝이 없는 것을 인식하고, 돕는 배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1장에서 일곱 번씩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어떤 것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⁵⁰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좋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돕는 배필을 뜻하는 에제르(עֵצֶר)는 보통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키지만, 군사적 원조를 의미하여 사용된다(사 30:5; 겔 12:14; 호 13:9). 어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움을 받는 사람의 힘이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⁵¹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인간공동체는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상호의존은 교제의 또 다른 형태이며, 이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반영이 인간

49) Gordon J. Wenham, 「WBC 성경주석 창세기(상)」,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1), 127.

50) Ibid., 84.

51) Ibid.

공동체 안에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의 상호의존성은 성경에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전도서 4장 9-10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보다 낫다는 것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할 때에 오는 위험과 위기를 공동체는 상호의존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적인 상호의존성은 셀공동체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약에 나타난 셀공동체

(1)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막 3:14).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공동체는 신약에 등장하는 셀공동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선교에 파송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것을 볼 때에 받은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고 받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성취함에 있다.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고자 한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로버트 귄리히(Robert Guelich)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음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파하는 그들의 선교의 기초를 제공한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의 사역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그가 준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자로서 그와 함께 있었다. 따라서 열 둘은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선포하는 하나의 기관이었다”고 말한다.⁵² 적어도 이런 견해는 공동체가 선교를 위한 기초라는 차원의 해석이다. 이런 견해는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인간 공동체를 창조한 이후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맥락과 일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우셨으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다.

52) Robert A. Guelich, 『WBC 성경주석 마가복음(상)』,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285.

“세우셨으니”(ποιέω)는 ‘그가 임명했다’, 혹은 ‘그가 창조했다’는 뜻이 있는데, ‘그가 창조했다’는 견지에서 볼 때에 이 동사는 ‘그가 만들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미묘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것의 등장을 뜻하고, 열 둘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창조로 간주되어지는 것이다.⁵³ 이러한 해석은 창세기에서 최초의 공동체 창조를 통해 사명을 실현하고자 한 삼위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을 다시 실현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고 시작하신 것은 공동체의 본래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12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생활했던 3년간의 공동체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의 원리와 생활방식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로 삼으신 것은 공동체의 본래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12제자 공동체를 통해 셀교회는 셀공동체의 원형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진다. 결국 셀교회는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다가서야 한다는 근거를 확인시켜준다.

(2)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도날드 헤그너(Donald A. Hagner)는 “예수의 임재는 비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마태복음 28장20절에 명백하게 언급되는 약속과 조화시켜서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한다. 예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실 것이라는 보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⁵⁴ 이러한 예수님의 임재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구절을 통해서 해석해볼 때에, 12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교의 사명을 실행할 때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체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약속과 함께, 공동체의 사명을 성취하는 주권자로서의 임재를 보여준다. 헤그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53) Ibid., 283.

54) Donald A. Hagner, 「WBC 성경주석 마태복음(하)」,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848.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간접적인 확인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최고의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⁵⁵

이를 근거로 볼 때에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셀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공동체적인 참여로 셀공동체에 함께 하겠다는 확증을 받게 된다.

(3) 사도행전 1장 13-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행 1:13-14).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외 없이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당시 예배를 위해 모인 집을 중심으로 셀공동체가 이루어 졌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도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5절에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고 할 때에, 그 숫자가 굉장히 큰 단위여서 셀의 소규모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백이십 명의 숫자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것은 자체의 ‘공회’(Council)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인원수이고, 각 관관은 최소한 열 명의 구성원을 다스리거나 대표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기에, 누가는 새로 태어난 교회가 이미 그 자체로 완비된 공동체로서 12번째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유대 전통적 해석을 통해서 짐작해 볼 때에도 초대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를 공적으로 구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고,

55) Ibid., 849.

56) D. A. Carson, R. T. France, J. A. Motyer, G. J. Wenham. 「IVP 성경주석」, 신현기 역 (서울: IVP, 2010), 1474.

열두 사도로 보아 열둘이라는 숫자는 명백히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⁵⁷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나게 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호모θυ마돈’(ὁμοθυμαδόν)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일치된 기도와(행 4:24) 일치된 결정(행 15:25)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⁵⁸

이러한 초대교회의 시작을 볼 때에 공동체는 연합과 하나 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가 언제 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성령은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 됨 속에서 임재하신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셀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4) 사도행전 2장 42-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어떤 형태로 모였고 어떠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로, 셀교회가 추구하는 셀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해준다. 이 구절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주로 두 구조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성전과 집에서 모인 이중 구조였다. 이것은 오늘날 대그룹으로 모이는 공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공동체의 셀모임 예배를 잘 드러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양육’,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57) John R. W. Stott, 「사도행전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8), 54.

58) Ibid., 55.

‘교제와 관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통해서 ‘전도’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 모든 초대교회의 현상들은 셀공동체가 추구하는 원형을 잘 드러나게 해준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이 부분을 크게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정의한다.⁵⁹

셀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에 있다.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드러내는 공동체 속에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바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인해 공동체에 임한 성령은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도록 이끌었고, 이것은 셀교회 공동체의 원형으로 따를 모범과 모델이 되어 진다. 이런 코이노니아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해 함께 코이노니아하셨다(마 18:20). 이에 대해 존 스토틀은 코이노니아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 첫째는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적인 체험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 함께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받는 것뿐 아니라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코이노니아는 바울이 헬라 교회들 가운데서 모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연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말이었다.⁶⁰ 이러한 코이노니아에 대하여 네이버는 「셀 교회 지침서」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독교 기초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할 때, 진정으로 여러 오이코스가 사슬처럼 연결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⁶¹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셀공동체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5)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3-5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59) John R. W. Stott, 「사도행전강해」, 89-96.

60) Ibid., 90.

61)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4.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롬 16:3-5).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다고 성경은 언급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5절에서도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소개하면서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즉 가정에서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빌레몬 1장 1-2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테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는데,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의 종이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신약시대 교회의 대부분이 특정한 사람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 형태였음을 보여준다.⁶²

(6) 고린도전서 12장 12-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62) 박영철, 「셀 교회론」, 207.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 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 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12-27).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유를 13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하면서, 한 몸이 된 이유를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14-27절은 몸과 지체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여러 지체가 몸에 있고, 그 지체가 모두 한 몸에 붙어 있음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몸에 두셨고(18절) 때문에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 대해 쓸 데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22-25절은 약한 지체를 더욱 돌보시고 존귀를 더하신다고 한다. 이런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신 목적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⁶³ 이것은 다양한 지체들을 통한 목회적인 돌봄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셀교회에서의 셀목회의 공동체성은 결국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관계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합을 이루는 통일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63) 변종길, 「두란노 HOW주석 시리즈 40」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183-5.

요긴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도록 두셨다.

2. 교회사에 나타난 셀공동체

초대교회 이후에 셀공동체를 교회사 안에서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반영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은 역사가 흐른다고 해서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였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나누었고, 유무상통하며 공동체성을 유지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초대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의 정도를 넘어서, 실제적인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⁶⁴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기능이 강했던 셀공동체와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과 함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로 공동체가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던 공동체가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모임 공간에 대한 변화는 셀공동체의 긴밀함을 깨뜨렸고, 교회에 관객화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정규적인 가정 모임과 대모임에서 전적으로 특별한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집회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관객이 되었다고 백햄은 말한다.⁶⁵ 이렇게 된 이유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정부와 봉건 제도를 결합시켜 교회 구조를 발전시켰기 때문이고, 이 교회 구조는 놀랍게도 17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교회 건물 내에서 의식과 지도력을 한정해 둔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설계된 공동체의 본질과 생명은 변질되어진 것이다. 유기적인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로 바뀌게 되어, 셀공동체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교회의 흑암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64)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도: 소그룹하우스, 2010), 45.

65)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경기도: NCD, 2012), 56.

이런 흑암의 시대를 백헨은 이렇게 말한다:

“사탄은 이보다 더 천재적인 계획을 고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선 그는 교회에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존경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소그룹 구조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지체를 양육하고, 영적인 능력을 적용하며, 서로를 세우고, 필요한 지도자를 훈련시키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나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세워지는 능력에서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되었다.”⁶⁶

이 모든 것은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변질은 성도들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게 만들었고, 성도의 관객화 현상을 부추기게 된 것이 사실이다. 예배의 참여가 예배를 관람하는 것으로 바뀌고, 만인제사장의 거룩한 부르심이 성직자 중심의 전문성으로, 공동체적인 교제가 대규모 집회를 통한 피상적인 만남과 교제로 변질된 것이다.

이런 교회 건물의 등장과 함께 일어난 변질에 대해서 브라닉(V. Branick)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건물로 이해되었다. 둘째, 복수의 리더십과 리더십의 평등은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성직자 계급 제도에 자리를 양보했다. 셋째, 은사 중심의 사역이 사라지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시작되었다. 넷째, 예배는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에서 성직자가 중심이 된 의식으로 전환되고 평신도는 수동적인 관람객으로 전락했다. 다섯째, 바울의 가정교회에서 통합되었던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었다. 여섯째, 주의 만찬이 애찬에서 분리되고 공동식사가 아니라 제단 의식이 되었다. 일곱째,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통한 나눔이 없어지고, 주교에게 나오는 것과 그의 음성 듣는 것과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여덟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상실하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심각한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심지어는 가정 중심으로 모이던 셀공동체는 불법 모임으로 선언되기까지 했다. A. D. 360년과 370년 사이에 라오디게아에서 열린 종교회의는 집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66) Ibid., 59.

금지했다.⁶⁷

1) 수도원 운동과 셀공동체

건물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출현으로 교권화 되고 제도화된 교회는 초대교회의 셀공동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다른 신앙 공동체를 태동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그것은 수도원 운동을 통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등장이다. 이것은 교권화되고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신앙적인 저항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망에서 온 것이었다.⁶⁸ 이런 수도원 운동의 기원은 주후 250년경 이집트에서 안토니(Anthony)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⁶⁹ 안토니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은둔자가 되었고, 금욕 생활을 하며 철저한 명상과 헌신의 신앙을 모색하였다. 이는 비판의 여지가 많았지만 나름대로 표현되었던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다.⁷⁰ 당시 이집트에 만도 2만여 명의 여성들과 1만 명의 남자들이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은 극도로 소박했고, 이들 대부분은 바구니와 명석을 짜면서 기도하고 시편을 낭송하거나 성경을 암송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빵과 기름과 교환하여 식량으로 삼아서 살았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은 최소한의 의복과 깔고 잘 거적뿐이었다.⁷¹

이러한 안토니와는 다르게 파코미우스는(Pachomius, 주후 292-346년) 수도원을 만들고 체계적인 수도원을 운영하였는데, 철저한 독신생활, 예배, 노동, 그리고 수도사복을 입어야 하는 일종의 금욕적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창시했다. 파코미우스가 세운 수도공동체는 ‘파코미우스의 코이노니아(Koinonia)’로 불려 졌다. 초기 수도사들의 완전 고독한 생활은 당시 사막을 찾았던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맞지 않았으므로 공동 생활적 수도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파코미우스는

67) Vincent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258-9.

68) Karl Suso Frank,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최형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6), 37-8.

69) John Foster, 「새롭게 조명된 초대교회의 역사」, 심창섭, 최은수 역 (서울: 웨스터민스터 출판부, 1998), 201.

70)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13.

71) Justo L. González,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88), 225-6.

그 형태를 결정적으로 완성시킨 인물이다.⁷²

그는 무엇보다 수도원을 소그룹으로 운영하였다. 파코미우스의 수도원의 규칙을 보면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규칙을 살펴보면 여러 수도사들을 소그룹으로 맡아 리더를 정하고, 각 그룹은 상거래를 할 수 없고, 각 그룹은 순번을 정하여 농장, 주방, 병원, 장사 등의 일로 전 공동체를 섬겨야 했다. 식사는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제공되는데 그룹별로 식사를 해야 하고 식사 시 침묵을 지켜야 했다. 수도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홀로 일도하고 기도도 하지만 새벽과 저녁에는 그룹별로 예배를 드렸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일이고, 주일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다.⁷³

파코미우스는 남부 이집트에 은자 수도처가 아니라 강력한 수도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극단적 금욕 훈련이 아니라 합리적 공동생활의 수도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동서방에 수도 공동체를 퍼뜨리는 공헌을 하였다.⁷⁴ 이러한 파코미우스의 수도원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동체는 10개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코미우스 뒤를 이은 수도원 운동은 베네딕트(Benedict of Nursia, 주후 480년)에 의해 개혁의 노선을 걷게 된다. 그는 주후 529년에 로마와 나폴리 사이의 몬테카시노 언덕에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우게 된다. 이것이 모든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조가 된다.⁷⁵ 베네딕트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공동체를 위해 작성하였던 「규율집」에 있다. 이 문서는 비록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후 수세기에 걸쳐 수도원 운동의 기본적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베네딕트는 극단적 금욕주의 대신에 비록 엄격하기는 하지만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질서와 규범을 통한 지혜로운 수도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베네딕트는 수도 생활의 핵심을 기도라고 생각하였는데, 매일 개인의 기도를 위한 시간들이 배정되었고, 수도사들은 낮에 일곱 번 밤에 한 번, 모두 여덟 번씩 모여 예배를 드렸다.⁷⁶

72) Ibid., 228.

73) John Foster, 「새롭게 조명한 초대교회의 역사」, 202.

74) 김현진, 「공동체 신학」, 118.

75) Karl Suso Frank,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96.

76) Justo L. González, 「초대교회사」, 26-9.

이상에서 살핀 수도원 운동은 신앙적 저항을 특징으로 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헌신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공동체 생활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이는 초대교회 이후에 잃어버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아닐 수 없다. 교회사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열망함은 늘 존속되어져 왔다는 점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은 이런 긍정에 비해 부정의 요인들도 크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도피된 것으로 초대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으로의 회복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공동체였다는 점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점이다. 그들은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를 실천했기에 초대교회의 가정 중심의 쉼공동체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⁷⁷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정 중심의 공동체를 역사 속에서 계승하는 일은 로마천주교의 배경 가운데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로마천주교의 전성기였던 12, 13세기에는 정치, 교권, 경제에까지 교회가 부패의 극치였고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움직임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세에 일어났던 발덴시아 공동체(Waldensian Community)의 개혁이었다. 프랑스의 리용(Lyon)에서 시작된 발덴시아의 불씨는 유럽 교회의 심각한 암흑기 속에서 피어났다. 그 기원을 보면 1176년 리용의 발데즈(Valdez), 혹은 발도(Waldo)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 담긴 방랑시인의 노래에서 인상을 받고 부인과 딸에게 다소의 재산을 남기고 즉시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데서 시작되었다.⁷⁸ 그들은 청빈한 생활과 가정 중심의 집회와 순회전도,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삶에 본을 받은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아 나갔다. 특히 이들은 초대교회의 가정 중심의 공동체를 계승해 나가고자 했다. 이들은 철저한 가난 속에 살면서 초대교회를 재연하는 회중을 꿈꾸었다.⁷⁹ 이들의 개혁은 매우 무모하였고, 로마천주교로부터는 비기독교적이고 비인간적인

77)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14.

78)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140.

79)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8), 37-9.

박해를 받았고, 1184년에는 로마교회가 이들을 출교하였다. 그 후 그들은 북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⁸⁰ 1655년에는 피에몬테(Piemonts) 지역의 발덴시안 1712명이 부활절 새벽에 학살되기도 했다. 이런 그들의 개혁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중세의 암흑기를 비춘 한 가닥 빛과 같다고 하겠다. 헤더웨이(C. Kirk Hadaway)와 공동 연구자들은 여기서 발덴시안 공동체가 초대 가정 교회의 전통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어 온 이유를 그들이 가정에서 겸허한 삶과 단순하고도 순수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서 찾았다.⁸¹

중세시대의 공동체의 모습은 네덜란드의 공동생활형제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동생활형제단은 네덜란드의 디벤테(Deventer)에서 출생한 흐루테(Gerard Groote)의 회심과 함께 자신이 택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런 활동을 데보티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운동이라고 한다. 그가 흑사병으로 사망한 후 제자들에게 준 감화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제자들은 그의 유언을 따라 공동생활형제단을 조직하게 되었다.⁸² 이 모임은 1475년에는 남성들로 구성된 30가정과 여성들을 위한 100가정의 모임으로 확대되었다.⁸³ 공동생활형제단은 단순히 평신도의 신앙을 훈련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제가 되려는 성도들을 모아 그들에게 신앙을 훈련하는 그룹이었다.⁸⁴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보편적인 셀공동체로 보기는 무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형제단은 그 생활목표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셀공동체의 공동체성과 무관할 수가 없다. 이들은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당시 성직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것보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젊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고전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다.⁸⁵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a Kempis)는 공동생활형제단의 한 단체인 윈 데스 하임 교회(The Congregation of Windesheim)의 영향을 받았다. 에라스무스도 데보티오 모데르나의

80)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15.

81) Ibid., 415.

82) Albert Hyma, *Brethren of the Common Lif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49-55.

83) Kenneth A. Strand, *A Reformation Paradox* (Ann Arbor: Ann Arbor Publishers, 1960), 22.

84) R. Tudor Jones, 「기독교교회사」,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사, 1990), 28-9.

85) Albert Hyma, *Brethren of the Common Life*, 87-95.

정신의 영향을 받았고, 공동생활 형제단의 데보티오 모데르나 운동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독교 인문주의(Christian Humanism) 운동으로 확대되어 루터(Martin Luther)가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⁸⁶ 데보티오 모데르나 운동은 종교 개혁의 근거가 된 북구 인문주의 운동의 기원이 된 것이다.⁸⁷ 공동생활형제단의 데보티오 모데르나 운동은 오직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과 생활로 돌아가려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교개혁과 셀공동체

루터는 1526년 ‘독일 미사와 예배규율’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장 복음적이며 이상적인 존재형태를 ‘제 3형태’(die Dritte Weise)라고 하며, 이를 위한 조건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⁸⁸ 여기에서 그는 ‘제 3형태’로서의 모임을 비공식성, 비강제성, 소공동체성, 가정교회적 성향 등을 통하여 서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도, 말씀, 세례, 성찬, 선행과 구제를 목적으로 모이는 이 작은 모임은 가정교회 특성의 재연이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표현 양식을 그대로 표출하면서도, 제도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던 데 있었다.⁸⁹ 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제도교회와 공존하는 ‘제 3형태’의 소공동체를 구조적으로 이어주는 신학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다.⁹⁰ 루터가 살던 시대에 이런 셀공동체를 생각한 점은 놀랍지만 안타깝게도 루터는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⁹¹ 루터의 이런 ‘제 3형태’의 소공동체는 바로 셀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틴 부처(Martin Bucer)도 ‘그리스도적 공동체’(Christliche Gemeinschaft)를 말하는데, 그는 교회론을 정립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회이며, 하나의

86) 김현진, 「공동체 신학」, 143.

87)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7), 27.

88) Martin Luther, *Luther's Works* Vol. 5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5), 63-4.

89)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56.

90)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17.

91)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70-4.

사랑의 공동체인데 동시에 하나의 ‘교육단체’라고 본다.⁹² 루터가 말한 ‘제 3형태’와 부처의 ‘그리스도적 공동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루터는 예배와 사랑의 실천이 근본이나, 부처는 교육이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⁹³

종교개혁의 자극을 받아 유럽에서는 재세례파 공동체가 생겨났다. 재세례파 공동체는 전 세계의 교회사를 통틀어 수도원공동체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 운동이었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약 5백년 이상 지속된 생활 공동체로서 초대 교회 공동체의 연속성에 대하여 교회 역사상 큰 빛을 던져 준 경우이다. 재세례파는 16세기에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 개혁과 함께 개신교 안에 또 한 갈래의 종교 개혁의 흐름으로 추진되었는데, 보다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개혁 세력이다. 이들의 목적은 ‘참된 교회의 회복’이었다.⁹⁴ 이것은 신약이 원래 의도하는 기독교가 이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재세례파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사고하는 행위보다 삶을 그대로 사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재세례파는 실제로 그들이 말한 것을 실행하였고, 은혜와 구원을 이론적인 가르침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체험으로 알게 되는 어떤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성실, 비타협, 검소한 생활과 함께 도덕적 순결을 강조했고, 단순한 생활 역시 강조되었다. 더불어 제도화된 교회의 전체주의를 거부했고, 결코 개인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으며, 집단이라는 배경을 가질 때에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가졌다.⁹⁵

재세례파의 이런 공동체성은 셀공동체에서 말하는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재세례파 학자인 프리드만(Friedmann)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재세례파의 중심 사상은 형제를 돌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이 ‘형제’가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은 삶과 구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 중심 사상은 문제가 되는 ‘믿음’만이 아니라 ‘형제애’이며,

92)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60.

93)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61.

94) 김현진, 「공동체 신학」, 147.

95) Ibid., 152.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명령되었던 것과 같이 서로를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다.”⁹⁶

재세례파 중 후터파는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고 ‘재산 공동체(Community of Goods)’를 형성하고 살았고, 형제가 궁핍할 때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되었다. 이것은 16세기의 재세례파가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철저한 제자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철저한 제자도의 핵심은 새 계명으로 주신 산상수훈에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고, 이것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쉘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생활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철저한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서로 물질을 나누고 형제애적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실천은 당시 기성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16세기 많은 재세례파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⁹⁷

재세례파들은 공동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해서 주로 집에서 모였다. 이것은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되어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집에 모인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쉘공동체였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중요한 교회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되어진다.

재세례파에 있어서 집의 중요성은 크다. 예배와 가르침을 위한 장소로서의 집은 이단을 박해하는 관청으로부터 피신하는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다. 집은 서로를 보살피며 권면하며, 예배모임에서 서로 주기도하고 받기도 하는 곳으로, 자신을 바친 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⁹⁸

재세례파의 이러한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성은 후대에 가정교회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⁹⁹

96) Robert Friedmann, “On Mennonite Historiography and on Individualism and Brotherhood”, *Mennonite Quarterly Review*, X V III (April, 1944), 121. 김현진, 「공동체 신학」, 154에서 재인용.

97) William Estep, *The Anabaptist Story*, Michigan: Eerdmans Press, 1995. 146.

98)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66.

99)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17.

3) 근대 교회사와 셀공동체

루터의 ‘제 3형태’와 재세례파 운동에서 등장한 공동체는 비록 모범이 될 만한 성공적인 모델로서는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근대 교회사에 영향을 주었다. 17-8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로 이 영향은 이어졌고, 새로운 공동체 회복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경건주의는 루터 교회 자체 내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반동이었다. 도덕적 타락, 황제와 교황 신봉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다. 죽은 정통주의라고 생각한 신학적 방법과 교리적 엄격함에 대한 일종의 반동인 것이다.¹⁰⁰ 당시 개신교 스콜라주의(Protestant Scholasticism)라는 신학적 풍토는 종교개혁 이후 나누어진, 루터교회, 개혁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무력싸움이 종교평화회를 통해서 공존하게 되었으나, 그 후 치열한 신학적 논쟁은 신앙보다 정통교리를 우선하는 개신교 스콜라주의를 태동시켰다. 여기에서 경건성의 위기가 생겼고, 이 상황에서 태동된 것이 경건주의이다. 제 2의 종교개혁으로 불리는 경건주의를 사실상 창시한 사람은 필립 스페너(Philip Jakob Spener)였다.

그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독일 북부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 엄격한 루터교 교육을 받았고 루터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경건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진 라바디(Jean de Labadie)의 설교를 자주 들곤 했는데, 라바디는 카톨릭에서 칼빈주의로 개종한 목사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교회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인물이다. 스페너는 그에게서 목회의 열정과 소그룹공동체와 조직의 활용 등에 대해서 배웠다. 때문에 스페너는 교회를 제도적 측면보다 공동체의 성격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교회를 ‘작은 교회’ 또는 ‘경건한 모임’이라고 설명했고, 이것을 교회 개혁의 핵심적인 돌파구로 보았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진정으로 복음적 삶에 헌신 된 작은 모임이라 점에서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성격에 접맥되어 있다.¹⁰¹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스페너의 ‘경건한 모임’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셀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경건주의 운동이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을 형성하고, 교회 밖에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교회

100) Dale W. Brown, 「경건주의 이해」, 오창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25.

101) 김현진, 「공동체 신학」, 172-4.

전체의 쇄신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개인의 내면의 삶을 바로 세움으로 교회를 갱신한다는 방침이 전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당시 정통주의와 제도주의의 높은 저항도 경건주의 운동을 좌절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¹⁰²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기존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갱신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기존 전통교회 안에서 셀공동체를 실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경건주의 운동은 스페너에 이어 어거스트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에 와서 2단계로 접어든다. 프랑케는 스페너의 경건주의 이론을 실제 생활현장에 구체화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는 스페너를 만난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전에 8명의 동료들과 만들었던 Collegium Philobiblicum이라는 작은 모임을 다시 열어, 성경의 주해 강의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¹⁰³ 프랑케는 할레대학에서 경건주의를 제도화시켰다. 경건주의 영향 아래 설립된 할레 대학교의 성장은 경건주의의 제도적, 신학적 원동력이 되었으며, 대학교 안에 세워진 부속 기관을 통해 경건주의는 확대되었다. 그의 경건주의 갱신 운동은 교회에서 학교로, 교회론에서 교육학으로 이동하였다. 스페너가 ‘교회 개혁’을 통해서 경건주의 갱신을 했다면, 프랑케는 ‘교육적 개혁’을 통해서 경건주의를 갱신해 나간 것이다.¹⁰⁴ 이러한 그의 노력은 귀족 자녀들을 위해 세운 학교(Paedagogium)에서 니콜라우스 진첸도르프(Nic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가 나왔고, 모라비안 공동체로 경건주의 운동이 이어지게 된다.¹⁰⁵

스페너와 프랑케의 교회 갱신을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신학을 전체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찾아 나가기 위한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런 경건주의는 결국 진첸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 웨슬리의 공동체 운동을 낳는 일에 큰 기여가 되었다.¹⁰⁶

102) W. A. Visser't Hooft, *The Renewal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1956, 83-4.

103)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21-2.

104) Haward A. Snyder,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128.

105)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22.

106) 김현진, 「공동체 신학」, 179.

스페너와 프랑케에 이어 등장한 경건주의 운동은 진첸도르프와 그의 모라비안 공동체(Moravian Community)이다. 진첸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경건주의 운동은 심화되고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¹⁰⁷ 그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 지방 색슨루터교회(Saxon Lutheran Church)에 머물면서 스페너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체제에 머물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보헤미안들은 장로를 선택하고 1772년 정식으로 모라비안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정통 루터교회는 물론 경건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분열이 된다. 진첸도르프는 이후 세계선교에 전념하였다. 그는 1727년 ‘매는 띠’라는 의미를 가진 ‘밴드’(Bandeu)라는 작은 그룹들을 헤른후트 공동체 안에 조직했다. 둘 혹은 세 명으로, 남녀가 따로, 기혼자와 미혼자를 구별하여 조직했고, 밴드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저녁에 모여 철야기도와 잘못의 고백과 서로를 위한 기도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하게 된다. 이후 밴드로부터 점차 콰이어(Choir)라는 그룹으로 재편성되었고, 연령별, 성별, 결혼 유무별로 나눈 콰이어는 10개나 되었다.¹⁰⁸ 진첸도르프의 교회론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회중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스페너와 프랑케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스페너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사상을 계승하려 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선교를 위한 모라비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순례와 섬김은 기독교 세계에 강력한 도전이 되어졌다.¹⁰⁹

진첸도르프의 이러한 노력들은 오늘날 셀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동질그룹으로 엮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진다. 이들이 공동체성을 위해 만든 밴드와 콰이어는 셀공동체의 소중한 모델이 된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이루어 나간 면에서 소중한 시도이며, 동질 그룹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발전적이라고 보아진다. 경건주의 운동이 이러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구조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고, 코이노니아를 실천한 것은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공동체성을 찾는 길이 된다.

이들의 경건주의 운동은 존 웨슬리(John Wesley)와 그가 실천했던 공동체 운동인 속회로 이어진다.

107) 정준기, “니콜라스 진첸도르프에 관한 연구” 「광신논단」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개혁신학연구원, 1992. 4), 187-203.

108)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24.

109) Ibid., 425.

그는 살던 영국의 시대적 상황은 영적 무감각과 타락으로 얼룩진 시대였다. 그는 옥스퍼드의 홀리클럽(holy club)을 경험한 이후 1735년 미국 조지아를 향해 선교의 여정을 올랐다. 이때에 프랑케의 ‘할레의 경건’을 접하게 되고, 아울러 폭풍우 속에서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경건과 신앙의 확신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후른후트 공동체를 방문하여 진첸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의 생활과 조직을 배우게 된다.¹¹⁰ 그의 이런 여정은 그로 하여금 모라비안의 소그룹 셀공동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영향으로 남게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한 이후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에 웨슬리는 모여든 자들을 양육하였고, 그들의 신앙적 성숙을 위하여 작은 모임을 조직하게 된다. 그것이 신도회(Societies)와 밴드이다. 이후 그는 연합 본부(United Societies)를 두고 다시 신도회를 밴드와 속회(Class meeting)로 나누어 조직한다. 밴드는 목회적 돌봄을 위한 작은 세포조직이다. 밴드는 내면적인 관심을 나누는 특색이 있는데, 고백적인 교제와 돌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다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훈련과 조직을 위한 작은 공동체를 목적으로 만든 속회가 주목받으면서 약화되었다.¹¹¹ 속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속회는 신도회와 달리 규율이 엄격하지 않았고 개종한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¹¹² 그리고 모든 밴드회원과 속회 구성원은 1년에 네 차례에 애찬(Love Feasts)에서 만나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다. 이를 위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자를 양성하여 소공동체를 지도하게 했다.¹¹³

웨슬리의 속회 운동에 대해 림(Lim)은 네 가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속회는 코이노니아와 대화의 통로이고, 공동적인 삶과 지원을 이룩해 가는 사역의 통로이며, 예배, 성경공부, 찬송과 기도를 통한 양육의 통로이며,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전도의 통로였다는 것이다.¹¹⁴

110) Ibid., 427.

111)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서울: 도서출판 kmc, 2008), 143-4.

112)) Haward A. Snyder, 「교회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276-8.

113)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145.

114) Isaac Lim, *Wesleyan Preaching and Small Group Ministry*, 517.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29에서 재인용.

웨슬리의 밴드와 속회를 통한 공동체 운동을 살펴보면 가장 발전적인 공동체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는 기존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교회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다. 그러면서 전통교회가 빠지기 쉬운 교권주의와 제도주의를 밴드와 속회라는 작은 신앙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개혁해 나간다. 이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시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교회 개혁에 대한 성경적 이론

게리 매킨토시(Gary L. McIntosh)와 폴 앵글(Paul Engle)은 선교는 교회를 개혁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교회성장의 핵심은 전도와 양육을 감당할 새로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¹¹⁵ 본 연구자는 교회 개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교회 개혁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교회 개혁의 이유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교회 개혁은 성경적이라는 것이다.¹¹⁶ 때문에 모든 교회 개혁의 노력은 튼튼한 성경적 토대에 기초해야 함은 옳은 일이다.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면 교회를 개혁한 자들이 이러한 교회 개혁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 개혁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방법이고 더불어 교회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는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수행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이 함께 병행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볼 것은 초대교회는 가정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은 셀교회의 뿌리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셀목회를 통한 교회 개혁을 위한 원리와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셀목회를 통한 교회 개혁은 매우 큰 성경적 지지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실현되어야 할 개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15) Gary McIntosh, Paul Engle,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교회성장학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47-50.

116) C. Peter Wagner, 「교회개혁 이렇게 하라」,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17-9.

이상규는 교회 개척이란 보통 교회가 없는 지역이나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¹¹⁷ 교회 개척의 필요성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과 귀결되어진다. 우리 말의 ‘개척’은 ‘거친 땅을 일구어 논, 밭을 만듦’ 혹은 ‘새로운 분야, 운명, 전도 따위를 엮’ 또는 ‘미개지를 개발함’이라고 정의한다.¹¹⁸ 교회성장학자들은 개척이라는 단어를 **planting**으로 사용하는데 심고, 씨를 뿌리고, 세우고, 청설하다는 의미들로 쓰인다. 개척에 대한 이런 용어의 성격을 살펴보면, 개척은 비전을 품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경적 근거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구약에 나타난 개척

교회 개척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구약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론과 근거를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연속으로 보며, 구약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있다고 여긴다. 교회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¹¹⁹ 이러한 견해로 근거해서 볼 때에 구약의 교회의 시작과 개척은 다분히 아담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개척행위임을 지지해준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교회 개척인 것이다.¹²⁰

교회의 개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음전파를 위함인데, 구약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실재했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교회적 기능은 여전히 존재했다. 무엇보다 신약교회가 가진 교회의 속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이해할 때에, 구약의 교회 또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며 복음의

117) 이상규, 「교회 개척」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20.

118) “개척”,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2001), 148.

119) H. C. Thiessen, 「조직신학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645.

120) 김준삼, 「교의신학 3권」 (서울: 총신출판사, 1995), 42.

기능을 수행했다고 여기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본다.

(1) 창세기 2장 22-25절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 2:22-25).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신약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이다. 이는 교회의 어원이 되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적인 성격과도 일치한다. 때문에 교회 개척을 이해할 때에 필요한 것은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공동체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인류최초의 교회로 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또한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개척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이 최초의 교회 개척으로 봐도 무방한 일임을 지지한다. 이미 하나님은 교회 개척을 아담과 하와 공동체를 지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원리를 심으시고, 그 원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 신약적 시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창조하신 일이다. 때문에 개척을 이해할 때에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원리 속에 담긴 교회 개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생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신 것을 보여주며, 이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를 창조하시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원리를 담아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창조 원리는 셀교회의 개척원리에도 그대로 실현되어질 원리이다.

손석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육체라는 그 신비로운 친밀성을 의미한다고 보는데,¹²¹ 셸교회의 개척은 공동체의 상호 친밀성으로 하나 됨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보통의 교회 개척이 공동체가 없이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개척의 시작부터 이미 형성된 공동체적인 개척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셸교회의 개척원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여호수아 17장 15절, 1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수 17:15).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수 17:18).

성경에 최초로 쓰이는 ‘개척’이라는 말이 이곳에서만 두 번 쓰인다. 가나안 시대에 교회 개척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개척되어진 것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통하여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이다. 가나안에 이루어질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룩한 순수한 교회 개척임을 알 수 있다.¹²² 이런 가나안 시대의 정복의 역사는 단순히 땅을 빼앗는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이며, 이를 통해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역이다. 교회의 개척은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복음을 통해서 죄의 기능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이기에 그 기능에 있어서 수행되어야 할 일은 가나안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에 교회 개척은 단순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한 가운데 개척되어 영적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전의 역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121) 손석태, 「두란노 HOW주석 시리즈 1」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200.

122) 전호진, 「선교학」, 35-6.

어디든지 들어가야 하는 침투력이 강한 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쉘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움직임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것을 볼 때에 교회는 세상에 한 가운데 실재하고 침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쉘교회에 있어서 쉘은 가정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 교회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용이하고 침투력있는 영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초대교회가 이러한 침투력이 강한 교회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훌륭한 관점을 제공한다.

2) 신약에 나타난 개척

신약에서는 ‘개척’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 개척이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말씀하신 것이 증명한다.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발전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성장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신약성경에 전반적으로 등장한다.

(1)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신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 이것은 최초의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의해서 조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설립을 미래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 속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개척하신 최초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만드신 신앙공동체가 그것이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이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는

120명이었고, 그들의 이런 모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보게 되어 진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접 개입하신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의 기초는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아람어에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에클레시아는 대개 카할(ܟܚܠ)의 번역으로 70인역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¹²³ 이 또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께서 세우는 교회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최초의 12제자 공동체가 교회이며 이것은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신약 최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개척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약 최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어진다.

(2)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는 베드로가 사도들의 지도자로 임명되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작정이고 의지이다. 이 일은 베드로를 중심으로한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과 함께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성령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대위임령을 통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다(마 28:18-20). 대위임령은 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명령임과 동시에, 신약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임에 분명하다. 이미 대위임령 속에 복음전파와

123) Donald A. Hagner, 「WBC 성경주석 마태복음(하)」,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761.

더불어 교회의 개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대위임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른 많은 초대교회를 재생산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 김용남은 그의 논문에서 대위임의 양상은 신약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역전도의 일차적인 방법은 복음전도와 함께 그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대위임령 속에는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 명령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교회 개척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¹²⁴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이런 대위임령의 성취와 더불어 동반되는 교회의 개척이 예수님을 통해 승천 직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예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성령의 강림과 맥락을 같이하고, 교회 개척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는 개척되어지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대위임령은 수행되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교회의 발생과 교회의 대위임령의 사명은 성령이 그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개척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 개척의 성경적 원리는 성령의 전적인 주도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교회 개척은 인간적인 요소나 사회적 환경의 요소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회 개척에 있어 성령의 주도성에 내어 맡기며 확장되어 갔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124) 김용국, “한국교회에서의 교회분립개척전략”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20.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이스라엘 관원들과 맞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갔고 이에 사도들의 업무량은 더해져, 초대교회에 집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때에도 성령은 지도자 선출과 역할에도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다. 이런 성령의 개입을 통해 교회는 그 본질이 유지되어졌다(행 5:1-11). 그러나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만을 담당하지 않았다. 집사들도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이 또한 성령의 주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초대교회의 이런 부흥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가져오게 되었고, 스테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후에 야고보 사도까지 순교를 당하는 시련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런 핍박과 함께 신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였다.¹²⁵ 성령은 예루살렘교회를 통해 빌립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셨고(행 8:5),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행 8:29) 다시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다(행 8:39-49). 안디옥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고, 바울사도의 전도여행을 주관한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이다. 성령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함께 교회 개척을 주도하신 것이다. 특별히 성령은 복음의 확장과 함께 교회 개척의 확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을 던져주고 있다. 바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고유한 존재목적에 다가설 때에, 성령이 교회의 개척을 실행하고 확장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 개척은 복음의 확장과 함께 확장되어진다.

멜빈 호지스(Melvin L, Hodges)는 “교회 개척의 원동력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말했다.¹²⁶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령이 교회의 기능을 하게하고, 성령이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에 있어서 성령의 전적인 주도권은 절대적이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의미하는 바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 개척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고, 복음을

125) 이승규, 「성공적인 교회개척 교회론」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7), 35-6.

126) Melvin L, Hodges, 「교회개척의 가이드」,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26.

위한 또 다른 교회의 개척까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주도하시는 복음 증거와 교회 개척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행 1:4-5). 이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고(행 1:14-15),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에 초대교회의 원동력과 교회 개척의 근원적 능력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함께 공동체의 기도가 기초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에 교회 개척은 성령의 주도와 교회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3) 사도행전 11장 19-21절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19-21).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교회는 자발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핍박을 통한 흩어짐이라는 극한 처방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 교회들을 통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다. 모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최초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안디옥교회는 스테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시작된 교회이다. 그 후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기독교인들이 고넬료의 입교 소식을 듣고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이어서 세계 선교의 센터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고 새로 개척된 교회의 위치에서 세계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설립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은 선교역사와 교회 개척의 역사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¹²⁷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개척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고린도, 에베소 같은 중심적인 도시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척교회들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교회 개척의 원리 안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가의 원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셀교회의 비전이기도 하다. 이런 개척의 원리는 안디옥교회의 개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아가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에 이어서 세계 선교의 센터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을 던져준다. 바로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선교역사와 교회 개척의 역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개척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 개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파송하는 모체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음전파와 선교를 위한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 개척은 안디옥교회와 같이 선교센터의 기능을 하는 교회의 지지와 후원과 파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디옥교회의 이런 기여는 초대교회의 복음사역과 교회 개척을 전방위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큰 보탬이 되었다.

(4) 로마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0-11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 15:2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0-11).

127) 이승규, 「성공적인 교회개척 교회론」, 36-7.

안디옥교회의 개척과 함께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개척은 사도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교회 개척을 통한 복음의 확장의 기초를 놓은 사역자이고 또 따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큰 진보를 갖게 되었는데, 바울의 선교의 전략 또한 교회 개척이 주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20절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바울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교회 개척이 선교사역의 중심임을 증거해주는 말씀이다. 이와 더불어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2절도 바울의 교회 개척을 지지해준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라는 바울의 언급은 교회 개척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울은 선교여행 중 방문한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복음전파와 선교를 위해 가장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터를 닦아 두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멜리온 에데카’(θεμέλιον ἔθηκα)는 건축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적 표현으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설립한 사실을 지칭한다. 바울은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공사에 기초를 놓는 건축가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터를 닦아 놓았던 것이며, 이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최초의 사람임을 뜻한다.¹²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 졌는데 이것은 복음 전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동시에 교회 개척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복음의 전파와 확장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가장 광폭적으로 실행하고 수행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개척했다.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일행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는 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려는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유럽으로 변경되어진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 교회가 개척되어졌다.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다. 고린도교회는 로마제국에서 가장 크고 부요하고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 학문,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128) 옥스퍼드 원서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서울: 제자원, 2006), 219.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곳에서 1년 반을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했다. 그 이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상업의 중심도시이면서 우상과 범죄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했다.

바울의 이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교회 개척이 매우 중요한 도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의 성령의 주도성을 매우 강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런 성령이 주도하신 바울의 선교와 교회 개척 속에 읽을 수 있는 교회 개척의 원리들이 몇 가지 나온다. 첫째는 교회의 개척은 지역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점이다. 영적인 도전이 매우 심각한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에 바울의 교회 개척은 매우 도전적이고 광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위해 로마로 들어가는 최종적인 목표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전파와 교회 개척에 있어서 그 어떤 제약이나 불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4. 교회 개척에 대한 교회사적 이론

1)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교회 개척

초대교회에서의 교회 개척은 가정 중심으로 모인 셀공동체로 개척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곳이 곧 교회가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 중심의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들이 주로 다루어 졌다. 가정과 교회, 셀공동체와 대그룹공동체가 병행과 연합을 이루면서 교회는 곳곳에 개척된 것이다.

교회사적으로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는 로마제국과 유럽이 개종되는 시기로 개인과 소집단이 선교구조의 주축을 이루었다. 초기 100년 까지는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로마제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복음화 되었다. 그후 313년까지는 복음의 확장기로 공적으로 복음이 전 로마제국을 정복한 시기였다. 이 시기까지는 구체적인 전략보다 사도시대의

전략을 계속적으로 적용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점점 교권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가 교회의 교권주의의 부패상에 대한 반동으로 수도원운동이 등장하게 된다.¹²⁹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전의 3세기 동안에 초기 기독교는 ‘실제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기독교 공인으로 지하교회가 지상교회로 바뀌면서 교회 내에서 세속적인 기독교를 가진 세력의 득세로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은 차츰 뒷전으로 밀려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¹³⁰

개혁은 이러한 기독교의 세속화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교회사의 역사 속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운동과 함께 발생되었다. 이것은 수도원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이다. 수도원 중심의 개혁이 중세 이전의 주된 선교 구조로서, 수도원 운동이 곧 선교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다.¹³¹ 그것은 기독교 세속화에 대항하여 교회 밖에서 쇄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국 기성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교회 갱신의 일익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¹³²

수도원중심의 교회 개혁은 중세 교회사 역사의 주류를 이루며 제도권 교회의 넓은 범위에 속하면서도 교회에 활력을 주는 ‘헌신 구조’를 제공했다. 랄프 윈터는(Ralph Winter)는 교회를 모달리티(modality) 구조와 소달리티(sodality)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모달리티 구조는 남녀노소 전체가 보통의 생물학적 가족들로서 다 모이는 보편 교회의 ‘교구 구조’이고, 소달리티 구조는 바울의 선교단처럼 제2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보다 긴밀한 조직체로 운영되는 ‘헌신구조’라고 말한다.

중세 교회는 ‘주교 관구 구조’와 ‘수도원 구조’의 두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볼 때 수도원은 중세 1천 년 동안 항상 교구 구조를 설립하고 재건하는 역할을 해왔고,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 구조가

129) 이상대, 「교회개혁 컨설팅」 (서울: 서로사랑, 2002), 21-2.

130) 김현진, 「공동체 신학」, 107.

131) 이상대, 「교회개혁 컨설팅」, 22.

132) Ibid., 121.

교구 구조보다 기독교 운동의 연속성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도원이라는 헌신 구조가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 계속 재창조되어 교황 제도에까지 영향을 준 영감과 쇄신의 근원이었고, 때로 주교 구조가 흔들릴 때에 이를 지켜 준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다.¹³³ 이렇게 수도원 구조가 공동체적인 구조가 된 것은 파코미우스와 베네딕트의 공헌이 컸고, 이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정신과 삶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교회를 갱신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수도원 운동 자체가 개척이었고 개척정신의 반영이라고 봐야한다.

2) 종교개혁시대의 교회 개척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 개혁가들은 당시 수도원 공동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와 칼빈은 둘 다 수도원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존속해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 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즉 수도적 생활이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형태보다 더욱 훌륭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과 이신득의 신앙과 반대되는 공적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수도원 공동체에서 성례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기독교인의 자유가 수도원의 규약과 규칙에 몰수당하는 것에 반대했다. 루터는 중세 카톨릭 수도 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세속의 가치 기준과 타협되어 있다는 것과 이원론적 신비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시 전체를 수도원화하려고 했고, 츠빙글리는 취리히시에서 실제로 신정 정치를 펼쳤다.¹³⁴

종교 개혁가들이 수도원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공동체의 생활원리는 비난하지 않았다. 이것은 칼빈과 루터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가톨릭을 따라 갈 수 없었던 일방적인 입장 때문에 중세 가톨릭이 가졌던 장점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원 공동체가 초대 교회적인 경건한 공동체 생활의 일면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훈련과 행위로써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공동체적인 삶을 막는 결과를

133) Ralph D. Winter, 「교회의 이중구조」 (서울: IVP, 1993), 17-8.

134) Donald G. Bloesch, 「세계의 예수 공동체」, 김현진 역 (서울: 무실, 1991), 51-2.

초래한 것이다.¹³⁵

수도원 생활이 종교 개혁가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개신교 역사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개척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17세기에 개신교 공동체들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 독일 북서부 린텔른 근처의 뮐렌벡(Mollenbeck) 수도원은 개신교 내에서 나타난 최초의 공동체들 중 하나이다. 이 수도원은 실제로 복음적인 공동체로서 변성해갔다. 루터 교단 내에서 유지된 두 개의 가톨릭 수도원이 있었는데 1163년에 설립된 시토회 수도원과 마리엔베르크(Marienberg) 수도원으로 이 둘의 수도원은 루터의 교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복음적 공동체로 변모되었다. 17세기 개신교의 경건주의 주류로부터 다양한 공동체 운동이 수도원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톨릭에서 칼빈주의로 개종한 장 라바디(Jean Labadie)는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독신 남녀를 위한 공동체들을 설립했고, 독일의 장 제누비(Gennuvit)도 1699년 수도적인 생활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다. 요한 켈피우스(Johann Kelpius)는 미국 필라델피아 페어몬트 공원에 비사이콘(Wissahichon)이란 은자의 집(Hermitage)을 세우기도 한다. 17세기 영국에서는 니콜라스 페라(Nicholas Ferrar)의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리틀 기딩 공동체(the community of Little Gidding)가 생긴다. 영국 성공회에 남아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이 공동체는 자신들을 로마 가톨릭과 청교도의 중간적 입장이라고 여겼다.¹³⁶

3) 근대교회의 교회 개척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개척은 공동체 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근대의 개척 또한 근대의 공동체 운동과 함께 맥을 같이 한다. 근세의 독일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과 그 운동의 충격으로 일어났던 다양한 공동체 운동과 함께 19세기까지 진행된 개신교 안에서의 공동체 운동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을 시도하게 된다.

야곱 스페너의 ‘경건한 모임’은 헌신된 성도들로 구성되어 영적 계발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이루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스페너의 집에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이는 초대교회의

135) 김현진, 「공동체신학」, 169.

136) Donald G. Bloesch, 「세계의 예수 공동체」, 69-70.

가정에서 모인 교회의 모습을 지닌다. 그리고 이 모임은 자유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주일설교의 핵심을 스페너가 나눌 때에 함께 한 성도들은 그것을 실제 생활과 공동체에 적용했고 많은 기도를 함께 실행하였다.¹³⁷ 이는 루터의 만인제사장 교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페너의 이러한 ‘작은 교회’ 또는 ‘경건한 모임’은 그의 교회론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 어니스트 스토플러(F. Ernest Stoeffler)는 ‘경건한 모임’은 교회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금 도입해야 했던 방법이었다고 평했다.¹³⁸ 이 ‘경건한 모임’은 가정에서 공공장소로 그 모임 장소를 옮기면서 그 특유의 친밀성과 자발성이 상실되어 결실은 더러 상실되어 후에 사라지게 되었지만, 반면에 그러한 가정모임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¹³⁹ 이런 점에서 스페너의 공동체 운동과 개척은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프랑케는 경건주의 운동을 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더불어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서 추진했다. 그가 시도한 할레 대학에서의 조직망은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¹⁴⁰ 그리고 그의 이런 대학 안에서의 경건운동으로서의 공동체 개척은 오늘날 대학 캠퍼스 안에서의 선교단체와 파라처치(Para-Church) 발생의 근거가 된다는 차원에서의 의의가 있다. 이것은 1734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요한 웨슬레와 조지 헛필드의 대학생 선교 운동과 함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에 의한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근대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rey)와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에 영향을 주어 19세기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다.¹⁴¹ 미국의 해외선교는 1806년 윌리엄즈 대학의 4명의 학생들이 건초더미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대학생 선교회를 탄생시켰고, 이런 분위기는 미국교회를 해외 선교에 자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북미선교회’가 조직되어 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20세기 미국의

137) Haward A. Snyder,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79.

138) Ibid., 100.

139) Ibid., 106.

140) Ibid., 86-8.

141) 김성태, “신앙 선교단체들을 위한 선교운동(18-20세기)”, 「미션월드」 5월호, 1983.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경건주의 운동은 근대에 이어 20세기까지 이어져 전 세계적인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는 초대교회의 선교가 개척과 직결되고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의의가 크다.

실제로 19세기는 선교 단체들이 공동체 생활을 운영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거나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선교회 본부가 신앙 공동체의 기능을 하게 된 경우가 그것인데, 영국의 후원으로 인도에 파송된 애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에 의해서 설립된 도버나 공동체(Dohnaver Fellowship)가 대표적이다. 이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 소유(all things in common)’하는 믿음의 선교 방식(faith mission)을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all one in Christ)’가 되었고, 계급이나 서열, 국적 등 배경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없었고, 사랑과 포용의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가득 찼다. 스텐리 존스(E. Stanley Jones)는 도나버 공동체를 지구상의 천국으로 표현했다.¹⁴² 그 외에도 스위스 바젤의 성 크리스초나 순례선교회(St. Chrischona Pilgrim Mission), 바젤 선교회(the Basel Mission), 라이프치히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회(the Leipzig Evangelical Lutheran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the China Inland Mission), 웨슬리 감리교 선교회(the Wesleyan Methodist Mission Society) 등의 선교회들도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다.¹⁴³

5.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에 대한 신학적 이론

셀공동체의 신학적 이론과 교회 개척의 신학적 이론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방식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방식인 공동체를 인간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하셨다. 그리고 공동체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실 것을 명령하셨는데,

142) Donald G. Bloesch, 「세계의 예수 공동체」, 73-4.

143) 김현진, 「공동체 신학」, 199-200.

이것이 성경에 드러난 개척의 모습이다. 때문에 개척은 공동체의 확장으로 그 신학적 이론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확장과도 연결되어진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실행은 초대교회의 복음전파와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다. 곳곳에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곧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확장은 곧 개척이다. 이러한 공동체 확장을 통한 개척의 개념은 신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신학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 개척과 셀공동체에 대한 눈을 열어준다. 이것은 셀공동체를 지향하는 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실천적 이론을 제공해준다.

오늘날 교회 개척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개척에 있어서 미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개척을 공동체를 확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성의 결여로도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교회의 성장과 쇠퇴가 공동체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약한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의 성장과 개척의 성공은 성취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개척과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확고한 공동체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동체의 존재 만으로도 공동체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지체가 다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관계의 친밀함을 위한 코이노니아와 상호 책임과 희생적 돌봄이 있는 디아코니아가 필요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제자도와 공동체의 확장이라는 비전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이라는 주제는 잘 통합된 신학적 이론이 바탕이 되어져야만 한다.

1) 공동체 신학

(1) 삼위일체적 공동체

하나님은 성경과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삼위일체적이다. 셀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신학적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찾아야한다.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 본질이면서 삼위로 존재한 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사 속에 삼위일체는 종교논쟁의 주제가 되면서 교리를 보수하는 것에 몰입하게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의 현실 속에 반영되지 못하고 무시된 경향이 크다.¹⁴⁴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를 개별적으로 취급하였다. 즉 관계적인 측면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 하나님의 정태적인 존재 방식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동태적인 존재 방식의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삼위일체 교리의 역동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참된 공동체의 모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¹⁴⁵ 역대의 교부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상호 관계성을 들추어내면서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관계 개념을 사용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하였다.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세 가지 관계성이 있는데, 이 관계성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다.¹⁴⁶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는 “태초에 교제(코이노니아)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로 있으면서 상호간에 ‘교제’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삼위의 관계를 ‘영원한 교제’라고 칭하면서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의 관계가 모든 인간의 교제와 공동체의 바탕이 된다고 말한다.¹⁴⁷

이렇게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 가족과 그룹 그리고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시므로 모든 피조물도 관계적 존재 양태를 띠고 있고 하나님도 상호교제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인 사람도 상호교제적이다.¹⁴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지닌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에, 성경과 창조 기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는

144) 오성춘, “삼위일체 교리와 섬김의 공동체 비전” 「장신논단」, 10집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4), 535.

145) 김현진, 「공동체 신학」, 52.

146) St. Augustinus,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4), 174-6.

147) Leonardo Boff, 「삼위일체와 사회」, 이세형 역 (서울: 기독교서회, 2011), 19-20.

148)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28.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질과 화해하는 것이 된다.¹⁴⁹

성삼위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며 서로 간에 완벽한 공동체로서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공동체이다.¹⁵⁰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신학, 즉 하나님과 그분의 신격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된 논증은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공동체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신학적 변호는 세 가지 기본 개념에 의존하는데,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그분의 변형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꿈꾸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그분의 비전을 향해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¹⁵¹

나아가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시고, 공동체의 이상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¹⁵²

이러한 삼위일체 공동체는 몇 가지 중요한 공동체적인 관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그대로 반영되어 만들어졌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공동체는 관계와 교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공동체의 모본이 되어 진다. 셋째는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와 연합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넷째는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동체와의 연합을 통해서 회복되고 유지되고 공동체의 이상이

149) 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30.

150) Ray S. Anderson,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203.

151) 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30.

152) Gareth W. Icenogle, *Building Community th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4.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셸교회의 공동체 신학의 근본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기에, 관계중심적이고 교제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셸공동체와 관계를 통하여 연합하시고, 이를 통해서 셸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에 그 초점이 있다. 때문에 공동체가 셸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할수록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운데 늘어나는 것은 마땅하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은 곧바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곳곳에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져 교회는 부흥하고 각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되어졌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과 교회 개척의 상관성은 삼위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지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의 장면이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적으로 일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창조는 공동체의 창조이고 인간 창조의 이유가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장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2) 교회론적 공동체

공동체신학에 있어서 두 번째로 다룰 것은 교회론적인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론적 접근은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의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으로 셸공동체의 의의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통하지 않고서는 셸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개척의 의의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과 그로 말미암은 베드로의 복음 전파 등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결과는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도 교회이다.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소유한다. 따라서

교회공동체의 다양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공동체는 정의되어야 한다.

i)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셀공동체

조지 래드(George Ladd)는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으로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¹⁵³ 구약성경에서는 교회의 어원을 ‘카할(קהל)’과 ‘에다(עדה)’로 사용하고 있다. ‘카할’은 집회 혹은 회중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총회 혹은 하나님의 총회라는 의미로 사용된다.¹⁵⁴ 종종 ‘케할 에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회중의 모임’을 말한다(출 12:6; 민 14:5; 렘 26:17). 반면 ‘에다’는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뜻으로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70인역에서는 ‘에다’를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번역했고, 성경 후기에 속한 책들에 따르면 ‘카할’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로 번역했다. 후기 유대교는 ‘쉬나고게’와 이상적 공동체로 간주되는 회중의 명칭으로서의 ‘에클레시아’를 구분해서 사용했다.¹⁵⁵

로버트 뱅크스는 고전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의 용례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원용되었다고 본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의식적으로 유대적 회당 공동체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주전 5세기경부터 한 도시의 시민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이것을 볼 때에 기독교 이전에 에클레시아는 일단의 사람들의 어떤 모임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초창기 공동체들이 유대교 회중과 헬레니즘 종파들과 자신들의 모임을 구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헬레니즘 종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바울은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고,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모임이 당시의 정치 회합과 구별되고, 매주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 모임과 구별되는

153) Gorge Eldon Ladd, *A Theology of New Testament*, (Michigan: Grand Rapids, 1979), 745.

154)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V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17.

155)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811-2.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구가 바로 그러한 표현들이다.¹⁵⁶

로버트 뱅크스는 바울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해는 후기 서신에서는 더 개념이 확장된다고 본다. 그것은 에클레시아가 지역 모임 이상의 더 넓은 개념임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의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하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천명한 것으로,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서 바로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러한 관계의 현재적인 특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늘 교회와 정규적으로 모이지만 성격상 간헐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 교회에 동시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와 공통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¹⁵⁷

그리고 뱅크스는 바울은 당시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에클레시아의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에클레시아의 개념적 포괄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적절했는지가 돋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헬라와 로마의 지식층과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주적인 형제애에 대한 동경, 개인적인 정체성과 친밀함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 자발적이며 종교적인 다양한 모임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영원성에 대한 탐구 등이다. 바울이 사용한 ‘에클레시아’ 개념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했다고 뱅크스는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성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개념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임에 대한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 모임의 장소도 제의적 장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모임들을 교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상적인 모임과 굳이 구별하길 원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바울의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은 모임의 성격과 그 역동성이 원천이 되는 것에 있다. 바울이 쓴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강조점은 결국 공동체 생활에서 모임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에 있다. 즉 공동체가 생겨나고

156) Robert J. Banks, 「바울의 공동체사상」, 61-7.

157) Ibid., 81-5.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것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⁵⁸

이러한 벅크스의 견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에클레시아의 용어를 쓰면서, 그 시대가 추구한 이상적 에클레시아의 개념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에클레시아 안에서 실현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클레시아는 선명하게 구별되어 존재했는데, 그것은 에클레시아 안에 기독교적인 공동체의 모임의 성격과 그 역동성이 실현되게 했다는 것에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에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적 공동체로서의 의의가 몇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는 그 모임의 성격이 부르심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공동체는 언제나 하늘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관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공동체는 시대적 맥락 안에 함께 존재하되 그 시대가 갈급해하는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되, 교회의 본질과 성격이 구별된 모임의 역동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에클레시아가 가진 이러한 교회론적인 공동체의 신학은 셀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어떤 형태와 체질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적인 존재방식이 강하여 배타적인 성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극복해 나갈 만한 통찰이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다양한 공동체적인 이상을 수용하면서도, 교회의 본질과 고유한 존재의 의미는 그대로 공동체 안에 담아내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견해는 지금 시대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공교회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ii) 가족으로서의 셀공동체

셀공동체의 정의할 때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셀은 가족이다’는 표현이다.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셀공동체에 대한 신학은 바울에 의해서 ‘권속’(οἰκελος)이나 ‘가족’으로 묘사된 것으로도 드러난다. 비록 바울의 공동체에 대한 몸 은유에 비해서는 빈도가 매우 적게 나오지만 매우 중요한 공동체에

158) Ibid., 88-92.

대한 신학적 개념이다.

뱅크스는 바울이 ‘가족’ 용어를 모두 그리스도와 관계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야 함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러한 가족의 가장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바울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서로를 한 가족에 속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격려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ἀδελφός)라는 용어를 통해서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것과, 오네시모를 ‘아들’로 여기는 것,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유모’ 라는 표현 등을 통해서 가정생활로부터 나온 유비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가족적 특성을 입증해 준다고 말한다.¹⁵⁹

이러한 가족공동체에 있어서 중심성은 사랑에 있다. 이런 증거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이라는 언급으로 등장한다(빌 1:8; 고전 16:24).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강조되어지고, 성령의 열매 중에도 등장하고 있다. 뱅크스는 사랑은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주관해야 하지만, 특별히 공동체의 내적 생활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사랑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진정한 연합으로 함께 묶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러한 가족에 대한 공동체적 신학은 예수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 3:34-35)고 말씀하신 것이 근거이다. 초대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하고,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족적이며 친밀한 환경을 만들어 성자와 성부와 함께하는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 속에서 연합체적인 실체가 되기를 노력했다.¹⁶⁰

가족으로서의 셀공동체의 신학적 의미는 공동체가 가족관계를 통하기 위해서 사랑의 중심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공동체는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159) Ibid., 97-102.

160) Ibid., 102-9.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쉘공동체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힘 있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으로서의 쉘공동체는 교회가 개척하고 성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iv)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쉘공동체

신약성경에서 교회공동체를 지칭하는 가장 탁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실제적이고 완전한 표현이라고 본다.¹⁶¹ 박형룡은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며,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보여주는 최대의 교훈은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에 있다고 말한다.¹⁶²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몸’으로 기술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지체들 사이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다고 강조한다(고전 10:17).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고전 11:29),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공동체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주장하거나 그 공동체 안에서 과당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결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⁶³

뱅크스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관련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된 것은 바로 고린도에 있는 지역 공동체라는 점이다. 공동체라는 점에서 지체들의 의무의 성취는 모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에 몸은 교회로 충분히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사역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161)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하」, 557.

162)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VI」, 20.

163) Robert J. Banks, 「바울의 공동체사상」, 113-4.

이것은 어떤 사람도 다른 이들이 ‘몸’에 기여하는 바를 깎아 내려서는 안 되며, 몸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사역의 다양성이 있고, 몸이 온전해지는 것과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의 상이함 때문이다. 셋째, 덜 귀해 보이는 섬김을 수행하는 지체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중요도를 평가할 때에 조심해야 한다. 넷째, 지체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한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 각 지체의 경험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체들의 의식적 경험이 있든 없든, 그 느낌은 공유된다는 말이다. 즉 ‘몸’은 공동체 신경을 가진다. 다섯째,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친밀함이 강조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공동체에 연합되듯이, 지체들 사이의 관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¹⁶⁴

이러한 바울의 ‘몸’ 은유는 후기 서신서들을 통해서 발전되었다. 초기 서신서에서 지상의 교회의 지역 모임에 관한 ‘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하늘의 실체인 ‘에클레시아’로 묘사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더 완전하게 밝혀져서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몸’은유는 확대되어 교회 안의 인종 구성을 포함한 창조된 ‘새 사람’까지 나오는데,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체 간의 상호 기여에서는 상호 의존성보다는 지체들의 공동 성장을 더 강조한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¹⁶⁵

이상을 토대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셀공동체의 신학적 의미는 셀공동체는 지체들 간의 다양성과 상호성과 의존성을 통한 밀접한 관계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셀공동체는 성령의 연합을 통해 관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64) Ibid., 113-7.

165) Ibid., 120.

(3) 코이노니아 신학

셀공동체는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를 기본적인 소통방식으로 삼는다. 이런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의 원형되시는 삼위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소통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성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의미한다. 성령의 본격적인 코이노니아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코이노니아는 이미 창세전 삼위 하나님에게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1장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와 그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서도 역시 삼위 하나님이 협의체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서로 함께 의논하는 협의체로서의 공동체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이의 코이노니아는 뒤이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코이노니아로 발전된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 된 공동체 이듯이 이를 따라 인간들도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다.¹⁶⁶

이렇게 볼 때에 코이노니아는 태초이전부터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지속되어져야 할 신학적 원리이다.

(1) 코이노니아의 성령과 교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 구호는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었다. 이것은 초대 교회 교부들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고백했던 용어로, 종교 개혁가들 역시 “교회란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성도의 교통’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란 뜻이다. ‘교통’이라는 말인 ‘Communion’은 ‘κοινωνία’가 어원이고, ‘공동체’도 ‘κοινωνία’가 어원이다.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166) 김현진, 「공동체 신학」, 53-4.

되어 교체하는 모임을 말한다. 신약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교체케 하는 역사로 ‘나’에서 ‘우리’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전인격적인 교체가 가능한 공동의 몸이 되었다. 심민수는 그의 논문에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교체, 또는 참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각자가 기꺼이 서로 나누며 복종하고 서로 도우며 짐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를 보여준다고 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코이노니아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¹⁶⁷

성령의 교체케 하는 사역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체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사역이다. 그리고 성령의 교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서의 코이노니아이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전 생활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공동체성’을 이루게 만들었다.¹⁶⁸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한 회복에 대하여 안재은은 ‘생명 현상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귄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 현상의 본질을 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는 파괴되어지고 공동체의 파괴와 생명관계의 파괴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파괴는 인간 상호간의 파괴와 책임 전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켰다.¹⁶⁹ 그 증거가 바로 교회공동체이다. 때문에 교회 개척과 교회공동체의 확산과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그 신학을 같이하는 것이다.

167) 심민수, “공동체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셀교회와 셀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6), 73.

168) 김현진, 「공동체 신학」, 56-8.

169)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44-7.

(2) 코이노니아의 세 영역

교회공동체의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사역으로 바울에 의해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어진다. 바울은 코이노니아 신학을 통해 본질적인 교회공동체를 구축하고, 사랑의 공동체 형성으로 보다 능력 있는 선교사역을 펼치고자 했다. 고로 코이노니아의 신학적 의미는 성령의 사역을 그 관점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성령은 코이노니아의 주체이다. 이러한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사역은 크게 세 영역으로 다루어 진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교제가 그것이다. 김현진은 이것을 수직적 코이노니아, 수평적 코이노니아, 대사회적인 코이노니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¹⁷⁰

수직적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회복시키셨고, 그리스도와 신자 개인 간의 일 대 일의 관계가 되도록 성령이 교제를 이루시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세례는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보여주는 예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도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성령을 통한 신의 성품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찬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수직적 코이노니아이다.¹⁷¹

수평적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상호간에 교제를 가능케 해주는 수평적 교제를 말한다. 성령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런 수평적 코이노니아에는 성도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인 사귀를 있게 하는 영적인 코이노니아와 지체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겨 고통과 기쁨을 나누어 지체를 세워주는 정신적인 코이노니아와 지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말만이 아니라 필요를 물질로 채워주는 한 몸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물질적인 코이노니아의 세 차원이 있다.¹⁷² 찰스 콜슨(Charles Colson)은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회의 친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70) 김현진, 「공동체 신학」, 60-1.

171) Ibid., 61-3.

172) Ibid., 63-7.

이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나누며, 서로 복종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짐을 나누어짐을 서약하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한다.¹⁷³

대사회적인 코이노니아는 믿는 자들끼리만 나눔의 삶을 갖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교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 사회 속에 있는 고통 당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삶을 같이 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이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된다. 이것은 구제와 선교의 부분의 코이노니아로 실제화 되어 진다.¹⁷⁴

이러한 코이노니아 신학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셀공동체성의 회복과 더불어 선교적 확장, 즉 셀공동체로서의 개척과 공동체의 확장과 귀결되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가시적이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셀공동체는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실재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며 셀공동체가 추구하는 실제적인 기능을 제시해준다.

(4) 디아코니아 신학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삼위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다. 헬라어 *διακονία*는 ‘섬기다’라는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용어의 특성상 복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홀로는 디아코니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본질이 디아코니아적이라고 할 때에는 이미 복수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⁵ 이렇게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적인 통일성을 전제로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디아코니아를 실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 공동체와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것과 공동체를 구속하시고 최종 구원까지 섬긴다는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디아코니아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173) Charles W. Colson, 「이것이 교회다」, 김애진 외 역 (서울: 홍성사, 1997), 155.

174) 김현진, 「공동체 신학」, 68.

175) 장승익, 「디아코니아신학 선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32-3.

장승익은 하나님이 사랑을 근거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와 성육신 사건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¹⁷⁶ 세상을 향한 창조와 구속과 종말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를 통해 이 세상은 작동하게 된다.¹⁷⁷ 이러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시작, 진행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케노시스, κενώσις)에 의한 디아코니아’이자, 신구약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진리이다.¹⁷⁸

하나님의 케노시스는 성육신을 이루고 이 성육신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그 사랑으로 디아코니아를 몸소 실천하시고 세상과 소통하신 것이다.

임창복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관계성을 다룬다. 그는 고린도후서 9장 10-14절에서 연보(κοινωνία)를 언급한 말이 ‘섬김’인 디아코니아로 쓰인 것을 언급하면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적 교제에서 타인들을 위해 수행된 섬김과 사역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즉 코이노니아는 구제를 통한 외적이고 실질적인 표현을 행할 때에는 디아코니아가 되는 것이다.¹⁷⁹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개념 속에 교제와 사권의 의미도 있지만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포함한 섬김과 봉사의 의미도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로 친밀한 교제와 사권을 통해서 디아코니아는 원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직조하는 역할을 한다.¹⁸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관련되는 성화의 과정을 다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진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교회 공동체를

176) Ibid., 35.

177) 박만, 「현대 삼위일체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3-44.

178) 장승익, 「디아코니아신학 선언」, 35.

179) 임창복, “성경적 관점의 코이노니아 교육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35집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205.

180) 장승익, 「디아코니아신학 선언」, 37.

거룩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정성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상 디아코니아적인 동시에 코이노니아적이라고 말한다.¹⁸¹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즉 ‘하나님의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교통, 즉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디아코니아의 하나님은 ‘사회적 하나님’이다.¹⁸²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디아코니아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디아코니아의 공동체의 모든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근거해야 한다. 교회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디아코니아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 되어야 마땅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상 공동체적인 디아코니아를 소유하시는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공동체도 다분히 공동체적인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천해야만 한다. 이런 디아코니아의 공동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하여 심민수는 그의 논문에서 섬김에 대한 성경적 의미들은 모든 성도가 기독교적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역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은사와 직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봉사자들과 지도자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원리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¹⁸³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먼저 본질로 돌아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근거하여 디아코니아를 실천에 옮길 때 교회도 유익이 되고 세상도 교회를 통해 진정 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¹⁸⁴

디아코니아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구원행위와도 관련되어진다. 때문에 디아코니아는

181) 정성욱, 「삼위일체신학」 (서울: 홍성사, 2007), 35.

182) 신현기, 「사회적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2009), 21.

183) 심민수, “공동체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셀교회와 셀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6), 159.

184) 장승익, 「디아코니아신학 선언」, 45-6.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라는 차원에서 기독교론적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연합되어진다는 차원에서 성령론적이고, 세상에 많은 죽은 영혼을 건지는 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선교론적이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돕는다는 차원에서 종말론적이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코이노니아하게 하신다는 차원에서 교회론적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랑과 섬김을 함께 이룬다는 차원에서는 목회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복음전파와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며 돕는다는 차원에서 사회학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디아코니아가 개입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디아코니아는 교회로서의 셀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방식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공동체의 성숙을 결정하고 공동체의 확장과 공동체의 개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학이다.

6. 소결론

이상에서 셀공동체와 개척의 성경적, 신학적, 교회사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된다. 그것은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은 깊은 관련성 속에 있다는 것이다. 셀공동체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반영하여 창조된 공동체는 최초의 교회로서의 셀공동체가 되어 진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반영되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중요한 것은 셀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교회는 개척되고 확장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공동체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신학적 이유와 배경이 되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은 그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고 그 원리가 통일되어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셀공동체의 확장의 개념이 곧 개척의 개념으로 통합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통합성을 기반으로 셀공동체와 개척은 하나가 되고 또한 확장되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셀공동체의 공동체성과 교회 개척의 본질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성의 중요한 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추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공동체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공동체성을 반영한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에서 셀교회와 교회 개척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는 관계성을 추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핵심은 관계성에 있다.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하는 관계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디아코니아를 반영한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상호책임지고 상호의존하는 것은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디아코니아를 반영한다.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핵심은 사랑과 그 희생성에 있다. 때문에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에는 공동체적인 희생이 필연적이다. 고린도전서12장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의 관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잘 보여준다. 이 또한 관계를 통한 섬김과 희생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는 경험되어지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적인 관계는 공동체가 경험되어지는 원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하신 것은 경험을 전제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은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인 사랑과 희생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이것이 교회부흥과 성장에 절대적인 이유가 되었다.

넷째,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는 가족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가족공동체를 회복한 것이다. 초대교회가 가정 중심으로 모였던 것은 확대된 가족의 의미를 지니고, 그들이 보여준 유무상통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은 가족공동체를 추구했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바울도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아들로 부르며 가족임을 자처한다.

다섯째,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는 선교적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로 경험되어졌고, 이를 통해 초대교회는 믿는 자가 더해지는 선교적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경험은 다분히 선교적이다. 이 선교적 맥락 안에 교회의 개척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적 공동체는 예수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통해서 명령받았고, 이는 성령의 주도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령의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주도성은 다분히 교회 공동체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연합하는 일에 관여하여 선교를 주도적으로 취하다. 이런 의미에서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은 성령의 주도성에 의한 선교적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갱신운동을 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정화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 갱신운동이다.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바울의 목회서신을 통해서도 지속되어지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지속되어진다. 제도주의에 몰입된 교회에 대한 저항과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생명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무너진 공동체에 대한 저항과 갱신 운동이 있었음을 교회가 증명해준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운동의 결실은 새로운 공동체의 개척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교회 개척의 의지는 이러한 공동체 갱신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일곱째,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공동체 확장에 대한 실제적인 비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사건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이다. 예수그리스도는 교회 속에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비전을 이루신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곳곳에 공동체를 세웠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다. 모교회의 파송과 후원은 비전이 실제적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은 지역의 제한이 없는 공동체 개척을 성취하게 했다. 그 비전은 광복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러한 7가지의 원리는 셀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원리 속에 함께 공존하며 통일성 있게 추구된다. 그러므로 셀공동체의 공동체성의 추구는 교회 개척의 원리로 작용하며, 교회 개척은 셀공동체성의 추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셀공동체를 추구하는 셀목회와 셀교회의 가치는 교회 개척을 통한

교회성장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셀공동체를 통한 교회 개척은 교회 개척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3장에서는 안산동산교회가 셀목회의 비전을 통해서 분립개척을 진행하고 있는 ‘큰숲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하여서 셀공동체를 이루는 셀목회를 통한 교회 개척이 교회의 성장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이 되는 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제 3 장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분립개혁연구

연구자는 3장을 통해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개혁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회 앞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개혁의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의 약화와 함께 비례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안산동산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셀공동체를 실현하는 셀목회로의 전환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12개의 교회가 개혁이 되었고 대부분의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어서 한국교회에 귀한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건강한 개혁을 위한 실천적 도움을 주고 있다.

안산동산교회는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셀목회를 통해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 대부분 대형교회의 약점은 공동체성 안에 필요한 필수적인 코이노니아가 부재될 때가 많다는 점이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시스템이 거대해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인격적인 소통이 부재 되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교회는 곧 성공목회라는 인식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개혁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개혁의 사역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혹 개혁을 진행하더라도 개혁에 절대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요소들이 준비되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거나 후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가 개혁된 이후에 자립과 성장을 가지고 오는 일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안산동산교회의 교회 개혁은 매우 탄탄한 개혁과정과 준비의 과정을 가진다. 그것은 교회들의 성장과 안정된 목회현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드러나기에, 이 모든 사역을 아우르는 '큰숲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그 가치가 충분하며 교회 개혁에 있어서 실제적인 모델을 보여주게 되리라 여겨진다.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시작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큰숲운동'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치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큰숲운동'의 다양한 사역과 더불어 '큰숲운동'을 통한 개혁의 역사를 살필 것이다. 나아가 '큰숲운동'의 정신과 의의가 2장에서 연구한

공동체와 개척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가치와 의의에 얼마나 접근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그 연구의 흐름을 잡아 나가고자 한다.

1.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 태동과 역사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태동은 안산동산교회의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 한 교회의 역사는 그 교회에 부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이다. ‘큰숲운동’ 역시 안산동산교회의 역사 속에서 태동하게 되었다. 때문에 안산동산교회의 역사와 그 속에 있었던 비전의 흐름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동산교회는 30년사를 박용규교수를 통해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를 발간하게 된다.

박용규는 ‘큰숲운동’을 통해 무조건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분립개척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델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교회가 동산교회만큼 그 교회가 속한 도시에서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할레공동체가 할레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헤른후트에, 휘튼대학이 휘튼 시내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월모어에 미치고 있는 그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⁸⁵

1) 안산동산교회의 한국교회사적인 공헌과 ‘큰숲운동’

안산동산교회는 한국교회의 교회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박용규는 이것을 다섯 가지로 특징짓고 있다. 이것은 곧 영향력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안산동산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그 가치와 공헌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안산동산교회는 민족복음화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구현해온 교회이다. 안산동산교회를 설립한 김인중은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한 도시의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185)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안산: 큰숲, 2009), 19-20.

확신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다.¹⁸⁶ 둘째는 안산동산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실현하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졌다. 박용규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이야기할 때에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전파, 복음의 대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동산교회는 성경적 교회관을 가진 한국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셋째는 대형 교회들이 경제적, 물질적 축복을 개교회주의로 전용할 때에, 안산동산교회는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작업을 착수했다. 이는 신앙유산을 다음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한국민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넷째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왔다. 안산동산교회는 개척할 때에 처음부터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개척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워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다섯째는 한국교회가 끝없이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있을 때에 ‘큰숲운동’과 셀 정신의 철저한 구현을 통해 성경적 교회 분립을 실천에 옮겨왔다. 지 교회의 설립이 아닌 분립개척을 실천에 옮겨 현재까지 13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이다. 동산교회는 대형교회를 지향하기보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¹⁸⁷

안산동산교회의 이러한 공헌 속에 ‘큰숲운동’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큰숲운동’은 복음전파와 하나님나라를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경험하면서 대형교회들의 많은 문제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 특히 대사회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지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한 중에 안산동산교회의 시대적인 공헌과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대사회적인 기독교 이미지 갱신과 더불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안산동산교회의 비전의 역사와 ‘큰숲운동’의 태동

안산동산교회의 역사 속에서 태동되어진 ‘큰숲운동’은 안산동산교회의 비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안산동산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비전에 대한 끊임없는

186)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8), 6.

187)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0-3.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비전은 대가지불을 통해서 결실을 보게 되듯이, 안산동산교회도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많은 대가지불을 통해서 ‘큰숲운동’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안산동산교회의 비전의 역사는 크게 일곱 번의 시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안산동산교회는 그 시기마다 비전이 선명했고 그 비전에 헌신하고 집중했다. 그러한 비전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큰숲운동’으로 열매 맺게 된다.

(1) 개척집중기(1979-1981)

이 시기에 민족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CCC의 민족복음화의 비전에 헌신했던 김인중은 안산의 반월 신 공업단지에 복음전파와 배움의 길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설립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다. 이 시기에 김인중은 모든 환경을 복음전파의 기회로 삼는 개척의 열정을 불태웠다.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사영리 복음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1기 개척시기의 능력이 되었다. 개척 6개월 만에 97명의 장년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해 성탄절에는 지하실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¹⁸⁸ 이것은 복음전파를 생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 복음전파와 전도집중기(1981-1986)

이 시기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개인전도와 기초 양육에 힘을 기울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김인중은 복음을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김인중은 “밭바닥으로 밟은 만큼 교회는 부흥 성장한다.”는 철학으로 안산 당을 밟으며 복음을 전했다.¹⁸⁹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문화와 가치관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신자들의 정신 계몽에 앞장선 시기였다.¹⁹⁰

188) 김인중, 「백절불굴의 크리스천」 (서울: 규장, 2004), 79.

189) 안산동산교회 25년사 1979-2004 자료집 (안산: 안산동산교회, 2004), 236.

190) 김인중, 「나는 행복한 전도자」 (서울: 규장, 1996), 47.

(3) 제자훈련과 평신도사역 전환기(1986-1989)

이 시기는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의 기초를 놓고 교회의 체질을 개선시킨 시기이다.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평신도 중심의 전도와 양육이 요청되어졌다.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락방 체제를 시도하였고,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순장과 리더를 신속하게 세우게 되었다.¹⁹¹ 김인중은 이 시기에 제자훈련에 거의 미치다시피 했다. 일주일에 일곱 그룹을 제자훈련으로 지도하면서 목회사역을 6년을 줄기차게 이끌었다.¹⁹² 이 시기에는 대각성전도 집회와 제자훈련이 함께 병행되어 졌고, 교회의 성장과 아울러 체질개선을 통한 평신도사역의 기초가 자리 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사역분담과 아울러 동역자의 체질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배경이 동산교회가 ‘큰숲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감에 있어서 사역자를 훈련하는 환경으로 작용되었다고 본다. 나아가 교회의 체질개선은 복음의 순수계승과 복음전파라는 원초적인 사명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역을 요청되게 했다. 그것은 복음의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이다. 이것이 1995년의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다.¹⁹³

(4) 대사회적 문화적 책임사역 확장기(1990-1995)

안산동산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복음의 순수한 계승과 복음전파에 집중했다. 그리고 더불어 복음의 대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⁹⁴ 김인중은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다.¹⁹⁵ 이러한 비전은 국내외 선교, 동산어린이선교원 개원, 동산상담실 개설, 헌혈운동, 무료급식, 사랑의 바자회를 통한 이웃사랑실천과 성금을 통한 대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역들은 안산동산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191)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10.

192) 김인중, 「나는 행복한 전도자」, 127.

193)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171.

194) 안산동산교회 25년사 1979-2004 자료집, 189.

195) 김인중,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07), 10-9.

교회로 체질전환이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회적 책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안산동산교회의 설립이다.¹⁹⁶

(5)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설립기(1995-2001)

안산동산교회는 1995년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이 일은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와 조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교회의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구현하려는 안산동산교회의 비전이 현실 속에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이다.¹⁹⁷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설립은 김인중의 개척 초기부터의 비전이였다. 안산이라는 가난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과거 자신처럼 험벗고 소외된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이 비전을 이루게 만들었다.¹⁹⁸ 게다가 안산이라는 곳은 주변에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 외지로 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김인중은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¹⁹⁹ 그리고 학교의 설립은 안산을 성시화 하겠다는 본래의 비전과 일치했다. 또한 농어촌교회의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의 돈이 없어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을 돕고자 하는 사명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²⁰⁰ 이렇게 설립된 안산동산고등학교의 교육철학은 ‘실력 있는 기독교 인재 양성 교육’, ‘기독교 모델을 만드는 교육’, ‘책임 있게 봉사하는 건강한 신민양성 교육’,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집약되어진다.²⁰¹

이러한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설립은 순수하게 안산동산교인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졌다. 장년 성도 3000명이 덜 먹고 덜 쓰면서 2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여 학교를 세웠다.²⁰²

196)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198-9.

197) Ibid., 204.

198) 김인중, 「안산동산고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5), 68-9.

199) 김인중, 「나는 행복한 전도자」, 157.

200) Ibid., 155.

201) Ibid., 166-72.

202) 김인중, 「백절불굴의 크리스천」, 58.

안산동산교회의 이러한 동산고등학교 설립의 헌신은 교회의 성장으로 직결되었다. 1995년 동산고등학교 개교시 3,445명이던 교세는 1999년 장년 성도 5,300명을 포함 전체 1만 명이 출석하는 대교회로 성장했고,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축복을 받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²⁰³

(6) 셀목회와 ‘큰숲운동’으로의 대전환기(2002-2009)

안산동산고등학교를 통해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구현한 거대한 실험에 성공한 안산동산교회는 기성교회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전략에 착수했다. 그것은 셀목회로의 전환과 ‘큰숲운동’의 시작이다. ‘큰숲운동’은 큰 나무 하나로는 주변을 푸르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 구성된 커다란 숲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되었다.²⁰⁴

2001년 안산동산교회는 셀목회로 전환을 시작한다. 셀목회를 접한 후 청년부를 시작으로 셀목회에 착수했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셀교회로 전환을 시도한다. 셀교회로의 전환 후 교회는 5년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이 시기에 장년은 1만 5천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셀목회가 가져다 준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결실은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교회와 삶의 전반에 역동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²⁰⁵ 이러한 셀목회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동체성과 성령에 의한 역동성이 약한 제자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2001년까지 출석 인원이 6천여 명으로 성장했으나 말씀의 실천과 양육과 전도와 다락방 공동체가 활력 속에 전진하지 못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²⁰⁶ 그리고 IMF가 준 충격으로 인해서 생계에 집중한 나머지 공동체 모임과 훈련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었다.²⁰⁷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인중은 새로운 목회의 틀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 셀목회이다. 이러한 셀목회로의 전환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토론과

203) “교회 분립으로 동사 목회 실천”, 기독교신문 1999년 11월 10일.

204)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58-9.

205) “안산동산교회, 현장 경험 바탕 독창적 세미나 준비”, 기독교신문, 2007년 7월 16일.

206)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14.

207) “셀이 살아나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교회성장」 (2008년 10월), 127.

논쟁만 오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²⁰⁸ 그러나 셀교회로 성공한 인도네시아 아바러브교회를 방문하여 셀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서 셀이 이론적이지 않고 ‘관계’속에서 다뤄진다는 것을 깨닫고,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 목회자와 평신도 간, 모든 관계가 가족공동체로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셀의 정신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때부터 셀목회는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²⁰⁹

이러한 셀목회의 성공과 함께 ‘큰숲운동’은 시작되었다. ‘큰숲운동’은 셀의 가치를 한 교회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개 교회 일변도의 성장주의를 지양하고 서로를 돌아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큰숲운동’은 하나의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또 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²¹⁰

이 같은 ‘큰숲운동’의 뜻은 교회의 분립개척이다.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안산동산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부목사 출신의 사역자가 함께 개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안산동산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분립하여 독립 개척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안산동산교회는 분립개척 하는 교회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함께 하도록 지원해준다.

이러한 분립개척은 교회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시화동산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05년 은혜의동산교회, 2006년 기쁨의동산교회, 2009년 창립 30주년기념 서울 홍대 블루라이트처치(Blue Light Church)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립개척을 통한 ‘큰숲운동’의 실천 외에도 이 시기에 다양한 ‘큰숲운동’의 실천들이 있었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모임(미준목)’을 만들어 동산교회의 목회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목회 방향을 제시했다.²¹¹ 이를 위하여 미래목회연구소를 만들고 이 사역을 지원했다.²¹² 둘째는 큰 숲 연합 캠프를 열어 작은 지역교회들을

208)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14.

209)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64-5.

210) “셀이 살아나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교회성장 (2008년 10월), 120.

211) 안산동산교회 25년사 1979-2004 자료집, 186.

212) Ibid., 207-8.

섬기는 것이다.²¹³ 박용규교수는 이것이 미국에서 영적각성운동 기간 동안에 열렸던 캠프미팅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²¹⁴ 개교회주의가 극대화되는 현실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한국 초기기독교의 영적 분위기가 쇠진시켰던 사경회 운동과 같은 소중한 사역이라고 평가했다.²¹⁵ 셋째는 셀세미나와 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공동체 회복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2005년부터 셀전환세미나와 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안산동산교회가 셀목회를 정착한 노하우를 그 시행착오와 어려움까지 여과없이 한국교회와 공유했다. 이러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는 현재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셀세미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셀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있다.²¹⁶ 이 사역을 위해서 미래목회연구소가 책임을 맡게 되는데, 미래목회연구소는 ‘큰숲운동’사역을 실행하는 중요한 핵심 기관이다.

(7) ‘큰숲운동’ 확장기(2010-2020)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2010년 이후에 광폭적으로 확장되어진다. 거의 매년 교회를 분립개척하여 ‘큰숲운동’의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1월 현재까지 총 13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총 9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2009년 5월 더불어숲동산교회, 2011년 6월 회복의 동산교회, 2014년 3월 복음의빛동산교회, 2015년 1월 그린시티교회, 2015년 7월 THE행복한STAGE(더행복한교회), 2016년 3월 동탄동산교회,²¹⁷ 2017년 1월 Day Church(날마다교회), 2019년 1월 배곧동산교회, 2020년 1월 푸른숲동산교회가 연이어 개척되었다.²¹⁸

2016년 김인중의 은퇴를 기점으로 안산동산교회는 세뫼세코리아를 설립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213) Ibid., 187.

214)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종신대학교출판부, 2007), 326-30.

215)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88.

216)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25년사 1979-2004 자료집, 207-8.

217) 동탄동산교회는 김인중의 은퇴 및 후임목사 위임 기념으로 분립개척된 교회이다.

218)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d21.org/02cell_training/big_Forest.aspx, 2020년 1월 10일 접속.

세미나'를 시작했다. 세뽀세코리아는 안산동산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지만 특정 교회나 단체,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네트워크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사역의 진정성에 대한 의도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는 '건강한 목회', '소통하는 교회', '혁신과 상생의 사역'을 통해서 세대와 지역과 진영을 뛰어넘는 세미나를 추구한다.²¹⁹

세뽀세코리아의 사역의 방향은 Road Map을 통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맞는 미래 한국교회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Link를 통해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기존교회와 개척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고, Platform을 통해 세대와 지역과 진영을 아우르는 연합운동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²²⁰

이 외에도 안산동산교회는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아 큰숲플랫폼을 설립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독교 생태계의 변화를 겪고 있던 포스트모던시대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공간플랫폼과 사역플랫폼을 운영한다. 공간플랫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코이노니아를 돕는데, 세미나와 인큐베이팅과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역플랫폼을 통해서 셀교회를 컨설팅 하는 사역, 안산동산교회와 큰 숲으로 연결된 교회들과의 네트워크사역, 건강한 개척운동의 일환으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를 훈련하는 사역인 M. Start Up(Mission start up, 미셔널처치와 코칭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²²¹ 이러한 사역은 안산동산교회의 미래목회연구소의 사역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기존의 셀세미나와 '큰숲운동'의 대내외적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2. 셀교회와 '큰숲운동'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셀목회를 통한 셀교회로의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219) "혁신과 상생의 사역 가치로 건강한 교회 세우기 돕는다", 기독교신문 2017년 7월 31일.

220) 세뽀세 KOREA 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s://www.facebook.com/pg/3PM2016/about/?ref=page_internal, 2020년 1월 15일 접속.

221) 큰숲플랫폼 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ksplat.org>, 2020년 2월 10일 접속.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셀교회로의 전환을 이끌고 미래목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송창근은 단순히 셀이 성장하고, 성도가 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셀의 열매는 셀이 셀을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며,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안산동산교회는 이러한 셀의 가치에 동참하는 셀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성공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큰숲운동’이라고 밝히고 있다.²²² 때문에 셀목회와 ‘큰숲운동’은 그 인과관계가 절대적이라는 차원에서 그 배경과 가치를 반드시 살펴봐야만 한다.

1) 셀교회의 토양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다. 대형 교회가 목회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한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교회의 목회적 토양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게 된다. 좋은 프로그램과 사역의 내용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토착화되지는 않는다. 토착화는 토양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송창근은 셀의 핵심은 기독교와 교회 사역을 ‘관계’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것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서로 관계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훈련이 없다면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이론이 될 뿐이며, 때문에 셀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과 문화, 목회자와 리더의 인격, 사역 스타일이 셀의 가치로 전달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²²³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셀교회로 전환되기 이전 개척 이후 20여년 동안 셀적인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안산동산교회의 한국교회사적인 공헌과 비전의 역사를 통해서 안산동산교회의 셀전환의 역사적 과정과 ‘큰숲운동’이 태동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안산동산교회는 셀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토양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 삶의 문화가 되는 전도중심의 목회이다. 김인중은 CCC출신의 학생 총순장 출신으로

222)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211.

223) Ibid., 211.

김준곤의 영혼 구원과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몸소 경험했다. 개척이후에 안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영리 전도를 하며 누비지 않는 곳이 없었다. 체계적인 전도 시스템은 없지만 흔히들 ‘안산동산교회하면 전도’라고 말했다. 삶의 문화가 되는 전도가 그 특징을 이룬다.²²⁴ 김인중은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79년도부터 86년도까지 직접 개인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새벽기도, 시장전도 등으로 직접 전도하여 7년 동안 87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한다.²²⁵

둘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목회이다. 셀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세계적인 셀교회의 전형적인 공통점은 예배와 셀에서의 성령의 강한 역사이다. 많은 경우 셀목회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만, 셀목회는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되, 그것이 목회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셀의 현장까지 흘러가게 한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셀교회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안산동산교회안에서 실재했다. 안산동산교회에서는 모든 공예배 이후나 새벽기도 이후나 다양한 모임 이후에 성도들은 담임목사에게 안수받는 모습은 흔한 일이다. 김인중은 20년 동안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늘 강조하는 목회를 했다. 게다가 가난한 도시에 많은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많다 보니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신유의 역사를 사모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더욱 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작용되었다.²²⁶

셋째는 소그룹중심의 목회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초창기 소그룹 모델은 CCC의 순모임이다. 이런 소그룹 문화는 자유롭고 인격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인중 부부는 개척 때부터 젊은이들에게 가정을 개방하고 가족처럼 지냈다. 김인중은 습관처럼 “코 밀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고 말했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아픔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었다.²²⁷ 이것이 셀로 전환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셀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이미 실천하고 그것이 삶과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다.

224) Ibid., 19.

225) 김인중, 「나는 행복한 전도자」 (서울: 규장, 1996), 113.

226)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0-1.

227) Ibid., 22.

넷째는 훈련중심의 목회였다. 안산동산교회는 전도된 사람을 제자훈련하여 리더로 길러내는 속도가 빠른 교회이다.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 ‘단반지’를 주장한다. 바로 ‘단순, 지속, 반복’이다. 이러한 제자훈련을 할 때에는 아프지도 말고 아이도 낳는 계획도 하지 말라는 헌신을 강조했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성과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큐티의 생활화, 베델, 크로스웨이, 다양한 가정상담 훈련을 지속하여 왔다.²²⁸

다섯째는 인간미가 라이프스타일에 흐르는 목회이다. 셀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안산동산교회는 셀교회로 전환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미가 라이프스타일에 흐르는 교회였다는 것이다. 안산동산교회는 인간미 넘치는 교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김인중 부부는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지만, 그러나 서민적이고 소탈하며 솔직하다.²²⁹ 이것은 권위주의가 교회에 들어설 수 없게 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주종적이지 않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된다.

안산동산교회의 이러한 토양은 셀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셀교회로의 전환보다 토양을 만드는 것이 훨씬 힘들에도 불구하고 안산동산교회는 수많은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그러한 토양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토양의 가장 큰 핵심은 김인중의 리더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다섯 가지의 내용은 모두 다 김인중의 리더십과 절대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김인중은 직접 발로 전도하는 전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목회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가 생활화되어 있고, 전도한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단순, 반복, 지속의 훈련을 숭선수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미가 삶의 양식에 흘러 넘친다. 안산동산교회의 셀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은 김인중의 리더십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영배는 그의 논문에서 토양화 과정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토양화 성공의 핵심을

228) Ibid., 23.

229) Ibid.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다. 사역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인 담임목회자 자신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목회자의 리더십이라고 한다. 담임목사가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느냐의 유무가 셀교회 전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영배는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언급면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김인중이 셀목회의 방향으로 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했다고 말한다.²³⁰ 리더십은 영향력이며 이끌어 가는 힘이다. 때문에 담임목사의 리더십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적 전환을 위한 최고의 토양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2) 셀교회로의 전환과 ‘큰숲운동’

안산동산교회의 셀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거대해 졌지만 말씀의 실천과 양육과 전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다락방 공동체가 활력 속에 전진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장년 5천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소그룹 목회의 본질도 희미하게 만들게 되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극도로 약화되고 거대한 조직이 되어가는 교회에 대한 성찰이 셀교회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²³¹ ‘큰숲운동’은 이런 셀교회로의 전환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게 되어진다.

(1) 포기없는 도전과 셀경험

교회가 셀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성은 있었으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역자실 내부에서

230) 이영배,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70.

231)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35-6.

셀에 대한 지루한 토론을 통해서 셀의 장단점과 신학적인 연구까지 이루어졌지만 성급한 적용을 할 수 없었다. 순장을 중심으로 셀을 적용했지만 열매 없는 사역과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난다. 그것은 셀모임을 주도하던 팀장 모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셀모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1년 이상 지루한 공방을 하던 담임목사와 부목사들 사이의 관계가 가족관계로 바뀌게 되고, 담임목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핵심 교역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셀이 된 것은 이후 안산동산교회 셀전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송창근은 말한다.²³² 이 사건은 셀이 이론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셀전환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도전들이 실행된다. NCD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먼저 셀이 진행되고 장년부 임직자들에게 시도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기대한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셀이 실제로 경험되어야 하는데 이론적인 개념이 많아 역동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있었다. 이 때부터 셀의 역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섬세한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셀의 양육을 강의 보다는 셀모임 자체에 집중하게 했다. 이 때부터 공동체는 여러 수양회와 지속되는 셀모임들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안산동산교회의 평신도 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고 이를 통해서 셀의 원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많은 교회가 셀을 이론과 조직으로 접근하지만 삶의 현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것은 셀은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셀은 그 역동성을 경험하고 보여줄 셀의 원형 모델이 있어야 전체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²³³

(2) 셀의 DNA와 전면적 셀전환

안산동산교회의 셀교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것은 인도네시아 아바러브교회의

232) Ibid., 47-57.

233) Ibid., 75-9.

에디레오와의 만남이다. 아바러브교회를 탐방하는 것을 통하여 셀을 가능하게 하는 DNA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에디레오가 셀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셀전환의 방법과 기술이 아니라 에디레오 개인적인 변화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에디레오가 죄를 아내와 청중에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공동체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동체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의 실천이다. 이런 에디레오의 코칭으로 안산동산교회 셀전환에 핵심적인 코드를 제공받게 되었다.²³⁴ 셀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안산동산교회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셀의 역동성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른 시간에 셀의 정신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필요하다고 여겨 ‘생수의 강’이라는 3박 4일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론과 간증을 50%씩 병행한 강의를 진행하며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생수의 강은 셀의 가치와 셀의 섬김과 셀에서의 고백과 셀에서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생수의 강은 2,000명 이상의 성도들과 1,000명 이상의 외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녀갔다.²³⁵ 생수의 강은 이런 면에서 ‘큰숲운동’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산동산교회 장로였던 강기태는 생수의 강은 실천적 영성, 공동체적 영성, 섬김의 영성을 구현하는 장으로 안산동산교회를 넘어 셀 네트워크 교회들과 여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셀과 ‘큰숲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³⁶

안산동산교회는 임직자와 훈련과 생수의 강이 성공하게 되고 아바러브교회의 모델과 에디레오의 코칭을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셀전환의 토착화를 시도하게 된다. 2002년 지역장 200명을 뽑아 훈련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공개된 것이 셀세미나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정신은 경험한 성공을 대한민국교회에 나누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234) Ibid., 81-4.

235) Ibid., 85-7.

236) Ibid., 109.

교회회복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큰숲운동’의 정신으로 다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안산동산교회의 셀 양육 과정을 만들게 되었고 지역장과 순장들에게 확산되어진다. 이러한 노력은 교구에서 셀 모델들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되었고 당회원들에게도 셀을 경험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²³⁷ 이것이 안산동산교회의 전면적 셀전환을 이룬 과정이다.

셀교회로의 이러한 전환은 교회의 비전과 가치와 사역의 방향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20년간의 교회의 비전을 수정하면서, 담임목사뿐 아니라 각 기관과 부서와 다양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비전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새로운 3대 비전이다.²³⁸ 동산교회의 이러한 3대 비전은 동산교회의 목회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큰숲운동’의 정신을 잘 엿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안산동산교회가 셀목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는 전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전도를 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한 것이다. 송창근은 셀 모임의 꽃은 셀전도라고 말한다. 셀이 관계를 형성하고 초대하여 셀에 연결시키고, 셀에 정착하게 되면 셀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신앙을 배우게 되어 진다. 셀 전체가 셀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셀에 직접 정착시키고 섬긴다. 때문에 관계전도인 동시에 공동체 전도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리더 모임이 집체 교육이 아니라 셀 중심의 모임으로 변화된 것이다. 셀교회는 셀리더들에게 셀의 역동성을 강의가 아니라 셀 모임 안에서 경험시켜 주어야 한다. 셀 라이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셀 모임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교구별로 수요예배가 진행되었다. 김인중은 각 교구별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교구별로 수요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 하나 때서 개척해 나가는 것은 쉬울 수 있다며 수요예배를 교구별로 드리는 것에도 ‘큰숲운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교구별로 불신자를 초청하는 마태파티를 실시하고 셀 축제예배를 열어 셀

237) Ibid., 88-90.

238)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 <http://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1월 10일 접속.

소그룹 외에도 대그룹예배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일에 도전한다.²³⁹

3) 셀의 본질과 '큰숲운동'의 구체적인 시작

안산동산교회는 셀로 전환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큰숲운동'이다. 셀이 안산동산교회를 향한 시대적 부르심이라면 '큰숲운동'은 한국 교회를 향한 시대적 부르심이다. 셀과 '큰숲운동'은 셀교회로 전환한 안산동산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되었다.²⁴⁰ 이것은 셀교회로의 전환과 맞물려서 '큰숲운동'이 함께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산동산교회가 '큰숲운동'을 도전하게 된 것은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부터이다. 김인중은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인도네시아 아바러브교회와 홍콩의 목자교회의 모델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 교회는 셀 사역뿐 아니라 자국 안에서 1,000여 개 교회들과 함께 네트워크하여 주위의 개척 교회를 섬기고, 테러받는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동역하고 있고, 하나의 큰 교회 아니라 여러 교회로 분립하고,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셀의 열매는 셀이 셀을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여 함께 네트워크해서 지역과 민족, 열방을 섬기는 것이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것이 '큰숲운동'이라고 말한다.²⁴¹ '큰숲운동'은 안산동산교회가 자기 교회만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교회 중심의 이기적인 목회관을 넘어서 지역과 도시, 민족과 열방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목회 철학과 교회관을 구체화한 것이다.²⁴²

2003년부터 '큰숲운동'의 일환으로 '개척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지역교회에 필요한 강의와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고, 개척 교회에 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

239)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13-23.

240) Ibid., 214.

241) 김인중,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울: 두란노, 2009), 248.

242)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17-8.

접어들면서는 안산동산교회가 실제로 전환하고 있는 셀에 대해서 공개하고, 양육 과정을 실제로 들어가서 훈련받도록 하는 셀세미나를 열어 셀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미래목회연구소를 통해서 셀을 이식해 간 교회를 셀 코치를 통해서 상담과 강의와 컨설팅을 지속해주게 되었다. 그리고 생수의 강에 ‘큰숲운동’의 정신을 살려 20-50%까지 외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고정적으로 받았다. 그 외에는 큰숲출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길 자료와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다. 셀 사역의 패러다임에 맞는 큐티집인 「큰숲맑은샘」을 네트워크 교회가 ‘큰숲운동’의 정신을 따라 함께 집필하고 모든 글의 내용을 공급하고 있다.²⁴³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셀의 정신과 함께 ‘큰숲운동’의 정신이 관념적이지 않으며 셀이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큰숲운동’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도록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셀목회와 ‘큰숲운동’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셀의 가치와 정신과 함께 교회의 셀목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교회는 비전을 따라 움직이며 그 비전속에는 교회의 목회정신이 있기 마련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셀과 ‘큰숲운동’이 구체적인 경험이 가능한 이유는 셀의 가치와 ‘큰숲운동’의 정신이 교회의 목회와 사역과 프로그램에 실제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의 비전과 셀의 핵심 가치가 ‘큰숲운동’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셀목회 비전에 나타난 ‘큰숲운동’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교회의 비전과 가치의 변화와 사역 방향의 전환이다. 과거 20년간의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면서 만들어진 3대 비전속에는 ‘큰숲운동’의 정신과 셀의 가치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의 수정은 안산동산교회가

243) Ibid., 219-26.

처음 가졌던 교회의 목회 철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시대적 요청에 맞도록 좀 더 현실성 있게 다듬은 것이다.²⁴⁴

i)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는 살아 있는 능력의 말씀, 체험적인 응답의 기도,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이다.²⁴⁵ 김인중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찾아와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고 그 영광스러운 계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같이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²⁴⁶ 안산동산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셀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동산교회의 대그룹 예배는 성령의 기름부음과 예수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역동적인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역자들이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영적 삶을 위해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와 중보 기도모임(중보기도학교), 목요영성집회를 가지고 있으며, <큰숲 맑은샘> 큐티집을 매달 발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회복하고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적 삶을 나누고 있으며, 교제와 섬김, 예배와 훈련 그리고 전도가 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기초반(새가족)과 양육 과정(1-4단계), 바이블 칼리지, 큰숲회복수양회와, 생수의 강 수양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²⁴⁷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순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은 성령의 능력을 힘 입을 때에

244)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32.

245) Ibid., 333-4.

246) 김인중,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93.

247) 안산동산교회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1월 11일 접속.

가능하다.²⁴⁸ 안산동산교회의 이러한 비전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김인중은 하나님께서 능력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경험시킬 수가 있고, 추상적인 신앙에서 구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⁴⁹

이러한 교회의 비전의 핵심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의 가치이다. 셀과 공동체는 경험하는 것이고 '큰순운동'은 이런 공동체의 확장으로 봐야한다.

ii)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는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적이 되는 교회 개념을 시대적 요청에 맞게 발전시킨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나누겠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²⁵⁰ 안산동산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하고,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해 존재하셨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십자가'가 '믿어야 할 신앙의 관념' 이 아니라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함께 하고픈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산교회는 종합복지관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으며, 동산상담소를 통해 상처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섬김의 일환으로 수영장, 체육관, 교육시설, 대형 예배당, 공연장 등을 오픈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대위임령에 헌신하기 위해 세계선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도 소그룹과 행복 파티가 전도 축제인 행복

248) 안산동산교회 25년사 1979-2004 자료집, 236.

249) Ibid., 46.

250)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37.

페스티벌과 연결되어 관계와 섬김을 통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 농어촌, 낙도 등 오지의 교회들과 35개국에 흩어져 있는 135명의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²⁵¹

이 비전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개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개념으로 수정된 것으로, 안산 지역을 넘어 한국사회, 아시아와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겠다는 비전이다.²⁵²

이러한 안산동산교회의 비전은 영혼구원과 섬김을 세상과 열방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전도와 선교라는 말속에는 디아코니아 신학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축복하는 섬김의 정신은 쉐의 가치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큰숲운동’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i)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박용규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의 비전은 안산동산교회의 김인중의 목회 3기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²⁵³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젊은 기독교 인재양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틀 속에서 ‘큰숲운동’과 셀목회 등 동산교회의 핵심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안산지역사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민족, 열방과 인류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이다.²⁵⁴ 안산동산교회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비전이 갖는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미래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251) 안산동산교회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1월 11일 접속.

252)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39.

253) Ibid., 315-346. 박용규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의 목회를 3기로 구분한다. 1기는 개척시절 목회로 전통교회의 모습을 지닌 1997-1989년의 목회, 2기는 제자훈련에 집중했던 1990-2001년 사이의 목회, 3기는 셀교회로의 전환을 통해서 시작된 목회로 2002-2009년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

254) “안산동산교회 입당 및 복지문화센터 개관예배”, 국민일보 2006년 8월 11일.

운동에 동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비전을 던져주고,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산교회는 매 주일 출석하고 있는 5천여 명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미래의 사역자로 양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교회는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안산과 한국, 그리고 세계를 위한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모습은 몇몇의 큰 교회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 예배와 전도를 통해 함께 부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셀사역훈련원을 중심으로 '큰숲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같은 비전으로 개척한 형제교회와 셀목회를 이식한 교회와의 정기적인 만남, 그리고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²⁵⁵

안산동산교회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교회라는 비전속에는 인재양성과 더불어 '큰숲운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몇몇의 큰 교회가 아닌 지역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한다. 이를 위하여 분립개척한 형제교회와 셀목회를 이식한 교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 예배와 전도를 통해 함께 부흥하는 꿈을 꾸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에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의 목회비전 안에는 '큰숲운동'의 정신이 선명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셀의 핵심가치와 '큰숲운동'

셀교회는 가장 성경적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다.²⁵⁶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⁷ 이러한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셀교회인 안산동산교회는 8가지 셀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섬기는 데 바탕이 되는 신념들로 구성된다.²⁵⁸ 안산동산교회의 셀의 8가지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55) 안산동산교회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1월 11일 접속.

256)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23.

257) 김인중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안산동산교회 2011년 동계교역자수련회 강의1 녹취록.

258)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24.

둘째,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셋째, 우리는 동등한 인격입니다.
 넷째,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여덟째,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²⁵⁹

첫 번째 가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셀(다락방)에서는 가족을 경험해야 한다는 가치이다. 그리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2-46절에 나오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식사를 한 것처럼 모든 문제는 밥상에서 풀어야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관계를 깊게 해야 하며, 사도행전 2장 4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유무상통한 것처럼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⁶⁰

두 번째 가치,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과 직분을 맡았든지 그 근본은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새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핍박하는 자이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에게는 자기주장과 권리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²⁶¹

세 번째 가치, “우리는 동등한 인격입니다.”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한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5-6장은 핵심적인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것으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것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259) Ibid., 25.

260) Ibid., 25-43.

261) Ibid., 53-62.

셋째, 종과 상전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것으로윗사람의 지위와 책임과 권위를 존중하되, 아랫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쉘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동등한 인격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²⁶²

네 번째 가치,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면서
각자 주어진 기능과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한 몸 안에서 동등한 사역자이다. 이런
동등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부족하더라도 존귀한 자로
인정해야 하고, 둘째로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하되, 기능적인 연합과 더불어
정서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²⁶³

다섯 번째 가치,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는 교회 공동체의 열정이 예수 안
믿는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목자가 집중하는 것처럼, 한 영혼에게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는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⁶⁴

여섯 번째 가치,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는 지역적 민족적 국가적 이기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모두에게 새 생명의 삶과 기쁨과 은총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교회가 기도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기도의 열정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선교를 위해서 다양하게 동참해야 한다.²⁶⁵

일곱 번째 가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먼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262) Ibid., 71-9.

264) Ibid., 89-97.

264) Ibid., 107-13.

265) Ibid., 127-35.

채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약한 지체와 이웃을 돌보아주고, 더 나아가 각종 악과 환경에 눌리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²⁶⁶

여덟 번째 가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일을 위해 먼저 나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먼저 변하고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고 주장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함으로 십자가의 길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²⁶⁷

이상의 8가지 핵심가치는 안산동산교회의 3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셀의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셀의 가치는 안산동산교회의 셀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가치이며, 모든 리더들의 가치가 되어진다. 김인중은 지역장 순장 지도자들의 역할은 8가지 핵심가치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⁶⁸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산동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와 리더들의 가치와 삶에 자리 잡고 있고, 셀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산동산교회에서의 ‘큰숲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도달 가능한 비전으로 작용되고 있다.

(3) 건강한 셀공동체와 ‘큰숲운동’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게 된 것은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이러한 셀전환의 과정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지에 대해서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을 발견하게 되어 진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셀의 비전과 ‘큰숲운동’의 비전은 성취되기 힘들다. 이것은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포분열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건강한 셀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건강한 다른 공동체를 낳을 수가 있다. 이것은 ‘큰숲운동’의 비전이 리더가

266) Ibid., 143-51.

267) Ibid., 161-8.

268) 김인중,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안산동산교회 2011년 동계교역자수련회 강의1 녹취록.

리더를 낳고, 셀이 셀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안산동산교회가 경험한 네 가지 핵심은 연구자가 본 연구를 진행을 위한 신학적 기반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요소이다.

김인중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네 기둥」에서 건강한 셀교회의 네 가지 기둥을 첫째는 공동체, 둘째는 상호책임, 셋째는 리더십, 넷째는 번식으로 소개하고 있다.²⁶⁹

김인중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기둥을 공동체로 보고 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기에 공동체로 일하시고 인격적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의 유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이며, 이 두 관계가 왜곡되면 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생명력 없는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 더 이상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와 상관없게 된다는 것이다.²⁷⁰

그리고 공동체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울 때 진정한 공동체이며, 이러한 공동체는 희생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관계성도 풍부해진다고 말한다. 때문에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안산동산교회는 셀은 가족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한다. 김인중은 공동체는 관리 시스템이나 조직 시스템이 아닌 한 몸이라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오직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만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한다고 말한다.²⁷¹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은 상호책임이다. 김인중은 교회는 유기체이며 혼자서는 안 되며 함께 해야 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책임지고 후원자로 튼튼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책임지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호의존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몸을 세우기 위해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책임져야 하고 미숙한 지체를 책임지고 성장시켜야 하는데, 결국 후원자의

269)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서울: 두란노, 2013), 6.

270) Ibid., 12.

271) Ibid., 15-59.

그릇만큼 피후원자는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⁷² 신경식은 그의 논문에서 안산동산교회의 셀은 상호책임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목회자 셀을 통해서나 셀리더가 셀을 돌봄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호책임의 소중한 셀 정신이 작은 하나의 셀교회를 넘어서서 ‘큰숲운동’이라고 하는 분립개척을 통한 교회 배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⁷³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기둥은 리더십이다. 김인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리더가 되어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가 되라고 말한다. 권위적인 리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반된 리더십이고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이 전형적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보여주는 리더십, 이끌어 주는 리더십, 위임의 리더십, 품어 주는 리더십, 책임지는 리더십을 원하고 계시고, 이러한 리더는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평신도 리더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리더의 로드맵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자연스럽게 번식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라 말한다.²⁷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네 번째 기둥은 번식이다. 김인중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라고 한다. 전도는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춰야 하며 이것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감동시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고, 관계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전도는 삶의 열매이며 생활이고 습관인 것이다. 그리고 전도로 맺어진 열매는 나무가 되게 하라고 말한다. 양육의 권한은 공동체에 있는 것으로 양육을 한다는 것에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리더는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통한 번식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에 DNA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교회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번식하는 것, 교회가 교회를 번식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272) Ibid., 67-124.

273) 신경식,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역동적인 셀교회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52.

274)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129-211.

한다고 말한다.²⁷⁵

이상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안산동산교회는 철저히 공동체 중심적인 목회를 지향하고 있다. 셀전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공동체론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이고 경험적이다. 공동체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학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코이노니아신학이 등장한다. 그리고 상호책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디아코니아신학이 등장하고 있다. 리더를 세우고 번식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선교신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숲운동’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고 결실이다. ‘큰숲운동’은 결국 건강한 셀공동체의 확장이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적이며 선교적이다.

5) 셀전환과 ‘큰숲운동’의 결실

안산동산교회는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많은 성장과 변화의 열매가 있었다.

(1) 셀전환의 결실 - 양적 질적 성장

먼저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 셀로 전환한 2001년에 출석 성도의 수 9,766명에서 7년 뒤인 2008년에는 15,005명으로 성장했다. 질적인 성장에서 가장 변화된 것은 셀 정신이 모든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셀이 8년간의 셀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셀 사역으로 정착되었고, 관계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셀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양육 단계와 각종 수양회를 통해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간증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담임목사와 팀장목사, 교구 사역자의 교역자 모임, 지역장 모임, 셀리더 모임, 셀 모임에 이르기까지 셀 모임 중심의 리더십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사역의 무게중심이 교구와 지역과 셀 중심으로 이동되어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²⁷⁶

275) Ibid., 221-61.

276)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1-3.

(2) ‘큰숲운동’의 결실

셀전환과 함께 시작된 ‘큰숲운동’은 많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김인중은 ‘큰숲운동’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교회 분립개척이고, 둘째는 지역 교회 섬기기이고, 셋째는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한다.²⁷⁷ 안산동산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i) 큰숲 분립개척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결실은 큰숲 형제교회의 분립개척으로 나타났다. 셀교회로 전환했던 8년 동안에 안산동산교회는 3개의 형제 교회를 분립개척했다. 교회적으로는 동산고등학교 건축에 대한 빛과 현 안산동산교회를 건축한 빛을 갚아야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분립개척을 한 것은 ‘큰숲운동’이 안산동산교회에 핵심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⁷⁸ ‘큰숲운동’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분립개척 교회인 은혜의 동산교회가 분립개척되기 전에 시화동산교회가 먼저 분립개척이 되어 진다. 시화동산교회는 첫 번째 분립개척에 의미가 있다.²⁷⁹ 1999년 10월 16일 시화 지역 400여 가정, 750여 교인들을 20주년 기념으로 분립하였는데, 시화동산교회 분립개척은 셀목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나 이후 동산교회가 셀목회를 채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촉진제가 되었고,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분립개척에 강한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⁸⁰

그 후 2004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의 파송으로 화성지역에 25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된 ‘은혜의 동산교회’는 최초의 셀목회 철학에 따른 ‘큰숲운동’의 첫 번째 형제 교회가 되었다.²⁸¹ 11년간 안산동산교회를 동역하고, 미래목회연구소장을 맡은 이규현이 분립개척 파송되었다. 화성지역의 47가정이 합류하여 장년 100여 명, 주일학생 70여 명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장년만

277) 김인중, 「아버지의 마음으로」, 249-54.

278)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4.

279) Ibid., 235.

280)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92.

281)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5.

천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 두 번째 분립개척 교회는 안산동산교회의 구 예배당인 고잔동 예배당에 분립개척하였는데, 13년간 동역한 행정목사인 김광이를 ‘기쁨의 동산교회’로 개척 파송했다. 장년 417명이 파송되어 현재 장년 천명이상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세 번째 분립개척은 2008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의 홍대 클럽거리에 술집을 개조하여 젊은 세대를 위한 블루라이트교회(Bluelight Church)를 개척 파송했다. 청년부와 생수의 강을 담당하고 안산동산교회 셸전환을 담당했던 송창근과 18명의 청년들을 파송했다.²⁸² 3억 원의 개척자금과 매달 1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분립개척한 블루라이트처치는 ‘큰숲운동’과 셸목회의 일환으로 설립한 교회이지만 앞서 분립개척한 두 교회와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안산지역으로 분립개척되던 것과 달리 한국 문화 사회의 중심지인 서울에 그것도 주요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예술과 젊은이 문화의 중심지 홍대근처를 개척지로 선택한 것이다.²⁸³

이 시기에 이렇게 개척 파송한 세 교회 외에도 개별적으로 개척한 3명의 부목사들도 지원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240억 용자를 얻어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²⁸⁴ 특히 기쁨의 동산교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이 된다. 그것은 안산동산교회 예배당과 같은 지역 안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에도 분립개척을 시도한 과감성 때문이다.²⁸⁵

안산동산교회는 셸목회를 통한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9개의 교회가 더 분립개척되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제는 ‘큰숲운동’을 통한 교회 분립개척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다. 이것은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이 자리가 잡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9개의 교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5월 1일 더불어숲동산교회가 화성 봉담지역에 이도영을 통해서 개척되었다. 2011년 6월

282) 김인중, 「아버지의 마음으로」, 250-1.

283)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05-6.

284) 김인중, 「아버지의 마음으로」, 252.

285) 송창근, 「셸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6.

25일, 회복의동산교회가 안산 선부동에 이득진을 통해서 분립개척되었다. 2014년 3월 30일에 복음의빛동산교회가 수원 호매실 지역에 나희석을 통해서 개척되었다. 2015년 1월 1일에 안산지역에 향후 화성 송산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그린시티교회가 조성의를 통해서 개척되었다. 2015년 7월 1일에 THE행복한STAGE(더행복한교회)가 안산에 손병세를 통해서 개척되었다.

2016년 3월 30일에 담임목사 은퇴 및 후임목사 위임 기념으로 동탄동산교회가 박동성을 통해서 개척되었다. 2017년 1월 1일에 Day Church(날마다교회)가 수원지역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심준호를 통해서 개척되었다. 2019년 1월 1일에 배곧동산교회가 배곧신도시에 박덕영을 통해서 개척되었다. 2020년 1월 1일에 평택에 있는 고덕신도시 지역에 푸른숲동산교회가 이요한을 통해서 개척되었다. 푸른숲동산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가 되어 진다.²⁸⁶

이상의 ‘큰숲운동’은 본 교회가 인사와 재정 및 모든 소유권을 가지는 지교회나 위성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각각의 독립된 교회가 함께 네트워크 정신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큰숲운동’과 셀교회의 정신이다.²⁸⁷ 그리고 분립개척된 각 교회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개척된 교회들이긴 하지만, 각 교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 각 교회별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ii) 셀 네트워크의 형성

‘큰숲운동’은 셀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송창근은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에서 셀 네트워크의 비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셀 네트워크의 비전은 ‘큰숲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담임목사와 셀 1세대 목사들 가운데 공유되었던 비전이었고, 큰 숲을 이룬 형제 교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하여 매주 설교도 함께 준비하고, 사역도 나누고, 교역자 간에 교류도 하고, 필요한 세미나와 연합 사역도 함께 하고, 교회 개척과 선교도 함께 하면서 지역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큰숲운동’을 통해 형제 교회를 개척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²⁸⁸

286) 안산동산교회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d21.org/02cell_training/big_Forest.aspx, 2020년 1월 13일 접속.

287)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7.

288) Ibid., 240.

큰숲분립개척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러한 비전은 현실이 되어져 갔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셀세미나를 이수한 교회를 중심으로 안산동산교회의 셀 양육 과정과 내적치유수양회를 오픈했고, 2005년부터 셀 양육 과정과 내적치유수양회를 셀세미나에 포함시켜서 소개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큰숲 형제 교회와 셀세미나로 네트워크 된 교회들과 안산동산교회 부목사 출신인 담임목사 교회와 내적치유수양회를 연합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를 통해서 몇 그룹의 각각의 내적치유수양회를 독립해 나갔다.²⁸⁹ 본 연구자도 내적치유수양회를 담당하였기에 네트워크된 대전과 부산 지역의 내적치유수양회를 인도하였고, 이식시켜 독립시키는 사역을 담당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셀세미나에서도 반영이 되어 진다. 세미나는 안산동산교회의 미래목회연구소가 주관하지만 강사진과 소그룹을 인도하는 테이블 리더는 네트워크된 목회자들이 담당하며 자신의 교회를 소개한다. 강사진도 중형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동역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사역은 셀세미나와 내적치유수양회와 생수의 강도 연합사역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²⁹⁰

iii) 지역 교회 섬기기

지역 교회를 섬기는 ‘큰숲운동’은 셀 네트워크 사역과 병행되어 진행된다. 이미 이것은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섬겼던 것이긴 하지만, ‘큰숲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었다. 김인중은 벤잉을 통해서 “네트워크는 돈을 주고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함께 네트워크하면서 목회와 영혼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전달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²⁹¹ 이것을 통해서 안산동산교회는 셀세미나를 한국교회에 나누게 되었고 지역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289) Ibid., 241.

290) Ibid., 241-2.

291) 김인중, 「아버지의 마음으로」, 253.

3. ‘큰숲운동’과 분립개척

안산동산교회의 셀의 가치와 ‘큰숲운동’을 통해 교회가 분립개척될 때에, 이것이 성공적인 개척이 되도록 하는 배경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비전이 있더라도 비전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립개척되어지는 것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분립개척을 성공하기 위한 안산동산교회의 노력을 크게 여덟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이고, 10번째 분립개척을 하게 된 당사자로 그 체계와 시스템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안산동산교회 내부에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문서나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 교회 분립개척과 관련되어져 있는 통합적이고 체질화된 것들로 자리 잡힌 것이다. 연구자는 이 부분을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개척자로서의 준비와 훈련이다. 둘째, 분립개척에 대한 검증이다. 셋째, 교회의 지지와 후원이다. 넷째, 개척기도회 준비이다. 다섯째, 개척의 실제적인 준비이다. 여섯째, 파송식이다. 일곱째, 큰숲운동으로 개척한 교회들의 협력이다. 여덟째, 사후 관리와 지원이다.

1) 개척자로서의 준비와 훈련

분립개척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척자의 준비와 훈련이다. 개척자의 미비한 준비는 교회 개척에 현실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안산동산교회는 김인중이 개척하여 부흥 성장한 교회로 기본적으로 교회의 정신은 개척정신과 직결되어져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이 셀비전과 ‘큰숲운동’과 만나 그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안산동산교회는 분립개척을 위해 개척자로서의 준비와 훈련이 철저하게 시행되는 곳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셀의 정신이 그렇듯이 개척자로서의 모든 준비 또한 이론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다.

(1) 다양한 채널을 통한 비전의 이식

안산동산교회는 비전이 강한 교회이다. 이는 김인중이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²⁹²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을 만든다. 그것은 비전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곧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인중 안에 흐르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비전과 개척은 교회에 흐르고 사역자들 안에 흐른다. 때문에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자들은 개척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비전의 이식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자들 대부분은 안산동산교회의 셀을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부임해오는 경우가 많다. 안산동산교회에 오기 이전에 안산동산교회의 셀세미나를 대부분 참석하여 셀이 무엇인지 알고 ‘큰숲운동’의 정신에 공감한 사역자들이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같은 경우는 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셀세미나를 참석한 이후 타 교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산동산교회 셀세미나의 테이블리더로 초대를 받았다. 안산동산교회는 그런 면에서 ‘큰숲운동’을 통한 네트워크가 강한 교회이고 셀에 대한 배움에 있어서 경험치가 강하다.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 셀세미나를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의 경우는 셀세미나에 참가자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셀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한 이후부터는 셀세미나의 테이블 리더로 섬기게 된다. 연구자도 2009년 안산동산교회 청년부에 송창근의 뒤를 이어 청년부 사역자로 오게 된 그 해부터 다년간 셀세미나의 테이블 리더가 되었다. 세미나에는 한국교회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참여하고 다수의 담임목사들이 참여하지만, 부목사로 테이블 리더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준다. 그렇게 테이블리더로 섬기게 될 때에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셀비전과 ‘큰숲운동’의 정신을 듣게 되고, 참가자들과 나누게 되면서 ‘큰숲운동’의 정신이 이식된다. 셀과

292)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62.

‘큰숲운동’의 이식은 사역자들의 세미나와²⁹³ 수련회와²⁹⁴ 사역자 자체 워크숍을²⁹⁵ 통해서도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셀비전은 흘러가는 것이어서 사역자들 안에 먼저 이식되어지는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가 셀비전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고 그 정신이 목회의 현장에 실현되게 만든다.

이러한 노력은 해외 셀교회 탐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안산동산교회가 ‘큰숲운동’의 정신을 배우게 된 인도네시아의 아바러브교회를 탐방하여 에디레오의 세미나와 셀모임의 현장을 탐방하여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셀교회인 CHC(City Harvest Church)와 FCBC(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등을 탐방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셀도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는 2010년 셀교회 탐방을 위한 비전트립에 참석하였다. 이 때에 큰숲네트워드로 연결된 11개 교회 담임목사 10인과 사모 2인, 부목사 1인이 참석하였고, 안산동산교회 부목사 7인과 장로 2인과 집사 3인이 함께 참석하였다.²⁹⁶ 셀비전트립을 통한 셀교회 탐방을 다녀온 이후에 연구자는 셀교회 탐방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중에 일부인 아바러브교회의 평신도 슈퍼바이저와의 만남을 통한 셀에 대한 도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수천 명을 거느리는 평신도 슈퍼바이저를 만난 것 자체로 강한 도전이 되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외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직장을 빼면 거의 사역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그것의 DNA는 결국 돌봄과 사랑이었다. 리더는 리더가 셀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돕는 일에 헌신되어 있었다. 셀을 살리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셀을 거대하게 성장시킨 모델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성장이 있는 셀을 잘 이끌어

293) 2019년 안산동산교회 교역자 셀세미나 강의안. 9월 1일에 진행된 교역자 셀세미나를 통해 안산동산교회 1단계 양육에 대한 셀세미나가 진행되었고, 큰숲분팀개척을 했던 기쁨의동산교회의 김광이가 1강 아버지의 마음, 블루라이트처치의 송창근이 2강 십자가와 3강 하나님의 음성듣기와 5강 공동체, 큰숲형제교회인 광명신광교회 정상혁이 4강 그리스도안에서 자유함을 강의했다.

294) 2011년 동계교역자수련회 교재, 동계교역자수련회가 1월 6-7일 진행되었다. 김인중이 1강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와 2강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기쁨의동산교회를 분팀개척한 김광이가 5시스템과 4W, Day Church를 분팀개척한 심준호가 4강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3대 미래목회연구소소장 이평강이 5강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예언과 6강 셀 안에서의 훈련과 상호책임, 은혜의동산교회를 분팀개척한 이규현이 7강 셀 운영과 셀전도의 실제, 블루라이트처치를 분팀개척한 송창근이 8강 셀 사역의 목적과 9강 셀 비전과 리더십을 강의했다.

295) 2012년 교역자셀리더훈련 교재. 2012년 교역자 셀리더 훈련이 2월 27일,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4주간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1강 셀리더의 부르심과 자질, 2강 성령 안에서의 돌봄과 의사소통, 3강 셀이란 무엇인가? 4강 셀과 지역 세우기의 실제, 5강 셀전도와 정착.

296) 2010년 셀비전트립 가이드북. 셀교회 탐방 비전트립은 2010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고, 4일 FCBC참관과 현지사역자와의 토론, 5일 CHC 어린이 예배와 장년예배 참관, 6일 FCBC 예배 참관과 현지 사역자 미팅과 현지인 가정집 셀모임 참석, 8일 인도네시아 아바러브교회 셀모임 참관, 9일 아바러브교회 센터 방문과 에디레오의 강의와 토론, 현지인 슈퍼바이저 미팅이 있었다.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셀 성장에 대한 비전이 약하지만 작은 성공일지라도 비전으로 공유시킬 필요성을 느낀다.²⁹⁷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셀은 이론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다. 셀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한 것들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셀에 대해서 이론가에 머물지 않게 하여 경험과 이론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관계를 통한 공동체 훈련

2장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셀은 기초공동체이다. 그 근원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방식인 공동체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셀의 기원은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공동체로 나타났고, 초대교회와 선교를 통한 가정 중심의 교회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셀공동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에 관계성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관계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안산동산교회는 사역자들의 공동체 속 관계의 훈련을 하는 공동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역자들의 셀모임이다.

많은 교회가 사역자들의 공동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긴밀한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 김인중은 “공동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공동체이다.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공동체 삶의 형태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사역자들도 공동체를 경험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⁸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자의 셀 그룹은 5-6개의 교구가 대교구로 엮어지고 그 중에 셀리더가 세워져서 운영이 되어 진다. 사역자들도 셀모임을 1주일에 한번씩 모여 자신의 삶과 기도제목을 나눈다. 그리고 서로 간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되어 상호책임지도록 한다. 이러한 사역자 셀공동체는 정보의 교환은 물론 사역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서로

297) 연구자의 2010년 안산동산교회 셀비전트립 보고서에서 발췌함.

298)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58.

돕고 상담해주는 기능과 삶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기능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대그룹 사역자 셀모임은 교구별 어려움도 함께 의논할 뿐 아니라, 사역이나 양육도 함께 병행하여 서로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관계의 훈련을 하게 되고, 함께 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것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상호책임을 통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이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셀교회의 두 번째 기둥인 상호책임이다. 선배 사역자의 이런 후원자로서의 돌봄은 피후원자 되는 후배사역자를 성장하게 한다. 김인중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후원자이며, 후원자의 그릇만큼 피후원자는 성장한다고 말한다.²⁹⁹

(3) 위임을 통한 풍부한 목회경험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주는 풍부한 목회 경험과 훈련은 김인중의 리더십에서 시작되어진다. 김인중의 리더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아버지의 마음’이다. 김인중의 리더십의 핵심이 2009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김인중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동역자들과 교인들의 실수를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한다.³⁰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실수가 있더라도 사역을 위임하여 목회를 전수해주는 리더십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김인중의 리더십은 목회의 현장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안산동산교회 안에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교구별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구마다 교구 장로들이 함께 하여 사역을 의논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장로와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지고 갈등을 뛰어넘는 법도 경험하게 된다. 해마다 각 교구별 목회계획을 교구 목사가 세우고 행사계획을 직접 세운다. 물론 지역장들과 교구 장로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목회 일정을 제외한 모든 사역은 독립적이면서도 창의적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개척교회와 일반 담임목회에서의 경험을 미리 경험하게 된다.

안산동산교회는 교구별로 수요예배를 따로 드린다. 때문에 교구 사역자들이 설교할 기회가 많고

299) Ibid., 117.

300)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53.

목회자로서의 경험과 훈련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진다. 무엇보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주목할 것은 주일 강단을 부목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부목사와 더불어 주일설교를 함께 준비하고 강단을 공유하고 있다. 부목사에게 강단이 오픈 되어 있어서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다.³⁰¹ 그리고 부목사로 주일 강단을 섬기는 것은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며 거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강단훈련은 부목사의 자신감과 대중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교하고 사역하는 최고의 경험무대가 된다. 주일 강단을 섬기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위해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함께 설교자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설교할 본문을 함께 연구하고 소통하고 그 맥락을 함께 잡아가는 간다. 이것 자체만으로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그 외에도 결혼 주례와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과 각종 행사와 사역 등을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4) 셀 양육 경험을 통한 셀리더 세우기

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셀의 본질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다. 셀교회는 셀리더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영적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성장하도록 돕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평신도 사역을 추구한다. 때문에 셀리더를 길러내는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가진다. 안산동산교회의 양육 과정은 크게 새가족 등록, 셀 기초 과정, 셀 성장 과정, 셀 후원 과정, 셀리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수양회를 통해 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³⁰² 새가족 등록과 함께 총 4단계의 양육의 과정이다.

셀 전도인 셀 행복파티를 통해 전도된 VIP(전도대상자)가 새가족이 등록하면 4주간의 새가족반을 지나서, 성경학교(4주)와 기도학교(4주)의 신앙 기초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4단계 양육에 들어가게 되어 진다. 1단계(5주)는 셀 기초 과정(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경험하기)으로 5주 동안에 전도했던 후원자나 셀의 후원자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후원자는 피후원자와의

301) Ibid., 359.

302)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d21.org/02cell_training/celltraining_intro.aspx, 2020년 2월 9일 접속.

관계 속에서 섬기고 돌보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실현하게 되어지고, 기초신앙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³⁰³ 이러한 관계를 통한 섬김과 희생은 피후원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속 깊은 마음을 나누게 되어진다. 이 때에 1박2일간의 큰숲회복수양회에 대한 동기부여와 참여가 이루어진다.

수양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실행하고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과정이다.³⁰⁴ 2단계(8주)는 셀 성장 과정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고, 셀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셀의 개념과 가치와 비전을 배우고 경험하고 셀이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한다.³⁰⁵ 그리고 2단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후원자 수양회를 통해서 영적 아이였던 자신이 영적청년으로 성장하고 다시 영적 아이를 후원하며 섬기는 신앙인으로 서게 만든다. 3단계(5주)는 셀 후원 과정으로 상호책임을 경험하게 한다. 1단계와 동일한 과정을 이전에는 피후원자로 참여했다면 이제는 후원자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후원자로 피후원자를 돌보고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고, 피후원자와 함께 큰숲회복수양회에 참여하여, 피후원자의 상처를 안아주고 기도하고 나누며 내적 치유와 쓴 뿌리가 해결되도록 통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후원자수양회이다. 후원자수양회를 통해서 3단계 훈련자들은 후원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 지를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³⁰⁶ 4단계(8주)는 셀리더 과정으로 셀리더를 양성하는 훈련의 시간이다.³⁰⁷ 셀리더의 소명과 비전을 주고 리더의 역할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셀리더가 되어서 셀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론과

303) 김인중, 「새로운 삶의 시작」(안산: 큰숲, 2019). 안산동산교회의 1단계 양육은 총 5과로 구성된다. 1과 아버지의 마음, 2과 십자가, 3과 하나님의 음성듣기, 4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5과 공동체로 구성된다.

304) 김인중, 「큰숲회복수양회」(안산: 큰숲, 2010), 2-3. 큰숲회복수양회는 1박 2일 동안 총 5강으로 구성되어진다. 1강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강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3강 내가 너를 깨끗케 하리라, 4강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 5강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6강 매일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라.

305) 김인중, 「새로운 삶의 실천」(안산: 큰숲, 2010), 2-3. 2단계 양육은 8주간 8강으로 진행된다. 1강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 2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3강 신앙인의 기본생활 1, 4강 신앙인의 기본생활 2, 5강 내면적 승리와 성장, 6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 7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 8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306) 후원자수양회는 당일에 진행되며 후원자로 성장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피후원자와의 관계를 위한 관계의 5단계 기술과 후원자의 역할을 배우고, 후원자가 피후원자를 후원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진다.

307) 4단계는 총 8주간 8강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1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2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3강 셀 안에서의 양육, 4강 성령님이 주신 이신 셀, 5강 셀 운영의 실제, 6강 셀 안에서 기도, 7강 번식하기, 8강 셀의 비전과 목표.

실제적인 경험을 훈련하게 된다. 이 과정을 끝낸 이후에 검증을 통해서 셀리더로 파송하게 되어 진다. 그리고 영성을 회복하고 누림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생수의 강을 들어가게 된다. 생수의 강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먼저 섬김을 받음으로 깨닫고, 직접 섬겨 삶으로 체득하는 수양회를 경험하게 되어 진다.³⁰⁸

안산동산교회는 먼저 양육의 모든 과정을 양육 받는 피후원자로서 먼저 경험하게 된다. 큰숲회복수양회와 생수의 강을 피후원자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경험하고,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영적인 아이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과정을 배운다. 이 과정 이후에 사역자들은 양육자로 서게 되어지는데, 4단계 양육은 교구 사역자가 직접 양육을 하고 셀리더로 세우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훈련과 양육경험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는 리더로 준비되고, 성도를 영적인 아버지로 양육하고 셀리더로 세우는 셀비전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5) 셀 현장 경험을 통한 셀목회 경험

안산동산교회는 사역자들의 셀현장 경험이 많다. 그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셀양육을 직접 하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고, 사역자들과의 셀모임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진다. 이것과 더불어 셀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주 진행되어지는 지역장과의 셀모임이다. 사역자는 교구사역을 하면서 매주 화요일과 주일에 두 번에 걸쳐 낮 셀 지역장들과 밤 셀 지역장을 만나서 전교인들이 진행하는 셀모임을 같은 교재와 내용으로 모임을 진행한다. 셀모임의 특성상 이 모임은 성경공부 모임이거나 사역자가 지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삶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이 인격 속에서 경험되어진 삶과 더불어 함께 나누게 된다.

셀은 가족이라는 안산동산교회의 셀의 정신은 사역자와 지역장 사이의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역자는 이 모임에서 셀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삶을 가족이라고 여기며 돌본다. 그리고 지역장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경험한 셀의 경험을 셀리더들과의 셀모임을

308)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D00/stone_water_about.aspx, 2020년 2월 9일 접속.

진행하면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역자는 공동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속에서의 관계 경험을 통해 성도들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이것은 개척자로서 준비되어질 때에 관계를 통해서 비전을 흘려보내는 셀교회의 리더십을 터득하는 좋은 환경이 된다. 김인중은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계를 회복할 줄 모르는 사역자가 되면 안된다. 무시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사역자가 공격당하는 일이 있다. 공동체로서 관계를 잘하면서 일할 줄 알아야한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성숙이다. 그것이 공동체이다. 그런데 자기 주관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과 관계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신다. 관계가 은혜이다. 이 관계를 통해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다.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말한다. 말씀 전체가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대부분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기독교 셀공동체에서는 상호 인격적 쌍방적 관계이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위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서로서로 인격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³⁰⁹

안산동산교회는 셀교회를 분립개척 함에 있어서 개척자가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우는 경험을 철저하게 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동체경험을 통해서 셀 라이프스타일이 자리 잡히게 되고 분립개척에 대한 셀의 정신과 삶을 준비하게 된다.

2) 분립개척에 대한 검증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개척자의 자질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역자가 개척에 대한 꿈을 꾸지만 안산동산교회 안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그것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09) 김인중,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2011년 동계교역자수련회 강의2 녹취록.

(1) 사역자의 소명과 소망 검증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자들은 다양한 위에서 언급한 목회적 환경 속에서 쉼비전과 ‘큰숲운동’의 정신이 이식되어 진다. 김인중의 비전이 사역자들의 비전으로 흐르고 그것이 사역자들의 개척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작용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진다. 때문에 분립개척에 대한 소망은 사역자들에게는 쉽게 오르내리고, 이러한 문화는 매우 보편적이다. 전통교회는 이러한 문화를 잘 용납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산동산교회는 강단에서부터 교회의 목회철학과 공동체적인 비전인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을 일상처럼 선포하고, 성도들 또한 분립개척에 동참하는 일에 마음이 열려있다. 이런 분위기는 사역자의 분립개척에 대한 소명을 크게 만들고 개척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좋은 배경이 된다.

(2) 공동체적인 공감을 통한 검증

사역자가 분립개척에 대한 마음은 공동체적인 공감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먼저 사역자들 그룹 안에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동역자들의 의견과 지지가 있고 기존교회에 청빙목회를 갈지 분립개척을 할지에 대한 개인적 결심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 분립개척에 대한 마음을 담임목사와 나누고 담임목사는 그 소명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공감 절차와 소통의 과정은 각 개인의 특성과 생각대로 진행이 되어 진다. 연구자도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해부터 줄곧 김인중을 통하여 ‘큰숲운동’의 분립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사역자들과의 소통과 선배 목사들 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검 받고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담임목사를 통하여 분립개척에 대한 최종적인 허락을 받았다.

(3) 개척자의 자질과 목회역량에 대한 검증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개척에 대한 개인적인 자질만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개인의 사역적 능력이 크더라도 안산동산교회의 쉼비전과 큰숲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때문에 교회적으로 충분히 목회적인 경험과 실제적이 역량을 준비한 사람에 한 해서 허락되어진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7년 이상 사역한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불문율이

있다. 실제로 연구자도 7년차가 되었을 때에 분립개척 계획을 진행하였다. 이런 기간 동안에 사역자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경험과 충분한 훈련을 경험하고 검증을 받는다. 이것이 개척에 대한 결정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아진다. 큰숲분립개척을 한 사역자들의 교회에서의 목회적 경험은 다음과 같다.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은 11년 동안 대학부와 교구, 교육국 담당과 초대 미래목회연구소 소장을 거쳤다.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이는 13년 동안 교구와 기획목사와 행정목사를 거쳤다. ‘블루라이트교회’ 송창근은 9년 동안 청년부와 생수의 강과 셀세미나를 진두지휘했고 2대 미래목회연구소 소장을 담당했다.³¹⁰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은 10년 동안 교구목회와 큰숲회복수양회의 전신인 내적치유수양회를 인도했으며,³¹¹ 셀양육을 총괄하는 평신도훈련원 원장을 담당했다.³¹² ‘회복의 동산교회’ 이득진은 11년 동안 교구목회와 대학부와 미스바중보기도를 담당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나희석은 14년 동안 대학부와 교목 회와 행정목사의 역할을 역임했고 선교한국의 실행위원으로 선교동원사역을 담당했다.³¹³ ‘그린시티교회’ 조성의는 8년 동안 교구목회와 목요영성집회를 담당했고 CBMC사역을 통한 실업인선교와 담임목사의 목회비서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주요 사역을 담당했다. ‘THE행복한STAGE’ 손병세는 전도사시절부터 16년간 청년부와 더불어 안산동산교회의 셀전환과 ‘큰숲운동’ 사역을 송창근과 더불어 헌신한 사역자로 신혼부부교구와 셀세미나와 네트워크교회 셀이식과 생수의강과 큰숲회복수양회를 섬겼고 행정목사를 담당했다. ‘동탄동산교회’를 개척한 연구자는 8년간 송창근의 뒤를 이어 청년부사역과 월요중보기도사역, 목요영성집회, 교구목회 및 큰숲회복수양회를 담당했다. ‘Day Church’ 심준호는 전도사부터 14년간 셀전환사역과 생수의 강과 셀세미나의 스텝으로 섬겼고 안산동산교회의 예배와 찬양담당사역과 청년부사역을 담당했다. ‘배곧동산교회’ 박덕영은 14년간 주일학교사역과 교구목회와

310)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6-8.

311) 이도영은 자신의 내적치유수양회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적치유의 과정 및 삶의 변화, 제자의 길과 영적인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고백」(서울: 꿈 같은 삶, 2007)을 출간했다. 그는 교회 공동체는 ‘고백 공동체’라고 말하며 고백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적고 있다.

312) 더불어숲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f21.org/wp/?page_id=11485, 2020년 2월 10일 접속.

313) 복음의빛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lc21.com>, 2020년 2월 10일 접속.

셀양육 사역을 담당했다.

충분한 목회경험은 충분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충분성은 안정적인 목회를 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안산동산교회에서의 7년 이상의 시간은 개척자로서의 셀목회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개척자가 셀비전과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 공동체와 교구와 기관 공동체와 당회와 담임목사의 개척자에 대한 점검의 다중적인 검증을 통해서 개척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오랜 사역의 시간 동안에 공동체적인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안산동산교회의 분위기이다.

(4) 큰숲분립위원회의 지원과 당회의 결정

사역자가 ‘큰숲운동’을 통해 분립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임목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개척에 대한 안건은 ‘큰숲분립위원회’를 통해 다뤄지고 최종적으로 당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되어진다. ‘큰숲분립위원회’는 당회의 여러 위원회 중에 하나로 안산동산교회의 목회에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다.³¹⁴ ‘큰숲분립위원회’는³¹⁵ 분립개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분립개척의 준비와 시작의 전 과정을 교회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개척자는 위원회와 분립개척하는 교회의 창립예배를 드리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동역한다. 위원회는 크게 일곱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한다.

i) 개척의 동기와 비전 점검

개척자가 담임목사를 통해 개척의 1차적 결정이 나게 되면, 개척자는 바로 위원회와 소통을 하게 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개척자의 개척 동기와 소명에 대한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특히 다루어 지는 것은 셀비전과 ‘큰숲운동’에 대한 비전 점검이다. 이것은 안산동산교회가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어 지는 절차이다. 연구자도 위원회와의 만남을

314)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d21.org/01intro/Organization_chart.aspx, 2020년 2월 10일 접속.

315) 이하 ‘위원회’로 표기.

통해서 개척에 대한 동기를 충분히 소통했다. 그리고 교회의 ‘큰숲운동’에 대한 취지의 의미를 점검 받는 시간을 가졌다.

ii) 개척기획안 검토와 확정

위원회와의 만남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개척기획안의 준비이다. 개척기획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간다. 이것은 개척자들의 기획안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개척할 교회의 이름 선정, 어느 곳에 개척할 지에 대한 지역선정과 선정배경, 교회의 비전과 비전의 근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사역과 내용, 개척을 시작하는 전반적인 일정, 개척 동참자에 대한 방안과 개척멤버의 구성, 개척준비를 위한 일정 별 준비목록 작성, 개척준비와 개척 이후에 필요한 재정계획 등의 요소이다.³¹⁶

이러한 기획안은 위원회와의 만남과 토론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구자는 초기 기획안에서 시작하여 총 세 번의 기획안을 제출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³¹⁷ 이 과정은 개척의 목적과 과정을 선명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iii) 개척할 장소에 대한 협의

개척 기획안이 완성되어지는 과정과 더불어 개척할 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선정과 개척할 장소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척할 장소가 정해지는 지는 위원회에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그 외에 다양한 실제적인 조언자들이 있다. 담임목사의 조언과 이미 큰숲분립개척을 한 다수의 큰숲교회의 사역자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척 장소가 정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함께 동참하고 담임목사와 위원회의 생각의 조율과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다.

316) 연구자가 분립개척한 동탄동산교회 개척 기획안에 포함된 요소이다.

317) 연구자는 1차 기획안을 2015년 7월, 2차 기획안을 10월 최종 기획안을 11월에 완성하여 제출했다.

iv) 개척기도회 준비

안산동산교회의 개척준비의 큰 강점 중의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개척기도회를 열어 누구든지 기도회에서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때에 위원회는 후보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4주간 광고를 하게 된다.³¹⁸ 이것과 함께 개척자는 개척기도회 홍보물을 예배 전후에 나누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개척기도회의 전 과정에 동참하고 기도하며, 개척의 지지와 함께 ‘큰숲운동’의 비전을 설명하고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³¹⁹

v) 교회적인 협력 지원

개척의 특성상 그 공간과 장소는 계약과 관련되는 재정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공간을 준비하기 위한 인테리어를 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이때에 필요한 재정을 재정부를 통해서 협력 지원하게 된다. 재정의 필요성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개척기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역 준비를 위한 각종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다루어 지는 것이 재정지출계획서이고 재 정부는 계획서대로 즉각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연구자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총 18회에 걸쳐서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모두 재정계획서대로 반영된 것이다.³²⁰

vi) 당회와의 소통

개척준비의 과정과 더불어 당회가 분립개척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이 있다. 이 때에 위원회는 개척기획안을 통해 개척자와 개척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게 되고, 당회는 질문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승인하게 된다. 이때에 개척자는 당회에서 분립개척 공청회를 진행하게

318) 13번째 큰숲분립교회인 ‘푸른숲 동산교회’는 2019년 10월 3일부터 총 4주간에 걸쳐 광고가 되었다. 안산동산교회 후보 2019. 10. 13; 안산동산교회 후보 2019. 10. 20; 안산동산교회 후보 2019. 10. 27; 안산동산교회 후보 2019. 11. 3.

319) 연구자는 개척준비기도회를 총 8주간 진행했고, 1주차 때에 ‘큰숲개척의 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큰숲분립개척위원장이었던 장로 박원호가 강의를 했다.

320) 재정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계약금, 인테리어비용, 집기비용, 인쇄비, 개척기도회 준비비, 목회프로그램준비비, 집기비 등으로 주로 구성된다.

되는 과정이 있다.³²¹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개척지원금과 더불어 재정지원에 대한 가변적인 요소를 승인하게 된다. 연구자의 경우 도시의 특성상 임대료가 비싼 환경 속에서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공청회를 통해서 요청하였고, 당회가 기본 지원금 3억 원(현금포함) 외에 1억 원을 더 무상지원해 주는 것으로 승인해주었다.³²² 은혜의 동산교회는 3억 원의 지원과 더불어 3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블루라이트처치는 3억 원의 지원금과 매달 1000만원씩 3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원에 위원회는 그 필요성을 당회와 소통하는 기능을 한다.

vii) 개척준비과정 코칭

위원회의 기능은 개척준비의 전 과정을 코칭하는 기능을 한다. 교회의 이름을 선정하는 것, 장소에 대한 선정, 재정적인 지원과 지침, 기도회지원, 개척 동참자와 개척팀 구성 등 모든 것을 함께하며 코칭한다. 그리고 개척자의 가족들의 집과 개척에 따른 자녀들의 전학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의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3) 교회의 지지와 후원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지지와 후원이 없는 개척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개척된 많은 교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교회의 강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개척을 지원한다. 교회의 지지와 후원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성도들의 개척 동참이다. 교회는 개척이 결정되어지면 개척기도회 광고를 4주간 주보를 통해서 하게 된다. 예배 시간에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을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한다. 개척을 충분히 돕고 안정적인 때에 돌아와도 된다고 안심시켜주고 성도들이 ‘큰숲운동’에 뛰어들도록 사명감을 준다. 실제로 안산동산교회는 개척교회를 1년 2년씩 섬기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 직분은 그대로 회복시켜준다. 평균적으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동참하고 있다.

321) 개척공청회는 개척자가 개척할 도시에 대한 선정배경과 교회의 목회비전을 설명하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322) 연구자는 2015년 11월 29일 당회에서 개척을 최종 승인받았다.

둘째, 재정적 지원이다. 안산동산교회는 개척을 위한 지원은 다양하다. 첫째는 기본지원금이다. 기본지원금은 2억 원으로 이것으로 개척을 준비하게 한다. 둘째, 헌금이다. 한 차례 온 성도들이 동참하는 헌금을 주일에 따로 진행한다. 물론 이 헌금은 큰숲개척교회를 돕는 지정헌금으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 이러한 헌금이 평균 7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역자의 월급을 지원해서 사역자와 가족을 위한 자립을 돕는다. 또한 부목사로 있으면서 지원한 사택지원금 1억 5천 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안정적인 개척지원을 돕는다. 여기에 당회를 통해서 필요한 추가 지원금은 승인을 얻어 지원되어 질 수도 있다.

셋째, 교구와 성도들의 지원이다. 성도들의 지원은 다양하다. 개척기도회를 할 때부터 개척자가 소속된 교구에서 기도회에 필요한 재정과 간식 등을 지원하고 기도회에 동참한다. 그뿐 아니라 개척 초기에 여러 달을 예배에 동참을 해준다. 연구자의 경우 교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승합차를 지원받았다. 개척기도회를 통해서 개척에 필요한 헌물을 받을 수 있다. 헌물 리스트를 두면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나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각자 헌물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개척을 한 이후 1,2년 동안 꾸준히 개척헌금으로 지원하고 돕는다.

4) 개척기도회 준비

개척의 준비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개척기도회의 준비이다. 이것은 개척 동참자들을 발견하고 실제적인 동참을 이끌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척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척자의 목회적 비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척자는 개척기도회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특히 담임목사와 큰숲형제교회의 담임목사들과 큰숲분립개척위원회와 당회의 장로와 교구의 성도들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³²³ 이때에 사역자가 준비할 것은 진행되는 개척기도회 때에 어떤 말씀으로 교회의 목회 비전을 말하고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이다. 이러한 목회적 비전과 준비는 사역자가 개척의

323) 개척기도회에는 반드시 담임목사의 설교순서가 있다. 여기에 큰숲분립개척한 형제교회의 담임목사들의 설교순서가 있고, 큰숲분립개척위원회의 담당 장로와 당회의 기관 장로들이 대표기도를 주로 한다.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생각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개척기도회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목회적 비전은 개척기획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들어가게 된다. 연구자는 2016년 1월부터 진행되는 8주간의 개척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교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설교하면서 목회적 비전과 가치를 전달했다.³²⁴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고 사역자들도 매우 집중하게 된다. 11번째로 개척한 Day Church는 ‘날마다 함께 섬기고 동행하는 건강한 셀교회’라는 주제로,³²⁵ 12번째로 개척한 배곧동산교회는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13번째로 분립개척한 푸른숲동산교회는 ‘푸른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개척기도회를 진행했다.³²⁶

5) 개척의 실제적인 준비

안산동산교회의 개척의 준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교회의 지원과 성도들의 지원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개척의 실제적인 준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것은 인적 준비와 재정적 준비와 공간적 준비와 목회적 준비이다.

(1) 인적 준비

인적준비는 먼저 개척 동참자를 구성하는 부분과 개척사역을 함께 할 사역자를 구성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324) 1주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계 2:1-7), 2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교회(계 2:8-11), 3주 진리로 이기는 교회(계2:12-17), 4주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교회(계 2:18-29), 5주 꺼져가는 생명도 살리는 교회(계 3:1-6), 6주 막힘이 없는 교회(계 3:7-13), 7주 비전이 멈추지 않는 교회(계 3:14-22).

325) 1주 데이처치 교회를 말하다, 2주 코이노니아 교회를 향하다, 3주 월화수목금토 교회를 만나다, 4주 정의 교회를 나타내다, 5주 사랑 삶으로 이야기하다, 6주 월화수목금토 사람을 만나다 7주 진리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8주 데이처치 날마다 교회로 살다.

326) 1주 왜 평택으로 부르셨는가?, 2주 부모세대 자녀 세대 한가정을 전도하는 교회, 3주 건강한 소통을 위한 다른 세대 섬김과 셀 연합운동, 4주 큰숲운동의 비전과 순종, 5주 교회를 세우는 기도운동과 전도, 6주 성령 안에서의 팀 사역, 7주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 8주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개척사역의 실제), 9주 개척자의 정신 평택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개척 동참자를 구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개척자가 동참자를 권하는 일이다. 이것은 개척기도회 때에 설교와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교구목회를 통해서, 말은 보직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교회적인 광고를 통하거나 분립개척에 비전을 가진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소개를 통해서 참여가 일어난다. 개척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거나 뜻을 가진 자들을 소개하는 일이 자주 있다. 그리고 개척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개척 동참자가 있을 때에 개척자는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에 개척 동참자 모임을 진행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셀을 구성하는 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척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임으로 구성되어진다. 연구자의 경우는 자택에서 동참자 모임을 식사와 기도회와 비전 나눔을 통해서 동참자들과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개척할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개척을 함께 할 동역자를 구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안산동산교회의 경우 개척 동참자들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므로 개척시작부터 주일학교가 필요하고 이것은 개척의 귀한 자원이 된다. 때문에 개척준비를 함에 있어서 사역자의 준비는 개척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고, 함께 개척을 준비한 다는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

사역자의 동참을 구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번째는 안산동산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뜻이 있는 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안산동산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롭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지한다. 이것의 강점은 사역자들이 검증된 자들이라는 점이다. 사역자의 동참 두 번째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자로 준비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신학교를 준비하거나 신학교를 다니지만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자들의 스텝으로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과 준비된 자들을 유급사역자로 쓰는 경우도 있다.³²⁷ 세 번째는 안산동산교회 사역자들의 소개를 통해서 사역자를 모집할 수 있다.³²⁸ 분립개척을 동역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자체적으로 준비가 된다. 이러한 인적준비는

327) 연구자는 분립개척시 미취학부서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의 평신도를 유급사역자로 세웠다.

328)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자들의 통해서 취학부 사역자를 소개받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이 공동체와 사역자들 안에 잘 자리 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2) 재정적 준비

재정적 준비는 교회의 지원금과 성도들의 헌금과 후원물품에 대한 성도들의 헌금과 헌납으로 이루어진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2년간의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지원금이 있다.

(3) 공간적 준비

공간적 준비는 개척할 지역에 상가를 얻어서 주로 진행하고, 거기에 맞도록 인테리어를 하여서 준비를 한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은혜의 동산교회가 성지농원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개척지원금으로 땅을 구매한 이후 7개월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다.³²⁹ 기쁨의 동산교회는 안산동산교회의 고잔동 예배당에서 분립개척을 했다.³³⁰ 블루라이트처치는 서울 홍대거리에 술집을 인테리어하여 개척했다.³³¹ 그 외에 회복의 동산교회가 개척과 동시에 건축을 진행한 것과³³²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로고스홀에서 개척을 시작함과 동시에 수원 호매실지역에 교회를 건축하여³³³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가에서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통해서 공간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공간을 준비함에 있어서 안산동산교회는 큰숲형제교회들의 다양한 도움이 있다. 부동산업자와 인테리어업자의 연결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4) 목회적 준비

목회적 준비는 개척을 결정함과 동시에 개척기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목회

329)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01.

330) Ibid., 304.

331) Ibid., 306.

332) 회복의 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red21.org/bbs/board.php?bo_table=daily&page=40&page=39, 2020년 2월 11일 접속.

333) 복음의 빛 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lc21.com/user/saveDir/board/www73/21_1475158559_0.mp4, 2020년 2월 11일 접속.

기획서에 담긴 비전은 분립개척한 교회의 사역으로 구체화되어 진다. 기본적으로 안산동산교회는 목회의 비전에 ‘큰숲운동’의 비전과 셀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각 분립개척교회의 개척기도회 주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목회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은 개척 초기단계부터 예배와 사역과 각종 목회 프로그램개발로 직결되어진다.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9번째 개척된 더행복한교회의 개척 기획안에는 교회의 비전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이다.³³⁴ 실제로 개척 이후 줄곧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다.³³⁵ 연구자가 개척한 동탄동산교회는 ‘도시와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비전이 있고 이를 위해 ‘굿팸’이라는 가정사역을 개발하여 실행 중에 있다.³³⁶ 이러한 목회의 사역적인 준비와 더불어 준비하는 것이 목회를 지원하는 도구들이다. 그것은 홈페이지, 주보, 교회CI, 사무집기, 악기, 영상장비, 교육장비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안산동산교회는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교적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다.³³⁷ 이 외에도 법인등록과 교회통장 개설과 정관만들기 등 목회를 보조하는 다양한 준비를 한다.

6) 파송식

안산동산교회는 이상의 실제적인 준비가 다 되어졌을 때에 파송식을 진행한다. 파송식은 년 중에 개척될 경우에는 주일 본 예배에 회중들 앞에서 파송식을 진행한다. 년 초에 진행될 경우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파송식은 담임목사가 큰숲교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파송되는 개척자의 가정과 함께 개척에 동참하는 아이들을 포함한 전체가 강단으로

334) 더행복한교회 큰숲분립개척 기획안 참조.

335) ‘세월호 아픔 간직한 안산, 마을에서 희망찾기’, 한국기독교공보, 2018년 4월 16일. 더행복한 교회는 개척이후 실제로 지역사회 섬김이 구체화되어 안산마을목회네트워크와 연합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합하고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336) 동탄동산교회 홈페이지, http://ddc21.or.kr/?page_id=16. 2020년 2월 11일 접속. 연구자의 교회의 굿팸사역은 마더와이즈, 아빠학교 빠담빠담, 부부를 위한 행동세미나, 결혼예비학교, 미혼남녀를 위한 위시아카데미, 예비부모학교 등이 개발되어 있다.

337) 분립개척교회는 안산동산교회 전산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해준다. 교적프로그램은 안산동산교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목회적성향과 맞도록 개발되었기에, 사역자가 늘 사용하던 교적이어서 사용이 용이하다. 교적지원프로그램은 10번째 개척된 동탄동산교회 이후 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올라와서 진행이 되어진다. 사역자의 교회 개척의 포부와 비전을 성도들과 나눈 후, 온 성도들의 기도와 담임목사의 기도로 파송을 진행한다. 파송식을 준비하기까지 개척자가 해야 할 일은 동참자들과 함께 개척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개척의 실제적인 준비를 함께 준비하는 것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만드는 일이다.

7) 분립개척한 교회들의 협력

큰숲분립개척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산동산교회의 남다른 점은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함께 지원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개척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대해서 선배 목사들의 조언이 풍성하다.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이 있다. 그리고 분립개척한 교회들의 개척기획서를 제공해주고 목회의 기획부터 노하우가 전수되어진다. 그 외에도 개척기도회와 관련된 자료와 조언들과 개척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물적으로도 지지하고 돕고 필요한 집기나 사역자의 도움을 위해서 교회들이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집기를 제공하는 일들을 진행한다.

8) 사후관리와 지원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개척 이후에도 이루어진다. 개척이후 개척이 자리 잡히게 되면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에 안산동산교회와 담임목사와 당회와 성도들은 함께 창립예배를 참석하고 축복한다. 이때에 또 한 차례 헌금을 해주고 격려를 아낌없이 한다. 또한 분립개척을 전후해서 김인중의 부흥회를 진행하여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사회에 불신자와 낙심자들을 초대하여 영혼구원과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교회를 힘껏 지지해주는 일을 진행한다. 그리고 큰숲분립개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교회의 상황을 듣고, 3년 동안 창립기념주일에 위원회가 함께 예배를 참여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낌없이 축복하고, 개척에 수고한 성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여 격려한다. 그뿐 아니라 개척의 고민과 ‘큰숲운동’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이야기를 듣고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일을 지속한다.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교회는 교회의 목회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함께 네트워크되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셀세미나와 세뽀세세미나, 생수의 강과 큰숲회복수양회에 동참하는 것이다. 분립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교회로 안산동산교회의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은 작은 규모의 교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이다. 큰숲회복수양회는 초기에는 안산동산교회에 함께 참여했지만, 현재는 분립개척한 교회들의 연합으로 큰숲회복수양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국은 그의 논문에서 교회 분립개척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몇 가지로 다룬다. 모교회의 건강성, 모교회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 개척 당사자의 자질과 소명, 모교회에서의 개척 준비, 분립개척의 실제적인 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과정 속에는 분립개척을 잉태하는 과정, 분립 준비 과정, 출산과정, 성숙과정, 재생산 과정으로 나눈다. 그는 무엇보다 교회 분립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교회가 과연 ‘모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건강한 모태에서 건강한 아기가 탄생하듯,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개척교회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본다.³³⁸

연구자는 이러한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의 흐름과 과정을 잡았다. 이러한 분립개척의 과정을 보면 안산동산교회는 건강한 모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과정과 흐름이 매우 발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또 다른 분립개척을 하게 하는 재생산의 모판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진다.

4. ‘큰숲운동’에 대한 소결론

이상에서 안산동산교회의 셀비전을 통한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안산동산교회는 ‘큰숲운동’을 통하여서 13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것만으로도 ‘큰숲운동’ 교회 개척의 모델이 되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립개척된 13개의 교회가 모두 다

338) 김용국, “한국교회에서의 교회분립개척전략”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34-60.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안산동산교회의 셀공동체를 추구하는 셀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개척된 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큰숲운동’의 이런 셀비전과 셀공동체를 통한 교회 개척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한국교회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은 건강한 공동체성 회복을 추구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사의 맥락 속에서 공동체운동을 했던 것처럼 교회갱신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안산동산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공동체 갱신운동에 충실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큰숲운동’은 셀공동체성을 통한 교회 개척을 추구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큰숲분립개척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척동참자들이 셀공동체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기에 이는 공동체성을 이루는 일에 기반이 되어 진다. 이런 의미에서 안산동산교회는 2장에서 다룬 개척 공동체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실천되어지는 곳이다.

셋째, ‘큰숲운동’과 교회 개척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운동이라는 것이다. 안산동산교회는 비전이 강한 교회이다. 그러나 현장과도 매우 가까운 교회이다. 이것은 비전을 현실로 이어주는 실제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큰숲운동’과 교회 개척은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넷째, 끝까지 책임지는 희생과 디아코니아가 있다는 점이다. 셀교회의 정신인 상호책임이 있고 또한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있고 희생이 있다. 아낌없이 서로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껏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 분립개척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셀공동체를 통한 교회 개척의 모델이 많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개척자로서의 준비와 충분한 목회적 경험과 성도의 아낌없는 참여와 교회의 지지까지 성공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많다. 이 모든 것이 분립개척을 성공하게 하고, 이것이 분립개척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여섯째, 도전적이어서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피해가지 않는다. 공개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다. 개척에 뛰어드는 것은 성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허용되어진다. 이러한 도전성은 지속성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셀교회의 비전에 다가서는 에너지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이러한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이미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셀세미나를 통해서 그 노하우가 공개되었고, 큰숲네트워크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셀공동체 운동을 일으키는 ‘큰숲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큰숲운동’을 통한 셀교회의 비전과 교회 개척운동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발전적인 일이다.

제 4 장

설문 및 분석

1. 설문조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본 설문의 목적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11개 교회의 ‘큰숲운동’이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분립개척된 11개의 교회들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해서 개척되었기에, ‘큰숲운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11개 교회의 목회자들과 분립개척된 교회의 목회의 현장은 ‘큰숲운동’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연구에 의의와 가치가 있다.

본 설문의 연구 절차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진행되어진다. 4장의 설문은 분립개척된 11개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은 ‘큰숲운동’의 현장속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4장의 설문을 통한 분석과 더불어 5장에서는 11개 분립개척된 교회의 목회자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할 것이다. 이렇게 분립개척된 11개 교회의 ‘큰숲운동’의 현장을 통해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분립개척된 교회들의 ‘큰숲운동’ 현장을 연구하여 교회 개척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설문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는 ‘큰숲운동’의 근거가 되는 셀목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것은 셀목회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둘째는 목회 현장 속에 셀목회의 핵심들이 반영되는 발전적인 노력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다. 셋째는 셀목회를 통해서 ‘큰숲운동’이 추구하는 분립개척을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세가지의 분석은 셀목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이 과연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맥락 속에서 다루어진다. 그 맥락은 셀과 ‘큰숲운동’의 비전인 리더가 리더를 낳고 셀이 셀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에 다가서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2) 설문 참가자

본 설문 조사는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11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조사하였다. 11개의 교회가 분립개척되었으나 온라인 조사에서 1개 교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5장에서 진행되는 11개 교회의 개별적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11개 교회와 관련된 참가자들의 목회적 프로필을 아래의 표로 제공한다. 참가자의 연령은 40대에서 60대로 분포가 되어 있고, 분립개척한 지 1년에서 16년 된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표 1> 설문 참가자 프로필

순번	성명	연령	안산동산교회 근무연수	개척연수	셀목회 운영여부	분립개척 횟수
1	이규현	58	11년	16년	Yes	3
2	김광이	60	13년	15년	Yes	2
3	송창근	56	9년	12년	Yes	2
4	이도영	53	10년	11년	Yes	1
5	이득진	59	11년	10년	Yes	0
6	나희석	51	14년	7년	Yes	0
7	조성익	49	8년	6년	Yes	0
8	손병세	48	16년	6년	Yes	0
9	박동성	48	8년	5년	Yes	0
10	심준호	44	14년	4년	Yes	0
11	박덕영	47	14년	2년	Yes	0

3) 설문조사 방법

본 연구자는 설문 전에 리버티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FY19-20-200)의 검토를 거친 설문동의서를 이메일로 참가자에게 보냈고,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위해서 먼저 설문을 받는 11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와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설문 절차를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였다. 설문은 인터뷰를 통한 심층연구를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지는 조사로, ‘큰숲운동’의 근거가 되는 셀목회의 진행여부와 셀목회의 전반적인 환경과 노력과 결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모바일 서베이 방식 중 국내에서 활용되는 SNS의 일종인 카카오톡(Kakao Talk)을 통하여 보내주었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접수되었다.

4) 설문내용과 구성

본 설문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을 한 11개 교회의 목회자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모든 문항은 2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설문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고, 개척교회와 셀목회에 대한 질문, 셀의 인식에 대한 질문, 셀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 개척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

2. 설문 결과

연구자는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의 빈도수가 10개의 수준이므로 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SurveyMonkey³³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결과는 빈도 분석을 통한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고, 표기는 퍼센트 방식으로 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2) 분립개척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39) Surveymonkey는 설문조사 사이트로 1999년에 세워진 민간기업이다.

<표 2> 나이 및 분립개척 연수

구분	항목	인원	백분율
나이	40-45 세	1	10%
	46-50 세	3	30%
	51-55 세	2	20%
	56-60 세	3	30%
	61-65 세	1	10%
	소계	10	100%
분립개척 연수	1-3 년	1	10%
	4-5 년	4	40%
	6-10 년	2	20%
	10-15 년	2	20%
	15 년 이상	1	10%
	소계	10	100%

1번 질문은 나이에 관한 질문이며, 참가자 중 40-45세가 1명(10%), 45-50세가 3명(30%), 50-55세가 2명(20%), 55-60세가 3명(30%), 60-65세가 1명(10%)이다. 이것을 통해서 분립개척을 시작하는 나이가 주로 40대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2번 질문은 분립개척의 연수를 묻는 질문으로 1-3년 1명(10%), 4-5년 4명(40%), 6-10년 2명(20%), 10-15년 2명(20%), 15년 이상 1명(10%)이다. 이것은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분립개척이 시작된 지 2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0%가 최근 10년 안에 분립개척된 것으로 보아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이 과거 10년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척교회와 셀목회에 대한 질문

(3) 당신은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에 대한 견해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좋다	6	60%
좋다	4	40%
보통이다	0	0%
좋지 않다	0	0%
매우 좋지 않다	0	0%
소계	10	100%

3번 질문은 분립개척을 실행하는 모교회인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으로, 셀목회에 대해서 ‘매우 좋다’는 6명(60%), ‘좋다’는 4명(40%), ‘보통이다’,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는 모두 0명(0%)이다. 응답자의 60%가 ‘매우 좋다’, 40%가 ‘좋다’로 나온 것은 모교회인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가 만족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4) 당신은 교회에서 셀목회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표 4> 셀목회의 실천에 대한 질문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6	60%
그렇다	4	4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소계	10	100%

4번 질문은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셀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 6명(60%), ‘그렇다’ 4명(4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모두 0명(0%)이 응답했다. 분립개척한 모든 목회자들은 안산동산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셀목회를 분립개척한 개교회에 모두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셀목회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이 셀목회의 비전과 정신에 의해서 분립개척되고 있고, 이것이 분립개척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5) 당신은 성도들이나 리더들에게 셀목회를 통한 셀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표 5> 셀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7	70%
그렇다	2	20%
보통이다	1	1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소계	10	100%

5번 질문은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셀목회를 실천하기 위한 셀사역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목회적인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7명(70%), ‘그렇다’가 2명(20%), ‘보통이다’가 1명(10%),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0명(0%)로 응답했다. 대부분의 교회가 셀목회를 통한 셀사역을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셀사역의 위치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셀목회와 셀사역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 셀의 중요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표 6> 셀의 중요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6	60%
그렇다	3	30%
보통이다	1	1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소계	10	100%

6번 질문은 분립개척된 교회에서 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셀의 중요성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6명(60%), ‘그렇다’가 3명(30%), ‘보통이다’가 1명(10%),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0명(0%)로 대답했다. 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강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셀목회와 셀사역에 대한 중요성 강조가 구체적인 노력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셀목회가 개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고 목회의 현장성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당신은 셀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표 7> 셀사역을 하게 된 동기

항목	인원	백분율
셀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0	0%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 때문	4	40%
셀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	5	50%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	1	10%
셀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에 대한 확신 때문	0	0%
소계	10	100%

7번 질문은 목회자들이 셀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이다. ‘셀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가 0명(0%),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 때문에’가 4명(40%), ‘셀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돌봄,치유,회복)’가 5명(50%),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가 1명(10%), ‘셀전도를 통한 교회의 성장에 대한 확신 때문에’가 0명(0%)이 대답했다. 셀사역을 하게 된 가장 큰 비중은 셀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산동산교회에서의 셀목회를 통해서 셀을 잘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 때문에 셀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두 번째 대답과도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그 외에 초대교회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또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건강도와 관련된 답변이다. 이에 비해 셀목회의 시스템이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0명(0%)로 대답했다. 이것은 분립개척한 목회자들의 동기가 철저하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8) 셀목회를 강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회적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표 8> 셀목회 강조를 위한 목회적 수단(복수응답)

항목	인원	백분율
셀교를 통한 강조	5	50%
셀리더 양성을 위한 양육	7	70%
셀리더(순장) 모임	8	80%
셀리더세미나 혹은 수련회	1	10%
셀리더 팀워크를 위한 단합회	1	10%
소계	10	100%

8번 질문은 셀목회 강조를 위한 목회적 수단에 대한 복수응답 질문으로 셀목회를 위한 목회적 노력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셀교를 통한 강조’가 5명(50%), ‘셀리더 양성을 위한 양육’이 7명(70%), ‘셀리더(순장)모임’이 8명(80%), ‘셀리더세미나 혹은 수련회’가

1명(10%), ‘셀리더 팀웍을 위한 단합회’가 1명(10%)으로 답변했다. 셀목회를 강조하는 가장 큰 목회적 수단은 셀리더 모임과 셀리더 양성이다. 이것은 셀사역의 특성상 셀리더들에 의해서 셀목회는 움직여지기 때문에 셀리더 모임과 셀리더 양성이 비중 있게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설교를 통한 셀목회의 강조는 모든 성도들에게 셀목회가 강조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9) 당신은 성도들이 셀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표 9> 성도들의 셀모임 참여를 위한 노력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5	50%
그렇다	5	5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소계	10	100%

9번 질문은 성도들이 셀모임에 참석하도록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매우 그렇다’가 5명(50%), ‘그렇다’가 5명(5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답변했다. 분립개척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셀모임에 모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셀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목회적 강조인 동시에 셀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셀모임에 참석하도록 하는 노력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성도는 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체신학이 교회 안에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10)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과 셀 모임이 잘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0> 셀과 셀 모임에 대한 평가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1	10%
그렇다	7	70%
보통이다	2	2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소계	10	100%

10번 질문은 셀과 셀모임이 잘 되어지는 지에 대한 평가 질문이다. ‘매우 그렇다’가 1명(10%) ‘그렇다’가 7명(70%), ‘보통이다’가 2명(20%),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0명(0%)으로 나타났다. 셀과 셀모임에 대한 사역자의 평가에 ‘매우 그렇다’는 대답이 ‘그렇다’는 대답에 비해서 비중이 매우 약했고, ‘보통이다’는 평가가 20%가 나왔다는 것을 보아, 셀에 대한 목회의 노력에 비해 목회자로서 셀과 셀모임의 운영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셀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셀의 인식에 대한 질문

(11) 당신은 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표 11> 셀에 대한 지식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8	80%
잘 알고 있다	2	20%
조금 알고 있다	0	0%
잘 모른다	0	0%
전혀 모른다	0	0%
소계	10	100%

11번 질문은 셀에 대한 지식에 관한 질문이다. 목회자가 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뿐 아니라 전반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이 어떠한 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가 8명(80%), ‘잘 알고 있다’가 2명(20%),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모두 0명(0%)로 대답했다. ‘큰숲운동’을 통해서 분립개척한 목회자들은 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매우 잘 안다고 대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도 20% 정도로 목회자들 전체가 셀에 대한 지식이 매우 강했다. 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셀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셀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을 통해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강한 자에 의해서 되어 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것은 셀모회를 할 수 있는 사역적인 양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12)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12> 셀의 중요한 핵심

항목	인원	백분율
교제(관계)	2	20%
섬김과 돌봄	5	50%
영적인 성장	2	20%
셀 예배	1	10%
소계	10	100%

12번 질문은 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것은 셀의 기능과 관련되어진다. ‘교제(관계)’가 2명(20%), ‘섬김과 돌봄’이 5명(50%), ‘영적인 성장’이 2명(20%), ‘셀 예배’는 1명(10%)로 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섬김과 돌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목회적인 섬김과 돌봄은 디아코니아가 셀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제(관계)’와 ‘영적인 성장’이 각각 20%로 나왔다. 교제는 셀에서의 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성장은 영적이 아이가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고 영적인 아버가 되어 지는 성숙의 과정에 셀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13) 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표 13> 셀에 대한 정의

항목	인원	백분율
셀은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	9	90%
셀은 상호책임져야 한다	3	30%
셀은 전도가 중요하다	1	10%
셀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4	40%
셀은 경험하는 것이다	4	40%
셀은 가족이다	7	70%
셀은 기독교 기초공동체이다.	4	40%
소계	10	100%

13번 질문은 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복수응답을 하게 했다. ‘셀은 기독교 기초공동체이다’가 4명(40%), ‘셀은 가족이다’가 7명(70%), ‘셀은 경험하는 것이다’가 4명(40%), ‘셀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가 4명(40%), ‘셀은 전도가 중요하다’가 1명(10%), ‘셀은 상호책임져야 한다’가 3명(30%), ‘셀은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가 9명(90%)로 답변하였다. 셀에 대한 정의 중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셀은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90%가 응답을 했다. 이것은 셀의 많은 정의와 셀의 중요한 핵심들이 ‘라이프스타일’ 즉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셀은 가족이다’가 70%가 나왔다. 셀의 정의를 가족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관계와 상호책임과 희생하는 셀의 본질이 가족의 본질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고 유무상통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다. 때문에 ‘셀은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로 40%가 답변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그리고 ‘셀은 기독교

기초공동체이다'라고 40%가 대답했는데, 이것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인간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된 공동체신학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동체 신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4) 셀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

(14) 당신의 정기적인 셀모임이 있습니까?

<표 14> 정기적인 셀모임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6	60%
그렇다	4	40%
보통이다	0	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14번 질문은 분립개척한 목회자의 자신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셀모임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매우 그렇다'가 6명(60%), '그렇다'가 4명(40%), '보통이다',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모두 0명(0%)로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셀모임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분립개척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정기적인 셀모임이 있고 자신들의 셀모임을 통해서 셀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몇 가지로 분석되어지는데, 그것은 셀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의 모본이 된다는 차원, 목회자도 동일하게 셀공동체의 기능성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차원, 셀을 이론으로 머물지 않게 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차원이다.

(15) 당신은 셀리더(지역장)들과 직접 셀모임을 진행하십니까?

<표 15> 셀리더모임 인도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5	50%
그렇다	2	20%
보통이다	2	20%
그렇지 못하다	1	1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15번 질문은 셀리더모임에 목회자가 직접 들어가서 그 모임을 인도하고 진행하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는 5명(50%), ‘그렇다’는 2명(20%), ‘보통이다’는 2명(20%), ‘그렇지 못하다’는 1명(10%),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0명(0%)이다. 셀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셀목회자는 셀리더라는 사실이다. ‘큰순운동’으로 분립개척한 목회자들의 70%가 직접 리더들의 셀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 인도에 보통인 경우도 2명이 있었고, 하지 않는 경우도 1명이 있었다. 목회자가 셀모임을 직접 인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아버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셀모임 인도는 리더들과의 직접적인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셀을 경험하게 하는 기능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산동산교회에서의 셀사역에 있어서 셀은 경험되어야 한다고 매우 강조하는데, 그것은 셀은 경험된 것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셀리더로 셀모임을 인도하는 것은 셀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당신은 셀과 셀모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6>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셀모임의 중요성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9	90%
그렇다	1	10%
보통이다	0	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16번 질문은 목회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셀과 셀모임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9명(90%), ‘그렇다’가 1명(1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응답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에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셀의 비중성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당신의 교회는 셀을 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7> 교회의 셀 경험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2	20%
그렇다	7	70%
보통이다	1	1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17번 질문은 분립개척한 교회의 셀과 셀모임을 통한 셀경험의 수준을 묻는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는 2명(20%), ‘그렇다’는 7명(7%), ‘보통이다’는 1명(10%),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0명(0%)로 응답했다. 셀을 잘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90%에 해당된다. 이것은 셀이 관념적이지 않고 셀 안에서 셀공동체성을 통한 관계와 섬김, 상호책임과 희생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는 응답이다. 이것은 공동체가 잘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18) 셀 안에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18> 셀 안에서의 성장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3	30%
그렇다	7	70%
보통이다	0	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18번 질문은 셀 안에서의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묻는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3명(30%), ‘그렇다’가 7명(7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응답했다. 셀 안에서의 성도들의 성장에 대한 목회자들의 평가는 대부분 잘 성장하고 있다는 대답이다. 이것은 셀공동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당신의 교회의 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표 19> 잘 되어지는 셀 사역

항목	인원	백분율
교제(관계)	3	30%
섬김과 돌봄	5	50%
영적인 성장	2	20%
소계	10	100%

19번 질문은 셀사역에 있어서 가장 잘되어지고 성장이 있는 사역에 대한 질문이다. ‘교제(관계)’는 3명(30%), ‘섬김과 돌봄’은 5명(50%), ‘영적인 성장’은 2명(20%)의 응답이 나왔다. 이상의 통계는 분립개척한 교회들의 셀목회에 있어서 ‘섬김과 돌봄’의 셀사역이 가장 왕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셀에서 디이코니아의 실천을 통해서 섬김과 돌봄의 상호책임과 사랑과 희생이 있는 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제(관계)’의 부분은 그 다음 30%로 셀의 희생성이 관계를 통한 코이노니아보다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셀사역은 셀공동체에 영혼을 돌보고 섬겨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우는 셀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30%에 해당하는 ‘영적인 성장’을 함께 동반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20) 당신의 교회는 셀 안에서 셀리더들이 잘 준비되고 성장되어 세워지고 있습니까?

<표 20> 셀안에서의 셀리더의 성장과 준비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2	20%
그렇다	8	80%
보통이다	0	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20번 문제는 셀 안에서 셀리더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설문이다. ‘매우 그렇다’가 2명(20%), ‘그렇다’가 8명(80%)로 응답했다. 셀 안에서 셀리더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셀리더와 셀공동체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를 성장시킨다는 의미이고, 또한 실제로 셀 안에서 성장하여 영혼을 돌보는 셀리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큰순운동’으로 분립개척된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셀리더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고, 리더가 리더를 낳는 셀과 셀목회의 비전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21) 당신의 교회는 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표 21> 셀을 통한 전도와 영혼구원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4	40%
그렇다	5	50%
보통이다	1	1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21번 질문은 셀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것은 셀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매우 그렇다’는 4명(40%), ‘그렇다’는 5명(50%), ‘보통이다’는 1명(10%),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0명(0%)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90%가 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셀목회를 하는 교회에서의 전도방식이 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전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셀 전도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여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셀의 전도적 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당신의 교회는 성도들이 셀리더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표 22> 셀리더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9	90%
그렇다	1	10%
보통이다	0	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22번 질문은 교회의 성도들이 셀리더가 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설문이다. ‘매우 그렇다’는 9명(90%), ‘그렇다’는 1명(10%), ‘보통이다’는 0명(0%),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0명(0%)으로 응답했다. 성도들이 셀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에 90%의 교회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은 셀리더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셀교회에서 셀리더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셀리더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셀목회에서 셀리더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셀과 셀리더를 세우는 양육을 통해서 셀리더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셀리더가 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23) 당신의 교회는 셀의 전도를 통해서 분셀(분가)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표 23> 셀전도를 통해 분셀(분가)을 하려는 비전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1	10%
그렇다	6	60%
보통이다	3	3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23번 질문은 셀에서 셀의 공동체적인 전도를 통해서 분셀(분가)을 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1명(10%), ‘그렇다’가 6명(6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응답되었다. 전체적으로 70%가 셀전도를 통해서 분셀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큰숲운동’으로 분립된 교회들의 상당수가 셀이 셀을 낳는 셀교회의 비전을 가진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관계를 통해서 섬김과 돌봄의 셀기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셀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분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분석되어진다. ‘보통이다’는 30%의 데이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24) 당신의 교회는 셀의 성장을 통하여 분셀(분가)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표 24> 셀성장을 통한 분셀(분가) 경험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4	40%
그렇다	4	40%
보통이다	1	10%
그렇지 못하다	1	1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24번 질문은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셀의 성장을 통해서 분셀(분가)을 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4명(40%), ‘그렇다’가 4명(40%), ‘보통이다’가 1명(10%), ‘그렇지 않다’가 1명(10%), ‘전혀 그렇지 않다’가 0명(0%)로 응답되었다. 분셀의 경험을 많이 한 교회가 40%이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교회가 40%라는 것은 셀공동체를 통한 셀전도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반적이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23번 문제의 분셀을 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보통이다’의 데이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셀전도를 통한 분셀의 비전의 유무가 실제로 분셀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분석이다.

5) 개척에 대한 질문

(25) 당신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표 25> 분립개척에 대한 관심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8	80%
그렇다	2	20%
보통이다	0	0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25번 질문은 ‘분립개척된 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셀교회의 분립개척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8명(80%), ‘그렇다’가 2명(2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응답했다.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모든 교회는 교회 분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분립개척에 대한 목회자의 목회적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당신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분립개척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표 26> 분립개척에 대한 강조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7	70%
그렇다	3	30%
보통이다	0	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질문 26번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를 분립개척할 것이라는 ‘큰숲운동’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개방적으로 알리고 강조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7명(70%), ‘그렇다’가 3명(3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응답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를 분립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의지는 70%로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분립개척에 대한 보편적인 의지도 30%가 되며, 이것은 모든 분립개척된 목회자들이 100% 분립개척을 하겠다는 것으로,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영향력이 확실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7) 당신은 분립개척을 위한 실제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표 27> 분립개척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7	70%
그렇다	3	30%
보통이다	0	0%
그렇지 못하다	0	0%
전혀 그렇지 못하다	0	0%
소계	10	100%

27번 질문은 분립개척이 비전으로만 있지 않고, 실제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7명(70%), ‘그렇다’가 3명(3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응답했다. 이러한 통계는 분립된 교회들 마다 분립개척에 대해서 비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6번 질문에서 분립개척을 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과 데이터가 일치한다. 말만 하는 분립개척이 아니라 실제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것은 ‘큰숲운동’이 각 교회 안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28) 당신의 교회는 분립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 28> 실제로 분립개척한 경험

항목	인원	백분율
없다	6	60%
1회	1	10%
2회	2	20%
3회	1	10%
3회이상	0	0%
소계	10	100%

28번 질문은 ‘큰숲운동’으로 개척된 교회들 중에 실제로 분립개척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것과 있다면 몇 번이나 분립개척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없다’가 6명(60%), ‘1회’가 1명(10%), ‘2회’가 2명(20%), ‘3회’가 1명(10%)로 응답했다. 분립개척을 해본 교회가 40%이고, 해보지 못한 교회가 60%이다. 분립개척의 특성상 분립개척된 시간이 짧은 교회가 분립개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되어진다. 분립개척의 의지와 강조를 통해서 향후 분립의 과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인다. 반면에 이미 개척을 경험한 교회가 4개 교회로 40%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들 교회는 이미 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개를 개척한 교회가 한 교회, 2개를 개척한 교회가 두

교회, 1개를 개척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매우 왕성하게 진행되어질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29) 당신은 셀목회의 가치를 통해서 교회를 분립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표 29> 셀목회의 가치를 통한 분립개척의 의지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8	80%
그렇다	2	2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소계	10	100%

29번 질문은 분립개척을 하더라도 셀목회의 가치를 통해서 분립개척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8명(80%), ‘그렇다’가 2명(2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모두 0명(0%)로 응답했다.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셀목회의 비전을 가진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이다. 응답자의 80%가 ‘매우 그렇다’로 20%가 ‘그렇다’로 대답한 것은 셀목회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분립개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숲운동’의 뜻과 정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다.

3. 분석에 대한 소결론

설문 참가자의 응답 대상자는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11개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이 중 한 명은 응답을 하지 않은 관계로 10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에 참여한 10개 교회에 셀목회가 교회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상황분석, 목회의 현장속에 셀목회의 핵심 비전들이 얼마나 깊이 반영되어지고 발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셀목회 핵심에 관한

분석, 셀목회를 통해서 ‘큰숲운동’이 추구하는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실제로 시도하는 지에 대한 분석, 셀과 ‘큰숲운동’의 비전인 리더와 셀과 교회의 재생산에 대한 분석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졌다.

1) 셀목회의 현장분석 - 활발한 셀목회의 현장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교회의 모든 셀목회의 근거는 안산동산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이다. 분립개척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3번 질문을 통해 안산동산교회에서 경험하고 배운 셀목회에 대한 생각이 ‘매우 좋다’가 60%, ‘좋다’가 40%로 나타나, 셀목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셀목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은 셀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7번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공동체 경험과 소망은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매우 강조되고 있고, 셀목회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4번, 6번 질문을 통해서 셀목회의 실천여부와 그 중요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60%가 ‘매우 그렇다’로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셀목회를 위한 강조는 셀리더 양육과 셀리더 모임을 통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8번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셀목회에 있어서 리더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성도들이 셀모임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9번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이 추구하는 셀목회가 분립개척된 교회에서 개념과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셀목회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셀사역의 본질이다.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만들 뿐 아니라, 또 다른 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립개척교회들은 ‘큰숲운동’의 근거가 되는 셀목회를 위해 많은 목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셀목회의 현장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셀목회와 셀모임의 평가를 볼 때에 셀목회에 대한 의지에 비해서는 현실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10번 질문 통해서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가 70%이지만, ‘매우 그렇다’는

10%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큰숱운동’으로 분립한 교회들은 모두다 셀목회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고 셀목회를 위한 강조와 구체적인 실천까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2) 셀목회의 핵심적인 반영 분석 - 실제적인 경험과 결실이 있는 셀공동체

셀목회의 성장은 셀목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지는 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 핵심은 셀에 대한 인식과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다. 셀에 대한 인식은 셀목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셀목회의 비전을 유지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셀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셀목회 안에 이런 핵심의 반영비율에 따라 셀목회가 무너만 남을 수도 있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실제적인 ‘큰숱운동’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1) 셀에 대한 인식 반영 분석

먼저 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셀에 대한 인식은 셀목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끌어 낸다. 11번의 질문에 80%가 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 20%가 ‘잘 알고 있다’로 답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이런 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이다. 분립개혁 자체가 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은 이미 3장에서 살핀 바가 있다. 이런 경험적인 인식은 12, 13번 질문을 통해서 셀의 중요한 핵심과 정의가 무엇인지로 드러나는데, 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50%가 ‘섬김과 돌봄’으로, ‘영적인 성장’과 ‘교제’가 각각 20%로 나타났다. 12번 질문은 안산동산교회의 셀과 셀목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는 대목이다.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는 ‘섬김과 돌봄’의 디아코니아가 강하다. 공동체가 ‘섬김과 돌봄’의 비중이 매우 크고, 공동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주로 세워진다.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와 함께 디아코니아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에 의해서 세워졌다.

셀에 대한 인식은 셀의 정의로 표현되어지는데, 가장 큰 비중이 ‘셀은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90%, ‘셀은 가족이다’가 70%, ‘셀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셀은 경험하는 것이다’, ‘셀은 기독교 기초공동체이다’가 각각 40%가 나왔다. 이런 정의들은 셀목회가 인위적이지 않고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의 핵심은 ‘셀의 공동체성’이다. 그리고 셀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셀은 가족이다’는 것이다. 셀은 가족이라는 인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에 가족으로 만든 것에서 기인하는 공동체론이다. 가족 없이 존재하거나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셀의 공동체성은 ‘가족 공동체성’을 추구한다.

안산동산교회를 비롯한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모든 교회는 셀목회를 통해 ‘가족 공동체성’과 셀의 가족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셀이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셀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적이지 않고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2)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반영 분석

그 다음으로 살필 것은 셀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이다.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셀목회는 경험적인 목회가 되어진다. 이것은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되어진다.

첫째,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목회자의 직접적인 셀참여로 이어진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안산동산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셀공동체 경험이 많다. 사역자들의 셀모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험이 분립개척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셀목회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공동체는 정직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셀목회의 영향력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분립개척된 대부분의 교회는 매우 긍정적인 답을 준다. 14번 질문을 통해 목회자의 정기적인 셀모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매우 그렇다’, 40%가 ‘그렇다’로 대답했다. 목회자의 셀모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셀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5번 질문을 통해서도 목회자가 리더들의 셀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50%가 ‘매우 그렇다’, 20%가 ‘그렇다’와 ‘보통이다’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목회자의 직접적인 셀 모임 인도는 아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으로 셀리더와 공동체에 큰 의미를 던져준다. 그것은 목회자를 통한 성장, 직접적인 의사소통, 위기관리, 리더십의 성숙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셀경험과 성장으로 이어진다. 16번 질문을 통해서 셀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90%가 ‘매우 그렇다’, 10%가 ‘그렇다’로, 17번 질문을 통해서 90%가 셀을 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험은 셀 안에서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30%가 ‘매우 그렇다’, 70%가 ‘그렇다’로 답하고 있다.

셋째,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셀사역으로 반영되어진다. 19번의 질문은 실제 셀의 현장 사역에 대한 질문으로 12번에서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셀과 비교분석이 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50%가 ‘섬김과 돌봄’으로, 30%가 ‘교제(관계)’로, 20%가 ‘영적인 성장’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12번 질문과 거의 흡사한 답변이다.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셀목회에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셀목회에 있어 목회자의 리더십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넷째, 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셀의 결실로 드러나게 된다. 셀의 결실은 두 가지이다. 리더가 세워지는 것과 분셀(분가)이다. 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질 때에 반드시 이러한 결실은 있게 되어 진다. 20번 질문은 셀 안에서 셀리더가 잘 준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매우 그렇다’가 20%, ‘그렇다’가 80%로 대답했다. 22번 질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셀리더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지에 대해 9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분립개척된 교회의 대부분의 리더들은 셀리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결실은 셀이 성장해서 분셀(분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셀을 위해서는 셀의 전도적 기능이 살아야 되는데, 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응답자의 90%가 셀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셀의 전도는 셀의 공동체성을 통해 전도하는 관계전도의 방식이다. 전도를 통해 셀은 성장하고 분셀의 비전을 갖게 되는데, 23번 질문을 통해 70%가 분셀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럼에도 30%가 ‘보통이다’로 대답한 것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러한 분셀의 대한 비전은 막연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설문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4번 질문은 분셀을 경험한 비율이 40%가 ‘매우 그렇다’, 40%가 ‘그렇다’로 80%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분셀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셀목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분셀의 경험은 단순히 셀목회의 본질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립개척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안정성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대부분의 교회는 개척 1-2년 안에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셀이 셀을 낳는 셀목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분립개척의 실제적인 준비에 대한 분석 - ‘큰숲운동’의 계승과 분립개척의 적극적인 도전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저력은 셀목회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실행되어진다. 리더와 셀로 이어지는 셀목회는 또다른 공동체로 이어진다. 이 비전을 품은 것이 ‘큰숲운동’이고, 이것은 교회가 분립개척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셀목회를 통해서 분립개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지의 여부가 ‘큰숲운동’의 실행여부이다. 때문에 분립개척된 교회의 실제적인 분립개척 준비를 살피는 것은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이다.

25번 질문은 분립개척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80%가 ‘매우 그렇다’, 20%가 ‘그렇다’로 답변을 했다. 그리고 분립개척이 공동체의 비전으로 준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26번이다. 교회가 성장하면 분립개척 할 것이라는 강조는 70%가 ‘매우 그렇다’, 30%가 ‘그렇다’로 답했다. ‘큰숲운동’은 분립개척된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확고한 관심과 의지로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큰숲운동’의 잘 계승되고 있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큰숲운동’이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성공욕구를 절제하게 할 뿐 아니라 목회자의 리더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분립개척된 대부분의 교회가 분립개척을 위한 생각과 계획이 실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번의 질문에 70%가 ‘매우 그렇다’, 3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분립개척이 허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이다.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한 내용은 5장에 11개

교회가 어떻게 분립개척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터뷰와 심층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교회의 역사가 2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분립개척된 교회는 또 다시 여러 개의 교회를 분립개척 했다. 28번 질문은 11개의 교회가 총 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회가 한 교회, 2회가 두 교회, 1회가 한 교회를 개척했다. 네 개의 교회가 분립개척을 했고, 6개의 교회는 모두 준비중에 있다. 이런 차이는 근래에 개척한 교회들은 개척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셀모회를 통해서 분립개척을 할 것이라고 80%가 ‘매우 그렇다’, 20%가 ‘그렇다’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29번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 셀모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분립개척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셀모회를 통한 분립개척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기초하는 목회를 반드시 붙들겠다는 의지이다.

4) 소결론

4장의 설문조사는 5장의 11개의 분립개척교회의 셀모회를 통한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목회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셀모회와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의 의지가 확고하고 목회의 현장은 활발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셀모회의 정신과 핵심이 목회의 현장속에 깊이 반영되고 있고, 이것은 셀모회의 결실로 나타나 또 다른 분립개척을 8개를 하게 되었다. 이런 설문의 결과는 안산동산교회의 셀모회와 ‘큰숲운동’이 분립개척된 교회에서 잘 계승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명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큰숲운동’이 분립개척된 교회에서 실제적인 셀모회와 왕성한 교회 개척운동으로 계승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교회와 분립개척을 위한 실제적 연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몇 가지로 분석되어진다.

첫째는 목회자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의지 때문이다. ‘큰숲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셀모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갈망 때문에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셀목회가 부흥을 위한 수단이나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셀목회는 초대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회복을 위한 목회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안산동산교회와 분립개척된 교회의 목회자들은 모두 건강한 셀목회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철저한 현장성과 경험중심의 목회 때문이다. 셀목회는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 이 관계속에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실행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지체가 연합하고 성장하게 된다. 때문에 철저한 현장성을 가지지 않으면 셀목회는 이루어 나갈 수 없다. ‘큰숲운동’으로 분립된 교회의 목회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셀모임이 있다. 그리고 셀리더들의 셀모임을 직접 인도한다. 때문에 목회자와 리더와 모든 성도는 같은 공동체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강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결국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경험이 ‘큰숲운동’을 계승하게 하는 힘이다. 분립개척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현장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 철저함이 필요하다.

셋째는 공동체적인 비전과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다. 안산동산교회와 분립개척된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공동체의 비전을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담아 낸다는 것에 있다. 셀의 비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셀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셀의 능력은 셀의 라이프스타일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모든 비전은 구호로 되지 않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인위적이지 않아야 흘러간다. 즉 삶이 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이 분립개척교회에 계승되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게 되는 이유는 비전이 삶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리더를 세우는 것도, 셀이 셀을 낳는 것도, 교회가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것도 비전이 삶이 되게 하는 방식인 셀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큰숲운동’이 유지 계승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이 계승된 이유 속에는 이것이 안산동산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분립개척된 교회에도 접목되고 공유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개척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5장은 이러한 4장을 통해서 분석된 셀목회와 ‘큰숲운동’이 각 교회마다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 5 장

11개 분립개척교회의 ‘큰숲운동’ 소개 및 분립개척을 위한 제언

연구자는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11개의 교회의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현장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 4장의 설문을 통해서 ‘큰숲운동’으로 분립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큰숲운동’과 셀목회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정신은 분립개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교회의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에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이다. 특히 셀목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공동체 경험은 분립개척에 매우 큰 영향이 되었다. 때문에 셀목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경험이 토대가 된다면 분립개척은 결코 막연하지만은 않는 일이고, 얼마든지 안정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5장의 연구의 목적은 분립개척된 교회들의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현장을 분석하여, ‘큰숲운동’이 분립개척된 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한국교회의 안정된 분립개척을 돕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5장은 11개 교회의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되었고, 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론의 기사와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연구되었다. 인터뷰의 질문의 맥락은 현재 각 교회마다 ‘큰숲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각 교회의 ‘큰숲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들에 대한 것이다. 셀목회를 통한 ‘큰숲운동’은 전형적으로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남는 것’과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셀목회를 통한 ‘큰숲운동’이 얼마나 생산적이나와 얼마나 영향력이 흘러가느냐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셀목회와 ‘큰숲운동’이 생산성과 영향력에 대한 여부는 각 교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될 것이다.

5장의 연구는 분립개척된 교회들의 분립개척된 역사적 순서에 따라 그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먼저 각 교회를 간략한 소개를 다루고, 각 교회의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현장이야기를 정리하여 다루되, 각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책과 기사와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심층 분석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1. 11 개 교회의 ‘큰숲운동’

1) 은혜의동산교회 - 생명체의 원리가 흐르는 분립개척 중심의 큰숲운동

은혜의 동산교회는 이규현이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첫 번째 교회로 화성시 남양에 개척된 지 16년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주일학교포함 1,700명이 출석하고 있다.

은혜의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특징은 생명체의 원리가 흐르는 분립개척 중심의 ‘큰숲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큰숲운동’이 드러나는 선명한 비전과 목회적 가치

은혜의동산교회의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안산동산교회의 3대 비전에³⁴⁰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더해진 4대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보혈의 능력으로 감격하는 예배, 주일 뿐 아니라 1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말하고 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 나가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시어미니장인장모학교(시장학교), 청소년감동캠프, 행복한부부세미나, 마더와이즈, 유아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는 전도, 선교,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전도와 선교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락방(셀)을 중심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340) 안산동산교회의 3대비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이다.

비전이다. 굿과트너즈(NGO)를³⁴¹ 중심으로 한글학교, 독거노인반찬배달, 이미용봉사, 다문화멘토사역, 새터민후원사업³⁴²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쳐 민족과 세계를 책임지는 리더로 세우는 것이다. 은혜의 동산교회는 교회학교를 세워 나감과 동시에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를 설립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³⁴³

그리고 은혜의동산교회는 8가지의 목회적 가치가 있다. 첫째는 ‘큰숲운동’이 낳은 교회, 둘째는 건강한 교회, 셋째는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 넷째는 남자가 행복해하는 교회, 다섯째는 지역 사회를 향해 열린 교회, 여섯째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일곱째는 세계를 품은 교회, 여덟째는 비전이 분명한 교회이다.³⁴⁴

이러한 은혜의동산교회의 비전과 목회적 가치 안에는 셀목회를 통한 ‘큰숲운동’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은혜의동산교회는 4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매우 강하게 보인다. 4대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예배, 가정, 도시, 다음세대(교육)’로 분석되어진다. 가정을 최초의 공동체로 여기고 세우는 것은 은혜의동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교회의 기능이 도시적인 기능에 다가서도록 NGO와 연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를 설립한 것은 안산동산교회가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한 것과 더불어 기독교교육을 위한 ‘큰숲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큰숲운동’의 모습은 교회의 목회적 가치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은혜의동산교회의 첫 번째 목회적 가치는 ‘큰숲운동’이 낳은 교회이다. 이것은 교회의 모토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가치를 통해서 ‘큰숲운동’이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41) 안산동산교회가 설립한 NGO.

342) 새터민은 북한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343) 은혜의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7grace.com/>, 2020년 2월 20일 접속.

344) 교회소개, 은혜의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7grace.com/>, 2020년 2월 20일 접속.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 소그룹 셀에 대한 균형과 세계를 품는 것까지 그 비전과 목회적 가치 안에 ‘큰숲운동’의 실천적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

(2) 3 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한 교회

은혜의동산교회는 현재까지 3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였다. 첫 번째 분립개척교회는 행복한동산교회로, 2014년 1월 1일 부목사로 있던 강재석을 파송하여 개척했다. 약 70명의 성도가 함께 분립개척에 동참하게 된다. 두 번째 분립개척교회는 맑은샘동산교회로 2015년 1월 1일 이병대를 파송하여 개척했다. 세 번째 분립개척교회는 하나숲동산교회로 2019년 1월 1일 조현준과 함께 성도 71명이 동참하여 분립개척했다.³⁴⁵

은혜의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들 중에서 제일 많은 개척을 이룬 교회이다. 이러한 분립개척은 담임목사의 의지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규현은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셀은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셀이라는 조직을 만든다고 셀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갱신되고 새로운 세포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때문에 셀이 나뉘지지 않고 멈추게 되는 순간에 세포는 커지고 비만이 되어버린다. 반면 나뉘지면 성장이 된다. 하나님 나라로 보면 교회는 세포이고 때문에 계속 분립해서 나뉘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기본 전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분립개척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질문이 안 된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되지 할까 말까는 질문 자체가 안 된다.”³⁴⁶

이규현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그런 그의 확고한 목회적 의지는 3개의 분립개척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은혜의동산교회를 개척하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의지이다. 그는 은혜의동산교회가 성지농원 과수원에서 개척되었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분립개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³⁴⁷

345) 교회연혁, 은혜의동산교회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7grace.com/>, 2020년 2월 20일 접속.

346) 이규현과의 인터뷰, 2020년 2월 20일, 은혜의동산교회 목양실.

347) Ibid.

(3)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의 일상화

은혜의동산교회에서의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한 생각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큰숲운동’의 정신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미 세 개의 분립 개척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이규현의 목회적 노력은 시종일관 한결 같다:

“처음 과수원에서 개척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분립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다. 제직세미나 때도 해마다 이야기하고 설교 때도 계속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나는 누구와 개척해야 하는가’하는 생각을 누구라도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직자들은 평생에 교회를 한번은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분립개척에 따라나설 때에 담임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한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 준다. 분립개척하고 난 이후에 두 번 교회를 지었다. 현재 또 수용한계를 넘었다. 그런데 이제는 1000명에서 1100명이 성도들의 최대치 목회 인원으로 결정해버렸다. 무조건 분립개척해서 내보낸다. 그 주기도 정했다. 2년에 한번씩 선교사를 파송하던지 교회를 개척하던지 하겠다고 교회가 결정해버렸다.”³⁴⁸

은혜의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상적인 일이며, 그들의 피부에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2년에 한번씩 분립개척을 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의지는 ‘큰숲운동’의 정신의 확고한 실현이다.

(4) 언제나 준비되어지는 분립개척과 다양한 시도

은혜의 동산교회는 언제라도 분립개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교회이다. 적어도 2년에 한번 분립개척을 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이다. 이러한 분립개척에 대한 준비는 분립개척의 다양성과 함께 준비되고 시도되고 있다.

은혜의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교회 자체적으로 개척한 3개의 교회 외에도 ‘큰숲운동’ 차원에서 타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일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것은 화성시 향남에 있는 ‘예수향남교회’의 개척을

348) Ibid.

도운 것이다.³⁴⁹ 향남교회는 안산동산교회 부목사 출신의 정갑신이 담임하는 교회로 그가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은혜의동산교회의 성도 20명을 향남에 파송하여 개척멤버로 돕게 했다. 향남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에 향남에 분립개척을 그쪽으로 이사 가는 성도들과 함께 시작하려는 중에 정갑신이 그곳에 개척하는 일에 지원하고 도운 것이다.³⁵⁰

이것은 ‘큰숲운동’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이다. 교회를 낳는 일이면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큰숲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것은 교회가 분립개척에 언제든지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여긴다.

이런 준비는 현재 은혜의동산교회 안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데, 분립개척의 다양성이 보인다. 그것은 2020년 연말에 파송될 4호교회로 교회 밖의 성도로 있는 가나안성도를 목회하는 분립개척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송 될 부목사의 비전에 따라서 준비되는 개척교회이다. 이런 면에서 은혜의동산교회는 개척의 문화나 개척의 방식이 고루하지 않고 매우 열려있는 교회이다. 이미 준비되고 있는 부목사는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주중에 몇 개의 도시의 가나안성도를 만나서 셀그룹을 만들고 사역 중에 있는데, 총 15명을 다섯 군대에서 만나서 성경공부와 기도와 교제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일정하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도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곳곳에서 예배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회는 향후 파송 후 5년간 사례와 사역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그 동안에 자립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협동목사로 있는 사역자 중에 책을 출간하고 강의와 상담사역을 주로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특성을 존중해주고 그 사역에 맞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³⁵¹

언제나 준비되어지는 분립개척과 그리고 다양한 분립개척을 시도하는 은혜의동산교회의 이런 배경 뒤에는 사역자를 뽑을 때부터 그 노력이 묻어난다. 이규현은 목사를 뽑을 때도 개척할 사람만 뽑는다고 한다. 가능하면 신학생 때에 뽑아서 분립개척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349) 예수향남교회는 2009년 7월 26일에 개척되었다.

350) 이규현과의 인터뷰.

351) *Ibids.*

한다. 이규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목사를 뽑을 때도 개척할 사람만 뽑는다. 가능하면 신학생 때에 뽑아서 도제식 교육을 한다. 형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도 어느 순간이 되면 개척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 이런 준비를 계속해서 하게 한다. 이게 생명체의 원리이다. 기본적으로는 성도들 마인드 안에 나도 누군가를 따라서 생명체의 원리를 따라서 개척한다는 의식이 다 있다. 셀모회를 하다가 보면 셀은 셀을 마을은 마을을 교회는 교회를 낳는 귀에 인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다.”³⁵²

이규현은 분립개척을 위한 사역자를 준비하는 일에 매우 목회적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 왜냐하면 개척자의 준비가 곧 개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준비와 더불어 성도들도 언제든지 개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분립개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정성과 균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5) ‘큰숲운동’의 자생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회

은혜의 동산교회는 목회적인 자생능력이 매우 강한 교회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규현은 이것을 생명체의 원리로 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생명체의 원리는 자생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 은혜의동산교회는 이런 자생적 능력과 생명체의 원리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회를 위에서 통제하지 않는다.

은혜의동산교회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는 한글학교를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속에서 매주 100명의 외국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네팔예배, 캄보디아예배, 베트남예배, 러시아예배 등이 생겨났다. 이 모든 과정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두 명의 여자 집사가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어교실이 시작되었고, 그들 스스로 운영비를 거두어 그들을 가르치고 도왔고 한국어교사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다. 이규현은 “조직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생명체의 원리가

352) Ibid.

아니다. 이걸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들 중에 네팔인을 섬기는 봉사자 한 명은 그들이 네팔에 돌아가도 직장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알고, 직접 네팔에 가서 자신의 사비로 한국식당을 차려주고 운영권을 주고 왔다고 한다.³⁵³ 모두가 자생적인 생명체의 원리에 의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이 만들어진 배경이기도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역의 방법이기도 하다. ‘큰숲운동’의 정신은 기계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것이고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생명체의 원리 속에는 강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혜의 동산교회는 ‘큰숲운동’의 생명력이 강한 교회이다.

이규현은 ‘큰숲운동’이 흐르는 이러한 은혜의동산교회를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 넘치는 교회’라고 표현한다.³⁵⁴

2) 기쁨의동산교회 - 공동체목회를 통한 자발적인 큰숲운동

기쁨의동산교회는 2006년 11월에 김광이를 통해 두 번째로 분립개척한 교회로 개척한지 15년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주일학교포함 1,3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1) 공동체목회에 의해 시작된 자발적인 분립개척과 ‘큰숲운동’

기쁨의동산교회는 분립개척한지 8년만인 2014년 12월 사랑의동산교회를 분립개척했고, 그 후 4년 뒤인 2018년 1월에 송산기쁨의동산교회를 분립개척했다. ‘큰숲운동’이 낳은 또 다른 ‘큰숲운동’의 실천이다. 기쁨의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자발적인 분립개척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 물론 기쁨의동산교회가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할 당시 안산동산교회의 구 예배당에 450명이 동참하게 되는 과감한 분립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사랑에 빛진 심정으로 분립개척의 비전을 처음부터 품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분립개척의 비전은 담임목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해서 봐야한다. 기쁨의동산교회는 교회의 부채가 정리되는 시점에 분립개척을

353) *Ibids.*

354) *Ibids.*

생각하였었지만, 자발적으로 신설된 비전헌금이라는 재정항목이 성도들의 논의 속에서 분립개척자금으로 사용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선정하는 것 역시 쉐의 순장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여기에 담임목사는 주도적이 아니라 품어주고 방향성만 설정해주는 역할만 감당했다.³⁵⁵ 분립개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이런 자발성은 스스로 강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 기쁨의동산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인 공동체목회가 실현되는 곳이다. 김광이는 사랑의동산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말했다:

“분립개척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많아 지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움켜쥐는 싸움을 포기하고 자신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동산교회 분립개척은 이 세상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가 아니라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분립개척이기 때문입니다.”³⁵⁶

김광이가 생각하는 분립개척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자신의 살을 찢어내는 것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본질의 회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공동체목회는 분립개척과 ‘큰숲운동’을 실현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여겨진다.

(2)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중심의 리더십

기쁨의동산교회의 공동체적인 목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속도와 규모보다는 더딤과 방향성에 가치와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목회이다. 그래서 기쁨의동산교회는 교회의 인위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담임목사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통한 사역의 전개를 철저하게 지양하는 교회이다.

김광이는 함께 하는 공동체목회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회자의 리더십이란 세련됨, 멋짐, 힘이라는 유혹을 벗고 십자가를 진다는 심정에서

355) “우리 시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13) 기쁨의동산교회”, 기독교신문, 2014년 9월 2일.

356) “사랑의동산교회 개척의 진정한 가치”, 기쁨의동산교회 2014년 12월 14일 주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조건 없이 품고 인정하는 아버지 마음을 비로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목회자가 먼저 설교대로 실천할 수 있고, 사람에게 대한 부담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³⁵⁷

김광이는 목회에 있어 ‘입’과 ‘어깨’의 힘을 최대한 빼고, 강한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이다. 과거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그는 엄청나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형 목회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힘을 빼고 공동체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과 마음을 셀목회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광이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을 잃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분란이 오게 됩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내려놓고 섬기고 자신을 부인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공동체적인 목회를 하게 만들게 된 것이다.³⁵⁸

공동체적인 목회의 약점은 더딘 것에 있다. 그러나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교회를 김광이는 말한다. 이러한 더딤의 리더십은 공동체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과 목회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기다릴 때에 나오는 공동체성은 기쁨의 동산교회의 분립개척과 ‘큰숲운동’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되어진다.

(3) 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움직이는 교회

기쁨의 동산교회의 공동체적 목회의 자발성은 셀이 공동체 목회의 중심에 서도록 만들었다. 셀목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론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 때문에 기쁨의동산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셀공동체의 자발적인 목회참여가 큰 특징을 이룬다.

357) “우리 시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13) 기쁨의동산교회”, 기독교신문.

358) Ibid.

기쁨의동산교회는 그 일환으로 셀에 재정권을 주었다. 셀 모임에서 드린 헌금의 전액은 각 셀에서 알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셀마다 대상을 선정하여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단기선교를 위해서, 문화교실을 위해서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직접 실행한다는 점이다. 국내외 선교지에 셀이 후원하면서 격년으로 국내의 미자립교회와 국내선교단체를 초청하는 ‘형제들의축제’와 국외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초청하는 ‘선교축제’의 주체도 셀이 주체한다. 매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와 어르신 중식 접대와 어르신 미용 봉사과 기쁨의 문화동아리 운영과 모든 것을 교회가 아니라 셀에서 감당하고 있다.³⁵⁹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볼 때에 기쁨의동산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중심에 셀이 있는 것이다.

3) 블루라이트처치 - ‘큰숲운동’을 갱신하는 ‘큰숲운동’

블루라이트처치는 2009년 5월에 안산동산교회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서울 홍대거리에 송창근을 통해서 분립개척된 세 번째 큰숲교회로 개척된 지 12년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홍대블루라이트교회는 230명이 출석하고 강남블루라이트교회는 120명이 출석하고 있다.

(1) 지역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은 미셔널처치

블루라이트처치는 서울 홍대 클럽 거리에 개척되었다. 20-30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회로서 술집을 뜯어서 카페교회를 만들고, 홍대 문화를 대표하는 상상마당의 라이브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개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사역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문화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상당히 과격적인 시도였다. 가족과 사역자를 포함해서 18명의 사람이 개척에 동참한 블루라이트교회는 홍대거리에 무수한 젊은이들과 유학생들과 이민 1.5세대들이 주요 대상이 되어, 셀과 예배, 다음 세대, 글로벌 시대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시작된 미셔널처치이다. 2011년 5월부터는 본격적인 홍대사역을 시작하면서 ‘구 떼아뜨르 추’ 소극장을

359) “또 하나의 ‘사과나무’ 기쁨의동산교회”, 국민일보, 2015년 4월 17일.

인수하여 주중에는 공연장으로 일요일에는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블루라이트 라이브홀(Bluelight Live Hall)’를 개관하였다. 송창근은 이곳에서 18명에서 개척을 시작하여 200명의 교회성장을 이루었다.³⁶⁰

송창근은 블루라이트 홍대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말한다:

“홍대블루라이트의 미셔널사역은 성공했다. 200명이 함께 예배했다. 공연장 운영하면서 주중에는 공연과 문화사역과 엔터테인먼트 운영하면서, 그 주변 아티스트들과 불신자와 공연문화사역자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인지도가 있었다. 교회를 운영했지만 교회의 집회는 공연장을 통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 아티스트들에게 대관을 싸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지원했기에 지역사회 관계에서 진짜 인지도가 있었고 좋은 소문이 났다. 이곳에 사역자와 가족들 빼면 안산동산교회성도 8명과 함께 가서 그게 힘들었다. 이곳은 전도되는 곳이 아니다. 수평이동도 불가능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장점이 되었다. 수평이동이나 다른 기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애초부터 불신자와 초신자와 안티기독교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전도했다. 그래서 200명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시킨 사람이 60%가 넘었다. 숫자로는 150명이 넘는다. 외부에서는 블루라이트 홍대교회가 특이한 교회로 보이겠지만, 홍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이다. 영혼구원을 위해 예수를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하는 것에 ‘오가닉처치(Organic Church)’ 스타일을 적용했다.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셀의 스타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유기적으로 양육하는 거다. 그리고 블루라이트 홍대교회의 사역도 교회가 세상이라는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교회의 공연장운영은 교회가 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을 교회가 들어가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블루라이트의 공연장을 교회가 하는 줄 다 알지만 그들의 삶에 다가설 때에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었다. 홍대 안에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다. 그런 의미에서 미셔널처치는 성공적이고 굉장히 완벽했다. 블루라이트 홍대교회의 사역은 완전 세상 선교지와 불신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선교사로 독립군처럼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건물을 짓기보다 세상 사람과 함께 한 것이다. 그렇게 교회 밖에서는 완벽하게 사회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공적운동을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불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포커스였다. 나의 지경은 여전히 목회이다. 우리는 불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만나고 양육한다. 주일에 한번 모이고 흩어지지만 주중에 끈끈한 셀모임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 블루라이트 홍대교회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코이노니아가 있고 교류가 있고 훈련이 있다.”³⁶¹

‘큰숲운동’으로 개척된 블루라이트교회 두 가지 차원에서 큰 격차를 뛰어넘었다. 첫째는 안산이라는 도시와 서울 홍대의 문화적인 격차이다. 홍대의 거리는 수많은 젊은 이들과 아티스트들이

360) History, 블루라이트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bluelightchurch.com/about-history>, 2020년 3월 2일 접속.

361) 송창근과의 인터뷰, 2020년 3월 3일, 블루라이트강남교회 목양실.

활동하는 곳이고, 안산은 거대한 공단과 함께 산업인력과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이다. 둘째는 ‘큰숲운동’의 지역적인 한계와 격차를 뛰어넘은 것이다. 매우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시도이다.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것은 문화적 격차가 있는 곳에 그것도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다. 블루라이트교회는 단순히 문화사역을 하러 들어간 교회가 아니다. 홍대거리를 그리고 그곳에 활동하는 젊은 세대가 있는 그곳을 선교지로 여기고 들어가 순수복음을 전하는 미션넬처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그는 “오지 않는 청년들을 잡아 끌기보다 젊은이들이 넘치는 곳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서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네 친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로마서 강해설교를 8개월 동안 했다. 그러는 동안 2010년 여름엔 110명까지 출석했다. 예배는 개방적이어도 ‘복음의 본질’이 살아 있다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한다.³⁶²

(2) 아버지의 마음으로 파격적인 리더십을 낳는 ‘큰숲운동’

블루라이트교회는 분립개척된 이후에 두 번의 걸쳐서 분립개척을 시도했다. 여러 과정속에 현재 블루라이트 홍대교회와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로 분립개척이 되어졌다. 현재의 교회의 모델에 앞서 블루라이트교회는 2012년 12월 서울 신촌에 또 다른 젊은이들을 위한 블루라이트교회인 ‘신촌랜드마크교회’를 분립개척했다. 이세일 부부 외 33명이 분립하고 신촌의 술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다. 그러던 중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를 2015년 1월 개척하게 되고, 신촌랜드마크교회와 블루라이트홍대교회는 함께 연합하게 되어 진다. 이 과정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에 블루라이트홍대교회와 강남교회를 운영하면서 송창근은 홍대교회에 그 리더십을 집중하고 강남교회는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섬기게 되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블루라이트강남교회가 60명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 블루라이트강남교회의 비중성과 비전을 생각하는 와중에, 블루라이트 홍대교회를 이세일에게 담임목사의 자리를 넘겨주고 분립개척시키는 파격적인 리더십을 단행한다. 두

362) “복음 ‘떼창’하는 공연장 교회, 노랑머리 목사님”, 조선일보 2013년 1월 4일.

교회 모두를 운영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과 블루라이트홍대교회를 개척했던 그 피나는 노력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만, 이세일을 세워 교회를 다시 독립해서 분립개척한다. 그리고 자신은 블루라이트강남교회를 재개척하는 심정으로 뛰어든다. 이것은 단순히 리더가 바뀌는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 왜냐하면 블루라이트홍대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우려 속에 초기에는 이세일을 블루라이트강남교회로 파송하고 본인은 블루라이트홍대교회를 그대로 맡으려고 하였다. 실제로 리더십이 바뀌면서 블루라이트홍대교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송창근은 이 과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도록 목회에 협력을 하게 되고, 다시 200명의 사람들로 채워진 이후에 완전히 독립시키고, 본인은 또 다시 시작된 개척의 현장인 블루라이트강남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때의 심정을 송창근은 ‘셀은 가족이다’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홍대블루라이트 200명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이제 정말 할 만했다. 그 고생을 했기에 고민하다가 내가 둘 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 양심이 안되더라. 내가 셀목회를 안 했으면 내가 두 교회 다 했을 것 같다. 나이 50세가 넘어서 다시 강남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홍대교회에서 너무 고생을 했다. 이런 고민의 시간이 있는 동안, 아내의 권면이 있었다. 어중간하게 두고 음흉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소리였다. 그래서 먼저 리더십을 분립해서 홍대교회에 세웠다. 그리고 분립하고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겠다고 생각했다. 분명 ‘셀은 가족이다’고 말했고, 이세일은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예 노회를 통해서 담임목사로 장치를 만들어버렸다. 블루라이트강남교회는 힘들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이다. 그리고 강남교회를 하려는 준비도 없었다. 거기에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셀을 가족이라고 했고 나 스스로 진짜 가족인지 나 자신을 시험했다. 그렇게 분립개척하고 리더십을 파격적으로 교체하고 내가 개척의 길을 다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현재 강남교회가 100명이 넘게 예배하게 되었다.”³⁶³

‘큰숲운동’의 정신은 리더가 리더를 낳는 것이다. 낳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쓰는 표현이다. 리더를 새롭게 세우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이고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셀이 가족이라는 그 능력이

363) 송창근과의 인터뷰.

블루라이트홍대교회에 리더를 세우는 것에 발휘되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는 또 다른 힘지로 분립개척을 시작한 것이 블루라이트강남교회이다.

(3)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은 블루라이트강남교회 분립개척

블루라이트강남교회의 개척은 또 다른 모험이다. 개척자체가 모험이지만 서울에서의 강남개척은 쉬운 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이란 곳은 개척을 아주 잘 하는 경우 10년 정도 되어야 100명 정도의 목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 평균적인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는 경우도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목회의 훈련을 받은 개척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이유는 강남에 사는 부류들의 특수성 때문인데, 강남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부자들이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촌 지역이다. 그런 강남에는 이미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강남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상적인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강남에 거주하는 자들의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가운데 접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님에 분명하다. 대상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대상에 대한 경험과 앎이 필요한데, 블루라이트홍대교회는 대부분 20-30대 젊은 세대들과 아티스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강남은 대부분 30대 이상의 결혼한 부부와 자녀를 둔 장년들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는 도전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송창근은 세대 간의 경계를 뛰어 넘어야 하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라는 지역의 사회 계층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야 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개척을 시도했고 3년 차에 1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과 함께 강남의 대상들 사이에 들어갔고, 그들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특성은 블루라이트홍대교회가 미셔널처치로 선교사의 심정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선교적인 노력과 도전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송창근은 블루라이트강남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남을 개척할 때에 강남을 잘 아는 목사님들의 조언이 있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 홍대블루라이트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립개척 시켜 주고 강남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런데 홍대 블루라이트는 경쟁자가 없었다. 독보적으로 사역을 내가 잘 했다. 그런데 강남은 경쟁자가 너무 많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래서 강남의 몇몇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니 강남목회는 다르다고 했다. 강남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용트림으로 될 곳이 아니라 이곳은 명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스타일이 필요하고 강남 사람들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목회적인 환경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강남 사람들은 설득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바로 목회대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와 목회의 환경을 홍대에 맞는 스타일에서 강남에 맞는 스타일로 변화를 시도했다. 또 한번 경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했다. 세대와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강남목회는 목회가 전통목회에 더 가까웠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해 본적이 없었는데, 시작하게 되었다. 더행복한교회에 사람을 파송해서 어린이사역의 대안이 되는 그 현장을 배워 와서 시도했다. 홍대블루라이트교회는 준비해서 시작했지만 강남블루라이트교회는 상황에 밀려서 시작되었고, 이 속에서 배워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는 강남에 와서 몸으로 강남을 알았다. 결국 문화였다. 이곳은 자녀들이 유학을 갔다는 것이 중요한 곳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 유학을 갔느냐가 중요한 곳이다.”³⁶⁴

블루라이트강남을 분립개척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분립개척은 대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과 개척이 모험심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송창근은 모험을 하지만 배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과 대상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분립개척은 쉽게 성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4) ‘큰숲운동’의 새로운 모델, 사역적 분립개척

송창근은 ‘큰숲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의 1기 모델은 안산동산교회와 그 가까운 지역사회에 주로 분립개척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홍대블루라이트와 본 연구자가 개척한 동탄동산교회는 제외되어진다. 지역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는 교회 개척을 넘어서는 새로운 ‘큰숲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송창근은 이렇게 말한다:

“미셔널처치로 가는 데에 블루라이트홍대교회의 방식은 보편화 할 수 없다. 홍대교회는 청년들과 공연문화사역의 그 특수성이 맞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편화 시킬 수는

364) Ibid.

없다. 블루라이트강남교회는 교회는 미셔널사역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를 감당하고, 강력한 미셔널사역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는 안정되고, 미셔널사역은 교회 밖에 집중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회는 센터로서의 안정성을 가지고 센터교회와 연결된 사람들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미셔널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그래서 강남블루라이트에서는 보편적교회이다. 그러나 보편적이면서도 미셔널스러운 라이프를 가지고 미셔널사역을 할 수 있게 한다. 우리 교회의 큰숲운동은 교회의 분립에 대해서 비전에 힘쓰는 것보다, 제일 많이 힘쓰는 것은 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밖의 선교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교회 밖의 사역에 재정과 시간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든 타 교회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동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안정성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일반교회와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업그레이드되어진다. 이게 사역적 분립개척이다. 우리 교회는 분립이 포커스가 아니고 교회 밖에 이는 사역기관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과 인력을 쏟아 붓고 그 사역을 분립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10%의 사람, 은사가 되는 사람이 이미 조인되었고, 밖에도 연결된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의 분립개척의 모델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사역 및 사역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역을 통해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준비했고, 교회 내부에 50%의 사역, 교회 밖의 사역인 한국교회와 셀사역과 세뫼세세미나 사역에 25%, 교회 밖의 사역적 분립개척을 통한 사역에 25%의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걸 인정했고 진행 중이다. 블루라이트강남교회는 다음시대에 큰숲운동의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 교회 분립을 넘어서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역적인 분립개척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분립운동을 실험한다.”³⁶⁵

송창근은 ‘큰숲운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그것은 ‘큰숲운동’을 교회의 분립개척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역적 분립개척’을 시도하고 있다.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밖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단체를 분립개척하는 것이다. ‘큰숲운동’의 분립개척이 교회의 분립개척을 통해서 교회가 직접 감당했던 미셔널한 사역들을 이제는 교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립개척한 기관과 여기에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후원하고 돕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5) ‘큰숲운동’의 확장

블루라이트교회의 개척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새로운 교회의 모델과 미셔널처치가

365) Ibid.

무엇인지에 대한 사역적 경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모델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 ‘큰숲운동’의 영향은 한국교회에 많이 미치게 되었다. ‘큰숲운동’의 정신이 큰 숲을 만든다는 것이고 함께하며 함께 돕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역적인 성공모델은 개교회의 부흥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러한 ‘큰숲운동’을 통한 교회의 모델은 ‘큰숲운동’을 좀 더 한국사회에 확장되도록 만들었다. 송창근은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의 경험을 RPM(Renewal, Pioneer, Mission) KOREA 대표로 있으면서 다양한 교파와 세대와 진영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회운동을 이끌면서 나누고 있다.³⁶⁶ 이러한 활동은 ‘세뛰세(세대를뛰어넘는세미나)’를 통해서도 그 경험치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큰숲운동’의 경험은 한국교회의 다양한 교회들을 만나게 이끌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큰숲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과 블루라이트교회의 경험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그것은 또 다른 교회 갱신운동차원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송창근은 교단이 다르고 교회의 크기가 달라도 건강하게 사역하며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했고 이것은 신학적인 에큐메니컬이 아니라 사역적인 에큐메니컬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⁶⁷

4) 더불어숲동산교회 - 급진적 제자공동체를 통해 선교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큰숲운동’
 더불어숲동산교회는 이도영을 통해 화성시 봉담에 2010년 5월에 분립개척된 네 번째 교회로 개척된 지 11년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주일학교포함 250명이 출석하고 있다.

(1)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는 비전에 매우 충실한 교회이다. 교회의 비전은 첫째는 한국 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366) Lead Pastor, 블루라이트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bluelightchurch.com/about-leadpastor>, 2020년 3월 2일 접속.

367)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열어 교류의 장 마련한 김인중·송창근 목사”, 국민일보, 2019년 6월 13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교회이다.

이도영은 전통교회의 영성인 제자양육과 내적치유와 쉼공동체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동시에 사회변혁 활동과 진보적인 사회참여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전통들을 통합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³⁶⁸ 이도영은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교회는 세속사회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라는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낳는다. 이런 고민 속에 더불어숲동산교회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갖게 됐다.”³⁶⁹

이도영은 한국교회가 개인의 영혼구원과 내세를 강조하는 구속신학에서 벗어나 전 우주적인 회복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변영과 탐욕의 영성을 버리고 겸손과 희생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져야 하며, 시스템과 지식의 인간능력중심에서 성령의 능력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추구되고 교통 될 때, 지역교회는 제도화된 조직으로 남아있지 않고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적 교회는 제도적인 조직을 넘어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는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를 버리고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 연합하는 공교회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사적이고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페어라이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사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한다.³⁷⁰

368) 더불어숲동산교회의 비전, 더불어숲동산교회 홈페이지 http://gf21.org/wp/?page_id=11618. 2020년 3월 2일 접속.

369) “경우의 수는 달라도 ‘교회 본질 회복’ 한마음”, 기독교신문, 2018년 6월 25일.

370) “선교적교회와 마을목회 모델 - 봉담 더불어숲동산교회”, 당당뉴스, 2018년 5월 23일.

이도영은 더불어숲동산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공교회성과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목회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셀그룹과 대그룹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개교회의 코이노니아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 함께 실현되어지는 비전이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개인의 구원론에 머물러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경쟁적 교회의 배타성이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것이 지역사회와 세상 앞에서 공공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더불어숲동산교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회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교회의 공공성회복과 공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차원에서 또다른 차원에서의 ‘큰숲운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큰 숲을 이루는 비전이 더불어숲동산교회에서 다른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1) NGO ‘더불어숲 페어라이프센터’를 통한 작은 마을 만들기

더불어숲동산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찾는 일이 빈번하다. 그것은 지역주민과 교회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개척 당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문화시설이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도영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꿈을 꾸었고, 지역의 필요를 교회가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개척초기부터 ‘작은 마을 만들기’를 사역의 키워드로 잡고 지역사회를 섬기다가 2011년에 작은 마을 만들기 NGO인 ‘더불어숲 페어라이프 센터’를 등록하게 되었다.³⁷¹ 더불어숲동산교회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도영은 “교회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의 것도 성도들이 헌금해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만의 것도 아니므로 쓸 수 있는 공공재로 활용해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³⁷²

371)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두 교회 이야기 - 더불어숲동산교회”, 국민일보, 2015년 11월 25일.

372) “교회인 듯 교회 아닌 듯 마을과 지역 품은 사랑방”, 한겨레신문 2017년 11월 14일.

이러한 정신은 더불어숲동산교회가 공간을 구성할 때에 그대로 반영되어진다. 봉담의 이원타운빌딩 10층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생태, 협동, 공유, 평화, 영성 등의 가치로 디자인된 공간으로, 공간의 절반은 예배당으로 절반은 카페와 어린이도서관과 마을 서재로 사용하고 있다.³⁷³ 더불어숲동산교회의 이러한 공간구성은 교회의 비전과 관련이 있다.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공공성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진단과 함께 교회가 세상 속에 성육신하는 것을 지향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만들기 운동이고 이것은 개척과 함께 실현되었다. 30-40대의 인구 비중이 높고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기에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했고 이것은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도서관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도서관에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마을 서재가 운영되고 마을의 공유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문학 콘서트와 다양한 지역주님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곳에 존재하는 카페도 교회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나라의 가치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공정무역 카페로 운영된다.³⁷⁴ 이러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도영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섬기지도 지역과 소통하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바로 동참하고 있는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가?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³⁷⁵

더불어숲동산교회는 마을과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교회는 마을 속에 존재하고, 마을은 교회속에 또 존재하여 더 좋은 마을로 변화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선교가 마을 안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더불어숲동산교회의 비전은 그 자체로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지역사회의 선교적 플랫폼이 되어 진다. 이것은 더불어숲동산교회라는 이름의 ‘더불어’라는 말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이 선교적인 플랫폼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고 공유하며 함께 마을을 만들어 가는

373) 사역, 더불어숲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f21.org/wp/?page_id=11618, 2020년 3월 3일 접속.

374) *Ibids.*

375) “지역과 함께 숨쉬는 공간, 더불어숲동산교회”, 문화선교리포트(문화선교연구원), 2019년 2월 2일.

것이다. 이것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정신을 뛰어넘어 더 발전적인 시도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현재 ‘더불어숲 페어라이프센터’를 통해서 공정무역 카페,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 마을 학교, 토요일의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공간공유, 강의와 워크숍 등의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³⁷⁶ 특별히 공정무역카페 ‘맑은샘’은 실제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로를 개척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무역 외에도 소비문화조차도 윤리적 소비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카페의 수익금은 팔레스타인 같은 분쟁지역에 평화도서관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고, ‘가자지구’의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숲 페어라이프 센터’의 다양한 활동들 중에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생태가치실현에도 힘쓰고 있고 재활용과 함께 업사이클링으로 폐자재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³⁷⁷

더불어숲동산교회는 지역을 섬기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교회 내부에 사회선교부를 만들었다. 사회선교부를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와 사회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³⁷⁸

(2) 또 다른 차원에서의 ‘큰숲운동’, 건강하고 작은 교회의 분립

2018년 1월에 더불어숲동산교회는 청장년 150명에 주일학생 100명이 출석하고 있을 때에, 부목사와 21명의 성도들을 화성시 상신지구에 ‘향남아름다운교회’를 분립개척하게 되었다. 교회의 비전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작은 교회의 분립’이다. ‘큰숲운동’의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을 실천한 것이다. 이도영은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76) 페어라이프, 더불어숲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f21.org/wp/?page_id=11509, 2020년 3월 3일 접속.

377)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아름다운동행(160호), 2013년 9월 16일.

378)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교회-이도영목사(더불어숲동산교회)”, 국민일보, 2019년 2월 22일.

“더불어숲동산교회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성도 수가 많은 대형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자기 것을 내어 놓는 유무상통의 코이노니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교제가 드러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그룹 운동에 열심을 내지만 작은 규모가 주는 공동체성은 거의 살리기 어렵다. 반면 대형교회는 큰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숲동산교회는 이런 점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을까? 대형교회가 감당하는 사역과 작은 교회의 공동체성 둘 다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분립개척과 개척된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 사역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록 개척교회 수준이지만 벌써부터 절기 헌금의 절반을 분립개척헌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교회 규모가 300여 명이 넘으면 분립개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개척된 교회들은 교회 예산의 10%를 공공기금으로 내어 연합사역을 통해 대형교회의 사역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 교회(ecclesia catholica, universal-church), 즉 공교회성을 지향하는 비전의 실천이기도 하다. 이런 공교회성 회복의 실천을 위해 절기헌금의 절반으로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겨왔고, 현재 지역 내 교회들의 연합 사역을 준비 중이다.”³⁷⁹

더불어숲동산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15명의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개척했다.

더불어숲동산교회가 개척될 때에 비해 ‘향남아름다운교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동참하게 된 것이긴 하나, 그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하고 작은 교회의 분립’이라는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비전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향남아름다운교회’의 분립개척에 더불어숲동산교회는 부목사의 사례비를 그대로 지급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중직자들과 리더들로 구성된 자들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건강성과 더불어 재정안정성을 고려한 파송이라고 할 수 있다.³⁸⁰

이러한 분립개척은 다른 분립교회들이 분립개척을 시작할 때에 안정성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기에 시도한 분립개척이다. 그리고 빠른 분립개척은 모교회의 재정과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립개척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선명한 비전과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절기헌금을 분립개척헌금으로 다년간 적립하여 분립개척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더불어숲동산교회의 ‘건강하고 작은 교회의 분립’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큰숲운동’의 발전이라고

379) 사역, 더불어숲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f21.org/wp/?page_id=11618, 2020년 3월 3일 접속.

380) 더숲이야기, 더불어숲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f21.org/wp/?page_id=12205&paged=6, 2020년 3월 3일 접속.

볼 수 있다. 이도영은 ‘큰숲운동’과 교회의 분립개척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불어숲동산교회의 비전이 공공성과 공교회성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실천성을 아우르는 것이 급진적 제자 공동체이다. 그런 비전으로 했으니 아무래도 순수하게 큰숲운동과는 맥락이 접근의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큰숲운동과의 연속상에서 판단을 할 때에, 분립개척이라는 비전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맞물린다. 분립개척을 하는 것은 큰숲운동과의 연속성이고, 개척의 이유가 우리의 추구하는 비전과 맞물리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서 개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은 큰숲운동이라는 연속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이다. 교회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고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고민하면 교회의 규모도 고민하게 된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공동체성의 대립이 있고,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분립개척밖에 없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규모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흩어져서 진짜 공동체성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큰숲운동의 분립개척도 이런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지역성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지역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잘 없다. 분립개척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에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성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각자 그 지역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이 두 가지를 위해 분립개척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³⁸¹

더불어숲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큰숲운동’과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큰숲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분립개척이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위한 분립개척이라는 것이다. 더불어숲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맞물려 있다. 교회의 성장보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 중요하고,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공동체성에 종속되도록 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깨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교회와는 접근이 다르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도영은 300명을 기준으로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의 분립’을 시도하고 있다.

381) 이도영과의 인터뷰, 2020년 3월 4일, 더불어숲동산교회 목양실.

(3)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행복파티’

보통 교회의 복음전도는 십자가의 복음 전파와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도는 대각성전도 집회나 다양한 방식의 초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통해서 결신을 맺게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다. 이러한 전도는 개교회성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개인구원론에 치중된 것이다. 더불어숲동산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미셔널처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복파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교회의 전도는 기본적으로 셀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페어라이프센터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과 더불어 1년에 두 차례 행복파티를 하는데, 봄에는 전체가 함께하는 행복파티이고 가을에는 셀 별로 진행되어지는 행복파티이다. 이 ‘행복파티’는 결신이나 교회의 등록이 목적이 아니다. 이도영은 ‘행복파티’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이도영은 전도와 ‘행복파티’에 대한 철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교회라는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삶의 일상이고 방식이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전도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전도를 돕는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접촉점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파티가 열린다. 행복파티는 바로 복음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당장의 전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강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교회에 채우느냐는 개교회적 접근보다,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의 과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굉장히 고민이 들어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물론 영혼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차원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은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모습을 세우고 보여주는 것이 동반되는 전도가 필요하다.”³⁸²

더불어숲동산교회는 전도의 필요성과 더불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고 있다.

382) Ibid.

한국교회가 개교회의 성장과 함께 개인구원에 대한 접근이 강했다면, 더불어숲동산교회는 교회의 공공성과 더불어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경험시키고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전도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공간이고 행복파티도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생각이 더욱더 열리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5) 회복의동산교회 - 셀의 생명력으로 개인에서 도시와 열방까지 회복시키는 ‘큰숲운동’

회복의동산교회는 이득진을 통해 안산 선부동에 2011년 6월에 분립개척된 다섯 번째 교회로 개척된 지 10년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주일학교포함 20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1) 말씀과 기도 중심의 셀의 생명력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큰숲운동’

회복의 동산교회는 셀의 생명력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를 충실하게 추구하는 교회이다.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셀 사역까지 다가서는 통합적이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교회이다. 이득진은 회복의 동산교회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의 동산교회는 셀의 생명력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를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셀 사역까지 통합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비전은 셀의 5대 관계인 하나님, 자신, 가정, 교회, 세상과 셀의 5대 요소인 예배, 교육, 교제, 공동체, 사명을 조합하여 5대 비전을 만들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예배 회복), 자기 정체성 회복(교육의 회복), 가족과의 회복(교제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교회의 회복), 세상과의 회복(사명의 회복)이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족과 공동체와 지역을 회복하는 교회이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중심하고 있다.”³⁸³

회복의동산교회는 말씀과 기도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회복의동산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383) 이득진과의 인터뷰, 2020년 2월 20일, 회복의동산교회 목양실.

성도들이 제사장 사역과 성전 된 교회의 사역을 바로 깨닫고 실천함으로, 세상을 축복하여 개인과 가정과 안산지역과 열방(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회복시키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이다.³⁸⁴

회복의동산교회의 목회와 사역의 관점은 ‘회복’이라는 말로 집약되어진다. 그리고 그 회복의 대상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과 열방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셀을 통해서 살아내는 삶을 기초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삶을 기반한 실천은 다른 교회들과 네트워크하고 도시와도 네트워크하는 TK(Transformation Korea)를 형성하여 그 생명력을 나누고 있다. 그것의 실천은 정기적인 스쿨인 TS(Transformation School)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TK는 지역과 영역의 변혁을 추구한다. 지역의 변혁은 개인과 교회가, 영역의 변혁은 직장과 도시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변혁을 이르는 목적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력은 바로 셀의 DNA이다. 때문에 셀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다. TS는 지역과 영역의 변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위한 세미나이고, TS를 통해서 도시와 영역에 대한 영적변화를 위한 중보기도가 실행되어진다. 2017년부터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TS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고, 모든 지역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워져 도시와 지역과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도사역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제사장 성막기도 세미나’를 통해서도 실천되었다.³⁸⁵ 회복의동산교회는 제사장적 성막기도를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것을 배우며, 온 세상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이러한 노력은 안산 지역교회의 연합으로 1년 52주간을 릴레이로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를 출범하게 되었고, 개인이나 개별 교회의 차원이 아닌 단일 도시의 연합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득진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연합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득진은

384) 목적과 비전, 회복의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red21.org/html/info03.php>, 2020년 3월 1일 접속.

385) 행사, 회복의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red21.org/bbs/board.php?bo_table=Event, 2020년 3월 1일 접속.

연합기도 운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엔진이 필요함을 절감하다가 느헤미야52 기도를 만났다. 기도집회가 지역성을 고려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조금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느낀다. 안산은 선교적 도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여 선교가 성취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산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³⁸⁶

회복의동산교회의 제사장 기도는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제사장기도를 통해서 매일 3번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진행하고 있다.³⁸⁷ 새벽5시 30분, 오전10-12시, 오후8-10시 다니엘이 하루 세번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본당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24-7기도’ 사역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24시간 7일동안 365일 내내 하는 릴레이 기도이다. 이득진은 기도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와 같이, 또한 다윗 왕이 성막에서 매일 찬양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중보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주일의 7일 동안 매일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러한 ‘24-7기도’는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찬양과 경배와 중보기도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기도를 맹렬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것을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³⁸⁸

회복의동산교회는 기도사역을 위한 기도의 집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적인 ‘큰숲운동’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득진은 이것이 교회에서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이 일을 진행한다면 반쪽이다. 가장 큰 본질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386) “안산 지역교회 연합, 52주 기도 릴레이 ‘출발’”, 복음기도신문, 2011월 8월 22일.

387) 제사장기도는 ‘축복의기도, 쉼바기도, 그날의 기도, 주기도문, 왕의기도’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진다.

388) 기도의집소개, 회복의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red21.org/html/24_7.php, 2020년 3월 1일 접속.

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점검과 훈련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각 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셀에서 양육과 예배와 치유와 전도와 세상 변혁까지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대그룹에서는 각 개인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면하며, 실제적인 삶은 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TS 세미나는 이와 같은 개념과 실재를 훈련하여 본인의 삶과 직장에서 살아내도록 돕고 있으며,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안산지역은 선교적 도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100개 나라가 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산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주민교회와 지역교회를 돕고 있다. 또한 이 일에 함께하는 대만과 일본과도 연결해서 한중일의 연합도 이루어 가고 있다. 회복의 동산교회는 셀의 생명력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직장, 도시와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또 다른 모델로 ‘큰숲운동’을 실현하고 있다.”³⁸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회복의동산교회는 기도의 능력에 굉장한 힘이 실린 교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셀의 생명력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큰숲운동’이 셀목회를 통해 셀의 비전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회복의동산교회는 셀을 통해서 개인과 직장과 도시와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성취하는 교회이다.

(2) 강한 DNA 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LTG 셀

회복의동산교회의 셀은 LTG(Life Transformation Group) 셀이다. LTG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으로 닐콜이 쓴 책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된 셀의 형태이다. 닐콜은 자신의 교회에서 LTG를 적용한 결과 7백 개의 소그룹으로 번식한 성장을 경험했다. 그리고 안산동산교회의 셀의 비전과 ‘큰숲운동’의 기폭제가 된 인도네시아 아바러브교회에서 1년에 LTG 한

389) 이득진과의 인터뷰, 2020년 2월 20일, 회복의동산교회 목양실.

그룹이 1천 2백 개의 소그룹으로 번식한 적이 있는 소그룹의 형태이다.

이득진은 “회복의동산교회의 LTG는 서로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자 하는 서너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비신자가 회심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그러므로 셀은 지역중심이 아니라 관계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말한다.³⁹⁰ 회복의동산교회가 LTG셀을 하는 이유는 관계를 통해 유대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좀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이며 동시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실현하는 모임의 단위인 것이다.

이득진은 교회의 기본단위인 셀의 단위에 건강한 생명과 번식을 이루는 DNA가 주입되면 하나님 나라 전체에 큰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한다.³⁹¹ 교회의 기본단위인 셀에 건강한 생명과 번식을 이루는 DNA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셀 안에서의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셀의 영적인 DNA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세포의 힘과 생명력과 번식력을 유지하는데, Divine Truth(신성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Nurturing Relationship(양육적 관계)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둘째 계명과 Apostolic Mission(보냄 받은 사도적 명령)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는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³⁹² Divine Truth(신성한 진리)의 실제적인 일환으로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고 있다. Nurturing Relationship(양육적 관계)은 철저하게 일대일, 혹은 이대 일로 양육관계가 형성되어 초대교회의 원리가 전달과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Apostolic Mission은 각 개인의 속사람의 성장을 통해 본인들의 운명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득진은 “셀교회에서는 셀의 번식에 초점을 맞춰왔다.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이런

390) *Ibids.*

391) LTG & Cell, 회복의동산교회 홈페이지 http://www.red21.org/html/ltg_cell.php, 2020년 3월 1일 접속.

392) 영적 DNA, 회복의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red21.org/html/dna.php>, 2020년 3월 1일 접속.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번식을 이루려면 더 깊은 단계, 즉 셀의 생명력인 DNA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DNA 위에 셀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³⁹³ 그런 의미에서 LTG는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LTG는 재생산성의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단순한 셀모임의 단위는 셀공동체를 쉽게 배가하는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삶을 간증하며 고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LTG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성과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복음의빛동산교회 - 셀중심적인 전도와 선교가 실행되는 ‘큰숲운동’

은혜의 동산교회는 나희석이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여섯 번째 교회로 2014년 3월에 수원 호매실에 개척되어, 7년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주일학교포함 250명이 출석하고 있다.

(1) 셀목회의 또 다른 이름 ‘패밀리’

복음의빛동산교회의 셀의 또 다른 이름은 ‘패밀리(Family)’이다. 셀을 ‘패밀리’로 부른다는 것 자체에서 ‘셀은 가족이다’는 안산동산교회의 8가지 셀교회의 핵심가치 중에 하나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가족으로서의 속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대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시되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가족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이고 셀이다. 복음의빛동산교회는 그러한 셀이 가지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속성을 반영하여 ‘패밀리’라는 또 다른 셀의 이름을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셀목회가 공동체의 가족됨을 강조하고 있다. 나희석은 수원의 호매실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셀의 이름을 ‘패밀리’로 만들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호매실은 30-40대가 80%인 젊은 도시인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세대들이 30-40대들이다. 6년전 개척할 때에 들은 충격적 이야기는 10년 전에 장년 700명 모이고 400명 모인 교회가 5년이 지나면서 400명으로 100명으로 줄었고, 주일학교도 반 이상 다 줄었다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30-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자녀들도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393) 이득진과의 인터뷰, 2020년 2월 20일, 회복의동산교회 목양실.

예전에는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면 자녀들이 교회를 나왔지만, 이제는 부모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30-40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소그룹을 셀이라고 하지 않고 ‘패밀리’라고 하게 되었다. 셀의 핵심과 DNA를 가지고 있지만 셀을 통해서 가족공동체를 성취하고자 한 것이다. 그 핵심은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생교육은 형이 시키고 아버지가 되는 법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남자가 기능이 무엇인지 여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리더가 무엇인지 모두 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문제는 다 사교육과 학교에서 떠넘겨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셀소그룹인 ‘패밀리’안에서 양육과 교육과 관계와 사역이 통합되어지도록 하고자 했다. 셀이라는 것은 관계지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가족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다. 끝없이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패밀리’를 통해서 실천한다. 그 속에서 양육도 사역도 관계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리더가 리더를 낳는 것이다.”³⁹⁴

복음의빛동산교회의 셀목회는 ‘패밀리’ 중심적인 셀목회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녀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관계와 성장과 사역과 리더십과 모든 것이 셀공동체인 ‘패밀리’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셀중심적인 전도와 선교

복음의빛동산교회의 비전은 3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둘째, ‘세상 속의 보석이 되는 교회’, 셋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전은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적인 비전을 추구한다.³⁹⁵ 나희석은 “성도 누구에게 라도 교회의 비전을 물으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는 소그룹 셀인 ‘패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감당한다. 셀은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러한 공동체성으로 모든 세대가 주께 돌아오는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담당하는 것이다.”고 말한다고 한다.

복음의빛동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숲운동’의 정신은 ‘패밀리’를 통한 셀중심적인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94) 나희석과의 인터뷰, 2020년 2월 18일, 복음의빛동산교회 목양실.

395) ‘교회비전’, 복음의빛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lc21.com/>, 2020년 2월 22일 접속.

복음의빛동산교회는 셀의 전도적 기능이 매우 강한 교회이다. 그것은 교회의 양육시스템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보통 셀교회의 양육은 4단계로 많이 진행되어지고, 그것은 안산동산교회의 셀양육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복음의빛동산교회의 양육은 3단계로 간소화되어 있고, 3단계 양육의 핵심이 영혼구원에 초점을 만드는 전도에 있다. 1단계에서 새가족을 공부한 사람은 2단계 BCC(Bible reading Confession Convert)를 통해서 피후견인으로 양육 받되 후견인의 섬김과 관계를 통해서 신앙적의 기본적인 양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기도와 섬김을 받으면 내적치유수양회를 하게 된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3단계 양육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CAKE(Come Ask Know Enjoy)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관계전도와 전도파티에 초대하는 과정 속에 경험해야 할 모든 사역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진다.³⁹⁶ 복음의빛동산교회의 CAKE은 새가족을 초대하는 교회적인 프로그램이다. CAKE은 교회가 대그룹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패밀리’안에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CAKE의 모든 준비과정도 ‘패밀리’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되어진다.

복음의빛동산교회의 양육은 영혼구원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양육의 단계를 3단계로 짧게 줄인 이유도 전도를 체질화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결실을 맺고 있다. 나희석은 영혼구원을 위한 이러한 노력과 결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계전도를 통한 CAKE에는 초신자와 불신자가 많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지만, 주일예배를 드리면 CAKE을 통해 전도된 불신자 많다. 40-60대의 불신자가 작년에 12명이 세례를 받았다. 개척 2년까지는 개척 초기이고 신도시의 특성상 수평이동이 많았지만, 3년차 때부터는 불신자들이 CAKE을 통해서 많이 전도되었다. 수평이동보다 불신자의 교회 등록과 정착율이 더 높다. 셀의 비전을 가지고 ‘패밀리’에서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전도할 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교회에 수평이동이 별로 없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중심적인 체질을 만드는 CAKE 양육은 실제적인 양향을 발휘하고 있다. 때문에 셀도 전도를 위한 기능이 강하다. 셀의 방향 자체가 전도중심적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뚫고

396) ‘양육과 교육’, 복음의빛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lc21.com/>, 2020년 2월 22일 접속.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 때문에 양육이 길지는 않지만 기본기가 강하다.”³⁹⁷

이러한 셀중심적인 전도는 선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선교도 각 ‘패밀리’마다 직접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직접 후원한다. 몇 개의 패밀리가 한 공동체로 되어 있는 ‘마을’이 각 나라와 선교지를 책임지고 선교를 하는 형태이다. ‘패밀리’가 모일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선교도 패밀리가 직접 준비해서 동참하는 것이다. 때문에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패밀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형태이다.³⁹⁸ 현재 4개의 마을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몽족 공동체와 터키의 아프칸난민교회 두 곳을 집중해서 돕고 있다.³⁹⁹ 이들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1년에 5천 만원을 헌금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선교에 힘을 쓰는데, 아프칸난민교회에 가정교회 지도자를 파송했고 쿠르드난민이 모이는 가정교회에 사역자를 세워서 무슬림 난민을 위한 가정교회를 입양했다.⁴⁰⁰

(3) 분립개척과 지구촌 ‘큰숲운동’

복음의빛동산교회는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에 대한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것과 지구촌 ‘큰숲운동’을 위한 해외선교사 파송이다. ‘큰숲운동’을 통해 분립개척에 대한 교회의 계획은 장년 500명 출석시에 성도의 10%와 예산의 10%를 지원하는 십일조분립개척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10%와 사람의 10%를 지구촌 선교와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⁴⁰¹ 500명의 10분의 1이라는 개념과 10%의 재정적인 헌신은 개척의 안정성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안산동산교회의 개척경험을 미루어 볼 때에 평균 분립개척시에 동참하는 장년의 숫자는 50명 전후이다. 이것이 개척 초기에 든든한

397) 나희석과의 인터뷰.

398) *Ibids.*

399) 복음의빛동산교회 2020년 2월 16일 주보 참조.

400) 나희석과의 인터뷰.

401) *Ibids.*

버팀목이 되어서 모든 교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복음의빛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적 비전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교회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은 ‘패밀리’를 통해서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셀의 공동체성과 셀의 비전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장해나가는 ‘큰숲운동’의 분립개척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분립개척을 위한 모험과 야성

복음의빛동산교회는 2014년 4월에 파송받고 그 해 11월까지 예배처소가 불일정한 개척을 하게 되었다. 호매실의 시골 농토 옆에 교회 부지를 얻고 교회를 바로 건축하며 개척이 시작되었다. 그러는 동안 자금의 부족으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이 있었고, 예배처소가 불명확한 개척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지하의 로고스홀을 빌려서 새벽기도회를 드렸고, 주일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게 된다. 주중의 모임은 개척자의 집에서 다양한 처소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다. 개척할 곳은 수원이지만 개척이 시작된 것은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교회의 지하실이였다. 그러던 중 로고스홀마저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11월 중순 교회를 건축 중인 공사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호매실 개척에 들어가게 되었다.⁴⁰²

비록 장소는 부족했으나 이것은 개척의 야성을 회복을 갖게 되는 시간이라고 평가되어진다.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복음의빛동산교회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지 않는다. 대부분 예배의 처소가 잘 준비가 됨과 동시에 파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빛동산교회의 경험은 성도들에게 70년대에 천막을 치고 개척했던 시절의 경험과 야성을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개척정신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러한 정신은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한 야성을 담아내는 강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이러한 야성은 지구촌큰숲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도 없는 무슬림의 나라의 무슬림선교를 실천하는 야성과 맥이 상통하기도

402) *Ibids.*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개발된 큰 축복은 ‘큰숲운동’의 정신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고, 건물보다 셀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개척하는 것이기에, 이 시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것처럼, 개척자의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불편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동안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불편한 환경 때문에 공동체를 이탈할 지 모르는 지체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된 것이다. 영혼구원을 위한 교회의 비전을 외치기 이전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훈련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언제나 교회는 사람이 먼저이고 공동체가 먼저이다. 이것이 ‘큰숲운동’의 정신이다.

7) 그린시티교회 - 행복한 셀라이프가 흐르는 ‘큰숲운동’

그린시티교회는 2015년 1월에 조성의를 통해 개척한 일곱 번째 교회로 화성의 신도시 송산그린시티에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개척되어 6년차 접어들었다. 초기는 안산에 개척하였다가 2019년 교회를 완공하여 입당을 하였다. 현재 주일학교포함해서 500명이 출석하고 있다.

(1) 셀라이프가 흐르게 하는 행복한 공동체

셀교회는 비전이 매우 강하다. ‘리더가 리더를 낳고, 셀이 셀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는 셀의 비전 자체가 매우 강한 스피릿을 낳는다. 그러나 비전과 스피릿은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목회 현장의 생태계를 무시할 수도 있다. 때문에 셀교회에서는 셀의 라이프스타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셀교회 공동체는 리더와 셀과 교회가 셀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셀의 비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린시티교회는 그런 면에서 셀라이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이다. 조성의는 개척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움직이는 셀라이프를 목회 안에 녹여 내리고 흐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셀라이프와 셀스피릿이 같이 있어야 셀이 될 수 있다. 셀스피릿만 있으면 돌진하고 성장도 하는데 매우 건조하다. 반면에 셀라이프만 있으면 따뜻하고 화기애애하지만, 자기들끼리 만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방식은 셀라이프를 만들고 셀라이프가

형성되었을 때에 스피릿을 집어넣는 것이다. 부활한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고 스스로 조반을 차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사명주고 십자가도 주시고 비전도 지게 하셨다. 셀라이프와 셀스피릿이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셀라이프가 먼저이다.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 공동체는 셀라이프가 무너지고, 셀스피릿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비전이 있어도 성도들이 그 속에서 녹여 내려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숫자로 만족하게 된다. 이게 유익함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셀라이프를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매우 허용적이다. 강요가 없다. 셀공동체에 나오는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셀라이프가 흘러가면 함께 하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셀라이프에 합류하도록 한다. 그렇게 했더니 스스로 셀스피릿이 흘러갔다. 자기 시간과 자기의 것을 조정해서 셀의 비전에 다가서더라. 교회가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셀라이프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면, 그 후에 시간도 재정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고 왔다.”⁴⁰³

그린시티교회는 셀라이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가지이다. 그것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위해서이다.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느리더라도 셀라이프가 되는 교회를 꿈꾼다. 이것은 성장지향주의를 꿈꾸는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성의의 목회적인 노력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목회자가 셀라이프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는 “셀라이프는 행복함이다.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교회, 이것이 추구하는 목회의 중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한다.⁴⁰⁴ 셀도 만남이고 교회도 만남이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가 전제된 만남이다. 이 공동체적인 만남은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이 흐르는 행복한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셀라이프는 교회의 비전에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린시티교회는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둘째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 셋째는 교회를 확산시키는 교회이다. 이 비전을 조성의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며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3) 조성의와 인터뷰, 2020년 2월 19일, 그린시티교회목양실.

404) *Ibids.*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주안에서 형제 된 이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던 꿈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⁴⁰⁵

그린시티교회는 교회의 모든 비전을 셀라이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이다. 그리고 셀라이프는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만들어 낸다. 결국 셀라이프가 흐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비전이고, 그러한 공동체의 능력으로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이다.

(2) 프로젝트 통한 전략중심적 ‘큰숲운동’의 실천

그린시티교회는 ‘큰숲운동’의 정신이 교회의 프로젝트에 녹아져 있다. 프로젝트는 4개로 구성 되어있다.

첫째, 레드컬프로젝트이다. 레드컬프로젝트는 북음으로 핍박받는 나라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린시티교회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한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국 외국인을 파송한다. 현재 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현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레드컬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그린시티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중국의 가정교회를 두 주간 탐방하게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만든 프로젝트이다. 레드컬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성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개척 전에 중국 가정교회 두 주간 탐방했다. 가정교회에 청년 사역자 한 명이 36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36개의 교회를 돌보는 것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겼다. 그곳에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들의 형편이 한국의 70년대 수준인 것을 보면서 태양광목욕시설을 지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불행하더냐? 내게 예배하는 교회가 없어서 불행하지 않더냐?”는 마음의 음성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고 서원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역이다.”⁴⁰⁶

405) 그린시티교회 비전, 그린시티교회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greencitychurch.org/>, 2020년 2월 23일 접속.

406) 조성의와의 인터뷰.

둘째, 프랜즈프로젝트이다. 프랜즈프로젝트는 이러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역파송하는 사역이다. 이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친구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켜서 소명을 점검한 이후에 각자의 나라에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사역이다. 이것은 해마다 부활절에 파송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랜즈프로젝트가 가능한 환경적 이유는 그린시티교회가 안산과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안산 원곡동은 우리나라의 최대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역파송의 인재들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린시티교회의 이러한 프랜즈프로젝트는 안산 원곡동에 붙어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개척하도록 만들었다. 조성의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곡동에는 영어권 예배가 많고, 또 각 나라에 맞는 특화된 예배가 많다.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붙어권 예배이다. 붙어권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로 있던 서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사람들도 적다. 원곡동 통틀어 60명이 안 된다. 영어예배를 가는데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붙어예배는 손에 꼽히고 거기에 흑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던 중에 코티드부아르에서 온 난민 자매를 만났는데, 그 나라에서 전도사를 9년간 했다. 붙어예배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자매가 500만원을 헌금을 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으로 체감되는 돈이다. 그리고 교인 중에 500만원 헌금해서 예배 공간을 얻었다. 추수감사주일에 헌금은 전액 신앙적 정치적 경제적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2천 만원을 들여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모든 장비를 풀세팅 해주었다. 이러한 프랜즈프로젝트를 통해서 역파송되는 선교사는 한국인선교사가 문화가 다른 나라에 파송되는 것과는 달리 언어훈련이나 자녀교육이나 생활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효과가 높다. 대신에 그들과의 셀라이프가 되어 야만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⁴⁰⁷

셋째, 핸즈프로젝트이다. 핸즈프로젝트는 장학사역으로 극빈자와 신학생과 목회자와 개척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를 돕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큰숲운동’의 신학생과 목회자나 개척교회 목회자와 자녀를 돕는다는 것은 ‘큰숲운동’의 실천 중에 하나이다. 지역의 교회들과 네트워크하고 돕는 것은 ‘큰숲운동’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핸즈프로젝트는 엘리야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광야로 도망하여 로렘나무에서 자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에서 착안된 프로젝트이다. 이것을 위해서 ‘통통통마켓’이라는 바자회를 운영을 한다. 통용하므로 소통하고

407) Ibid.

형통하게 하는 마켓이라는 의미이다.⁴⁰⁸ 자기의 물건은 기부하고 자기의 재정으로 다른 물건을 사가는 기부형마켓이다.

넷째, 그린케어프로젝트이다. 그린케어프로젝트는 상대적 빈곤층을 돕는 일이다. 갑작스러운 실업, 대학을 합격했지만 입학금이 없는 경우 등 절대적 빈곤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이다. 그린시티교회는 교회 예산의 3%를 그린케어프로젝트에 사용한다. 상대적 빈곤자는 조금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면 다시 제기할 수 있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된다고 조성의는 말한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 공동체적인 기능을 한 것에 다가선 프로젝트이다. 그 예를 조성의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에 어떤 가정의 아이가 유치원 원비를 내지 못해서 유치원 졸업을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졸업을 돕기 위해서 120만원 보내서, 유치원 원비와 초등학교 신학기 1학년 입학준비를 도왔다. 용기를 내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혼자 사는데 보험설계사로 살아가는데 생계가 잘 되지 않아서 죽고 싶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기동성을 돕기 위해서 기름값 명목으로 재정을 후원했다. 그런데 열매가 있다. 현재 십일조를 70만원씩 한다. 절대 빈곤자는 교회에 없지만 상대빈곤자는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때는 도와주어야 한다.”⁴⁰⁹

이상에서 살핀 그린시티교회의 4대 프로젝트는 대상이 명확한 전략적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린시티교회는 셀라이프가 강하지만 프로젝트도 강하다. 이 둘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교회이다. 셀라이프가 강한교회는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에 공동체적인 셀라이프가 어렵지 않게 작동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원활하게 실천하게 되어 진다.

(3) 물리적 분립을 통해 교회를 확산하는 ‘큰숲운동’의 비전

그린시티교회는 비전을 도달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강한 교회이다. 위에서 본 프로젝트도 명확한 대상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세세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큰숲운동’을 통한

408) Ibid.

409) Ibid.

분립개척에 대한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세한 면을 보게 되어 진다. 그린시티교회의 비전에는 ‘교회를 확산시키는 교회’의 비전이 있다. 조성의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분립개척이지만, 그린시티교회는 셀라이프와 셀스피릿이 잘 흐르는 교회를 만드는 중에 교회를 물리적으로 분립하여 분립개척의 안정성을 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도 1천명이 되었을 때에 성도의 10%인 100명과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여 분립개척하는 것이다. 조성의는 분립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기댈 수 있는 확실한 언덕이 필요하다. 분립개척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자고 할 때에 정서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이 가라고 하면 많이 가지 않는다. 안산동산교회처럼 1만 명이 넘는 교회는 1%만 모여도 100명이 된다. 그러나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한 우리가 하려면,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결합된 사람이 가라고 하면 몇 명 갈 수가 없다. 때문에 물리적 결합이 필연적이다. 그린시티교회는 향후 3년 안에 천명이 될 것 같다. 그때에 지역을 정하고 100명을 물리적 분립개척하려고 한다. 큰숲운동은 계속해서 하고 싶다. 그린시티교회를 세울 때에 비전 하나가 ‘교회를 확산시키는 교회’인데, 큰숲운동을 말한 것이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큰숲운동 비전에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는 큰숲운동을 통해 분립개척을 하면서 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분립개척한 이후에는 교회와 교집합을 만들어 셀라이프를 흐르도록 돕고 싶다.”⁴¹⁰

그린시티교회는 ‘큰숲운동’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철학은 분명하다. 교회의 이러한 의지와 철학은 전략적 사고를 통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드러난다. 직접 분립개척을 했던 경험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할지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8) THE 행복한 STAGE – 교회속에 교회를 세우고 도시속에 교회를 세우는 ‘큰숲운동’

THE 행복한STAGE(더행복한교회)는 2015년 7월 손병세가 파송받아 안산시 단원구에 세워진 여덟 번째 분립개척교회로 개척한지 6년차가 된 교회이다. 현재 30-40대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로 주일학교 포함해서 350명이 출석하고 있다.

410) Ibid.

(1) 도시 속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더행복한교회는 교회의 다양성차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교회이다. 그것은 THE행복한STAGE와 더행복한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형태는 손병세의 교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오랜 청년부사역과 신혼부부 교구를 담당하는 사역을 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친 젊은 세대를 위한 교회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가 제일 먼저 개척을 하면서 했던 것은 ‘문턱 없애기’였다.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가져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THE행복한STAGE이다. THE행복한STAGE는 지역사회의 젊은 부부세대를 위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평일에는 ‘해피 클래스’란 이름으로 각종 악기 연주나 꽃꽂이나 사진과 바리스타 교육 등의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각종 세미나와 문화공연을 위한 대관장소로 활용되고 있다.⁴¹¹ 이러한 THE행복한STAGE의 배경을 손병세는 이와 같이 말한다:

“THE행복한STAGE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책을 보다가 시작된 고민이다. 한 동네에 호프집이 3년 있다가 사라진 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했지만, 호프집 옆의 교회가 10년 있다가 사라졌을 때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라는 곳이 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운 교회라면 도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주님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회가 동네 사람들의 거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야 하겠고, 문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문턱이 아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THE행복한STAGE라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⁴¹²

THE행복한STAGE는 더행복한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시 안에 세워진 THE행복한STAGE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회철학은 교회의 비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교회의 비전 중에 다섯 번째 비전은 ‘이웃과 함께하라’는 지역사회를 향한 비전이다.⁴¹³ 그 비전의 내용을 보면 “더행복한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411) “한국의 공교회 - the행복한교회”, 국민일보, 2016년 7월 5일.

412) 손병세와의 인터뷰, 2020년 2월 28일, THE행복한STAGE.

413) 더행복한교회의 5대비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소모임을 움직여라, 가정을 세워라, 다음세대가 예배하게 하라, 이웃과 함께하라이다.

우리가 보냄 받은 지역의 문화와 필요에 맞는 공간에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인 역할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세상 속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⁴¹⁴

이것을 볼 때에 도시 안에 세워진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더행복한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도시 속에 있는 각자의 생활환경과 문화공간속에서 세워졌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다가오기 좋은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도시의 공동체와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THE행복한STAGE는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했고 또한 하고 있다. 모해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도시를 청소하는 일들을 진행했고, ‘안산의 지역사회에 동참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새로운 ‘마을의 플랫폼’인 ‘마을목회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개교회의 이름과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특히 THE행복한STAGE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여, 교육청이 함께하고 안산의 열 개 학교가 참여하는 ‘밴드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가번영위원회 등도 함께 후원하며 참여하게 되었다.⁴¹⁵ 이러한 THE행복한STAGE의 이러한 사역과 기능은 도시 속에 교회를 세우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회 속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더행복한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위치와 상관없이 셀 중심으로 연합하는 셀 네트워크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즉 한 지역에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교회’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주 좋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회이다.⁴¹⁶ 더행복한교회는 정신에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큰숲운동’의 정신이 들어 있다. 때문에 ‘큰숲운동’의 분립개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414) 더행복한교회의 비전, 더행복한교회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thehappystage.net/church/>, 2020년 2월 28일 접속.

415) “세월호 아픔 간직한 안산, 마을에서 희망찾기”, 한국기독교공보, 2018년 4월 16일.

416) 더행복한교회소개, 더행복한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thehappystage.net/church/>, 2020년 2월 28일 접속.

교회이다. 이를 위해 더행복한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사뭇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언제든지 분립개척할 수 있는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행복한교회는 여러 개의 셀그룹으로 묶여진 공동체인 MG그룹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도록 목회적 훈련을 하고 있다. 손병세는 이런 독립된 MG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이다. 공동체를 떼어 내면 먼저 평신도의 리더십이 강해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교회의 흠여짐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전체적인 행사나 모임보다 MG들의 모임을 더 활성화하고 있다. 전도 잔치도 세 개의 MG가 다 따로따로 진행했다. 두 그룹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도 잔치가 진행되었고 한 그룹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체육대회도 MG그룹이 각자 독창적으로 진행하여 공동체를 운영한다. 사역자의 개입이 많이 없는 평신도중심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룹이 커지면 또 다른 그룹으로 분립하려고 한다. 이것이 큰숲운동의 정신이다. 최근에는 MG별로 주일예배를 드리는 일을 실험적으로 시작했다. 평신도 리더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와주고 순회하며 교회를 돌본다. 셀이라는 개념을 볼 때에 셀도 또 하나의 교회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인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언제든지 분립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 속에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⁴¹⁷

교회속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은 몇 가지 차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첫째는 평신도사역의 과감한 접근과 개발이다. 셀의 핵심가치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위임을 통한 경험에서 개발되어지고 발전한다. 평신도사역의 위임과 개발은 교회가 분립개척되었을 경우 현장성이 능한 교회를 만들어 낸다. 둘째는 움직임이 용이한 교회이다. MG그룹의 가장 큰 특성은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디서든 예배가 가능하다. 셋째는 강한 공동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독립성은 공동체성을 강하게 만든다.

(3) 30-40 세대와 주일학교에 모델이 되는 교회

더행복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30-40세대가 80%가 넘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어린 자녀 세대들이다. 더행복한교회는 ‘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3040세대와

417) 손병세와의 인터뷰.

주일학교에 모델이 되고 싶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세대를 예배하게 하라'는 교회의 비전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주일학교의 비율이 장년 200에 아이들 150명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손병세는 30-40목회와 주일학교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의 컨셉은 30-40세대와 주일학교이다. 이러한 컨셉을 잡은 것은 그렇게 잡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다. 개척초기에 함께 개척을 참여한 세대들이 젊은 세대가 많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컨셉이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모두가 받아들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목회도 그렇게 하고, 사역도 그렇게 해야 한다. MG공동체도 독립적인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컨셉으로 가고 있다. 거기서도 30-40과 주일학교에 맞추어서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집중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를 하려고 한다.”⁴¹⁸

더행복한교회는 30-40대가 대다수인 교회로 공동체의 세대 자체가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독창성을 기반으로 30-40대가 중심인 젊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와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지, 그 독창성을 통해서 온라인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초기에 키즈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30-40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이 교회의 30-40세대가 주목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곳이 주일과 평일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손병세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놀이터도 같은 맥락이다.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밥 먹고 숙제하고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 주일학교가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에 한번 오는 곳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아이들이 교회를 정말 즐겁게 와서 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주일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놀이터가 있는 예배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이터교회가 되는 것이다.”⁴¹⁹

더행복한교회가 MG그룹을 통해서 독립적인 예배의 시도와 공동체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30-40세대들이 주류를 이루는 젊은 교회 때문에 가능한 시도로 보인다. 더행복한교회는 주일예배 때에

418) Ibid.

419) Ibid.

아기띠를 한 아빠가 헌금위원을 하고, 30-40대의 자녀들인 어린 아이들이 유아부와 유치부 교사를 한다.⁴²⁰ 교회 내부적으로 30-40목회의 현장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러한 교회의 시도는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 도전이 되고, 젊은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교회들의 많은 고민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더행복한교회의 이러한 30-40목회와 셀공동체로서의 비전은 ‘큰숲운동’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이바지하고 있다. 손병세는 세뫼세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차세대 사역자들에게 ‘3040목회와 어린이사역’을 강의하고 있고,⁴²¹ 다양한 목회 네트워크모임에서 셀목회와 ‘큰숲운동’을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고 있다.

9) 동탄동산교회 - 세상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큰숲운동

동탄동산교회는 본 연구자가 파송되어 동탄신도시에 2016년 3월에 분립개척된 아홉 번째 교회이다. 동탄동산교회는 김인중의 은퇴기념교회로 세워졌고 5년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주일학교포함해서 450명이 출석하고 있다.

(1)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큰숲운동’

동탄동산교회는 전략적으로 서울 홍대에 개척한 블루라이트처치를 제외하고는 ‘큰숲운동’으로 개척한 교회 중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제일 먼 거리에 개척한 교회이다. 동탄2신도시는 안산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오산시와 수원시와 용인시가 함께 맞물려 있는 화성시의 신도시로 11만 8천세대가 입주하고 30만명이 주거하게 되는 도시이다. 기존의 분립개척한 교회들은 모두다 안산 안에 있거나 안산에 인접한 곳에 분립개척했다. 이것은 분립개척의 특성상 함께 개척에 참여할 사람들의 동참율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그러나 동탄동산교회의 분립개척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큰숲분립개척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420) “한국의 공교회 - the행복한교회”, 국민일보.

421) 세뫼세코리아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www.facebook.com/3PM2016/>, 2020년 2월 28일 접속.

연구자가 2신도시에 분립개척을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는 농촌의 들과 산을 개발하여 도시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이다. 개척은 개척 동참자의 참여율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둘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30만 명이 모이는 도시에 기독교 인구율을 20%로 볼 때에, 1천명 교회가 60개가 세워져야 하고, 100명 교회로는 600개가 세워져야 되는 도시이다. 교회는 도시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 줘야 하고, 영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한다. 셋째, 미래가 있는 목회를 위해서이다. 동탄2신도시는 평균연령이 31세이다. 대한민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이다. 이곳은 신혼부부들이 절대다수이다.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많고 이들을 신앙양육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대안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당장의 안정성보다 미래의 안정성을 구해야 한다. 넷째, ‘큰숲운동’의 확장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분립개척의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큰숲운동’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은 ‘큰숲운동’의 지역적 영역을 넓힐뿐 아니라, 다양한 모험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본래적으로 흠어져야 하는 사명이 있다.

(2) 도시와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큰숲운동’

동탄동산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는 ‘도시와 가정을 세우는 교회’이다.⁴²² 동탄2신도시는 젊은 부부가 절대다수로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모가 많다. 때문에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도시와 대상에 대한 서칭을 통해서 필요중심적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다. ‘큰숲운동’의 정신은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와 각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 동탄동산교회의 이러한 사역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족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 가족공동체가 함께 영적공급을 받게 하는 것은

422) 동탄동산교회의 4대 비전은 ‘선명한 복음’, ‘도시와 가정을 세움’, ‘일터에서 능력있는 삶’,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듦’이다.

개척하던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개척 첫 예배부터 미취학부 드림키즈예배와 취학부 디포스예배와 청소년부 두드림예배가 사역자와 함께 준비되었다. 이러한 준비는 동탄2신도시의 대상들의 필요에 맞춘 것이었고,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첫 주일 예배부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1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도록 했다. 동탄2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고 개척교회들이 시작되었지만, 주일학교의 여러 예배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들의 예배는 부모의 예배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녀 양육을 하는 중에 젊은 부모세대는 마치 일시적으로 가나안신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양육에 집중하느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현장에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공급을 받도록 하는 사역은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요심야기도회와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이다. 동탄동산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 세대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같이 진행되어진다. 금요심야기도회를 할 때에도 어린이심야기도회를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에 어린이부흥회를 똑같이 3일 동안 진행을 한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 이러한 영적인 집회는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참여할 수 있다. 동탄동산교회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훈련을 강하게 받는다. 그리고 가족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은 큐티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같은 본문으로 만들어진 세대별 큐티집인 ‘매일성경’으로 큐티를 한다.⁴²³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셀모임이 진행되고 가정예배가 진행이 되어진다. 이것은 가족들의 영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함께 말씀에 대한 공감과 공급을 같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아기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긴다. 동탄2신도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열이 매우 높다. 반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대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개척 1년 후부터 아기학교를 시작하였다. 동탄동산교회의 미취학 사역자들은 모두 평신도

423) 매일성경은 성서유니온에서 나오는 큐티집이다.

출신의 사역자들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교사를 다년간 섬긴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유아학교를 위한 커리큘럼을 분기별로 자체 제작하고 도시를 섬긴다. 교회 내부 참석자 50% 교회외부 참석자 50%의 비율로 평균 15-20명의 참석자를 온라인카페인 동탄맘카페에 광고를 올려서 지원을 받는다. 현재 몇 년간의 시행을 통해서 분기별로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아기학교를 통해서 도시의 엄마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이것은 교회가 도시를 섬기는 귀한 사역이 되었다. 그리고 아기학교에 참석하는 자녀들의 불신자 엄마들 중에 교회에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셋째, 도시의 가정을 살리는 ‘굿팸(GoodFam)’사역이다.⁴²⁴ ‘굿팸’사역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역으로 교회와 도시의 각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이다. 이를 위해서 동탄동산교회는 가정사역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엄마의 권세와 비전을 찾게 하는 엄마들의 신앙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빠들을 위한 아빠학교인 ‘빠담빠담’을 진행하여 아빠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기죽은 아빠들을 다시 담대하게 만든다.⁴²⁵ 행동하는 부부가 되어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하는 부부세미나인 ‘행동세미나’를 통해서 부부의 삶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프로그램인 ‘위시아카데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를 위한 준비프로그램인 ‘결혼예비학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동탄동산교회가 자체 연구해서 만든 프로그램들로 진행되고 있고, 상담심리학적인 접근이 함께 접목되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지고, 그 참여대상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 중에 부부를 위한 ‘행동세미나’는 처음부터 불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교회적인 색깔이 나지 않도록 하여 불신자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넷째, 희맘아동가족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사역을 담당하고 있다.⁴²⁶ 동탄동산교회는 개척할

424) ‘굿팸(GoodFam)’은 Good Family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425) ‘빠담빠담’은 심장 뛰는 소리의 불어표현이다. 그리고 아빠의 담대함을 줄인 약자이다.

426) 희맘아동가족상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hecmam.or.kr/>.

때부터 도시의 가정을 위한 전문상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문상담가들이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구자의 아내인 이경미사모가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것은 안산동산교회의 ‘동산상담소’와 상담소의 소장이었던 안산동산교회 김인중의 사모인 이재순의 가정사역의 비전을 아내가 이식받은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큰숲운동’이다. 교회가 교회를 낳듯이 가정사역의 비전이 가정사역의 비전을 다시 낳은 것이다. 이 비전을 위해 ‘동산상담소’에서 인턴과 레지던트와 전문상담사의 임상훈련과 다년간의 상담경험을 했고, 전문상담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석사 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권위있는 다양한 자격증과 상담훈련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동탄동산교회의 가정사역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강의와 워크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상담센터의 기능은 교회의 부모교육과 교사교육과 자녀상담과 부모상담까지 가능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상담센터의 기능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상담하여 가정과 도시를 세우는 일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3) 100 개의 나라, 50 명의 사역자, 3 개의 교회를 위한 ‘큰숲운동’

동탄동산교회의 네 번째 비전은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드는 교회’이다. 교회는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운 비전이다. 이런 면에서 동탄동산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개척하는 첫 해부터 시작된 선교를 위한 비전트립은 일본과 몽골과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두개의 교회를 섬기며 찬양사역과 양육과 리더세미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몽골은 현지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선교를 위해서 직접 유대인을 전도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몽골비전트립은 ‘가족비전트립’으로 진행되어진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동참하고, 부모의 리더십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경험하는 비전트립이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일본선교에도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가족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한 교회적인 비전과 맞물려 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동탄동산교회는 모든 셀이 나라와 선교사를 입양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돕고 있다. 100개의

나라를 섬기고 지구촌을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15개국을 섬기고 있다.⁴²⁷ 셸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셸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직접집행을 한다. 그리고 선교사와 셸이 직접 소통하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선교현장을 밀접하게 경험시킨다. 이러한 선교를 위한 노력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실행된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캐나다에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다. 매달 선교편지를 모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소식을 나누며 기도하고, 아이들은 선교헌금을 매달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고 있다.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헌신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50명의 선교헌신자와 사역자는 선교지 현지 사역자, 동탄동산교회의 미래세대의 인재, 국내 파송선교사와 사역자 등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개의 교회의 분립개척은 다양한 형태로 분립을 계획하고 있다. 1호 국내 개척은 2024-2028년 사이에 개척할 예정이고, 그 이후로 5년 주기로 교회를 개척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100개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전면적선교가 함께 동반되어진다. 이 과정속에 많은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발맞추어 해외큰숲교회를 분립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외큰숲교회는 선교현지의 캠프역할을 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세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로 예정하고 있다.

(4) 평신도의 역량강화를 통해 리더를 세우는 ‘큰숲운동’

동탄동산교회는 평신도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양육이 있다.

첫째,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관계와 정서회복을 돕는 관계강화 훈련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둘째,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한 영적 강화훈련이다. ‘바이블키’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맥을 잡고, ‘바이블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또한 매일 성경통독반이 운영되어서 왕성하게 말씀을 보는 운동에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다. 치유수양회와 중보기도세미나를 통해서

427) 선교, 동탄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ddc21.or.kr/?page_id=7909, 2020년 3월 1일 접속.

내면세계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길러낸다.

셋째, 제자훈련을 통한 라이프스타일훈련이다. 제자훈련 스타트를 통해서 복음의 기본기를 다지고, 제자훈련 베이직을 통해서 16주간 일대일제자훈련을 받고, 영혼을 어떻게 섬기는 지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제자훈련 플러스를 통해서 담임목사를 통해서 리더의 희생적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훈련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배우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인 셀과 교회를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동탄동산교회는 그 중에서도 제자훈련 베이직을 통한 일대일제자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후원자로 영혼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섬기며 복음으로 양육하여 영적인 아이를 청년으로 만다는 것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는 이 사역을 시작한지 4년이 되어서, 평신도 후원자로 양육을 할 수 있는 리더가 50명 가까이 된다. 이것을 통해서 리더가 리더를 낳는 사역이 진행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셀공동체 안에서 셀리더로 준비되어진다.

넷째, 셀리더모임을 통한 공동체 비전의 훈련이다. 동탄동산교회는 2016년 5개의 셀로 시작하여서 현재 50개의 셀이 되었다. 리더가 리더를 낳고 셀이 셀을 낳는 이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힘의 원천은 셀모임에 있다. 연구자는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현재까지 셀리더들과 셀모임을 직접하고 있다. 셀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삶을 터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케어하고 양육하고 비전을 준다. 셀교회는 평신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하는 교회이다. 때문에 평신도의 역량강화는 공동체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 진다. 최고의 리더의 역량강화는 리더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모든 리더의 비전과 비전의 기름 부으심은 담임목사에게서 흘러가는 것이다. 때문에 셀리더 모임은 셀교회의 핵심이다. 셀에서 경험한 것이 셀로 흘러간다. 이러한 셀모임을 통한 셀의 능력을 경험한 셀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낳고 셀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또 다른 공동체를 꿈꾸게 된다. 이것이 ‘큰숲운동’의 정신이다.

10) Day Church(날마다교회) - 다양한 영역에 공동체를 실현하는 ‘큰숲운동’

Day Church는 2017년 1월에 심준호가 파송되어 수원 울전동에 개척된 열 번째 교회로 개척한지

4년차 된 교회이다. 현재 주일학교 포함해서 100명이 출석하고 있다.

(1)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실험실 Day Church

Day Church는 안산동산교회에서 ‘큰숲운동’에 있어서 예배사역을 담당했던 심준호가 개척한 교회이다. 심준호는 안산동산교회의 예배사역을 담당하면서 셀교회의 대그룹예배와 소그룹 예배, 축제의 예배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가족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역자이다.

예배사역자로서의 특성과 은사가 더해져서 Day Church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근처에서 문화복합공간 ‘쉽플’을 열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를 분립개척했다. 그는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의 사명 속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Day Church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말한다:

“큰숲운동을 통해서 나는 복을 누린 목사 중에 하나이다. 안산동산교회라는 큰 항공모함 자체가 이 시대의 문화 흐름에 맞춰서 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모든 콘텐츠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항상 모험하고 무모하게 시도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방향을 터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거기서 항공모함의 각도가 1도가 돌아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안산동산교회는 무모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발전한 것이다. 안산동산교회처럼 큰 항공모함은 어렵지만, 거기에서 나온 작은 배들은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형태와 사역을 큰 교회는 하기 힘들지만 작은 교회는 할 수 있다. 큰숲운동을 통해 큰 교회가 못하는 것을 작은 교회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안산동산교회를 카피한 교회보다 안산동산교회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을 손대고 싶었다. 이런 교회를 할 때에 제일 큰 어려움은 교회의 간관이 없고, 교회의 보편적인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산동산교회가 존재하니 오해 없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큰숲운동으로 새로운 교회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미셔널처치의 모습으로 선교지로 들어왔다. 이것은 선교지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이다.”⁴²⁸

Day Church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실험실과 같다. 심준호는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의 현장속에 있으면서 품은 비전을 Day Church를 통해서 실천하고 실험하고자 했다. Day Church는 ‘날마다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Day Church는 두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첫째는

428) 심준호와의 인터뷰, 2020년 3월 4일, Day Church 목양실.

주일에 모이는 센터처치이고 둘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날마다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심준호는 이렇게 말한다:

“주일은 예배가 포커스라면 주중은 라이프스타일에 포커스를 둔다. 주중 라이프스타일에 가치를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도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즐겨 찾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인다. 주중에 셀모임이 있지만 한 달에 한번은 관심사를 가지고 액티비티한 모임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클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언어도 종교도 통하지 않는 무슬림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설교문을 미리 보내준다. 그런 친구가 왔을 때에 클럽이 있으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교제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주인이신 셀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단계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클럽은 오픈 셀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Day Church의 주중 라이프스타일이다. 클럽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모임들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아니라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클럽이 오픈되어 있기에 불신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클럽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즐거움을 느낀 친구가 교회를 오게 되었다. Day Church는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는 곳이다. 교회의 공간 샘플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⁴²⁹

Day Church는 날마다 교회가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셀교회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하기 좋도록 노력하고 있는 교회이다. 셀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세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Day Church의 목회적 실험현장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다양한 현실들을 반영하는 쪽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그것은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다수의 불신자들과 특수한 직업에 속해 있는 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샘플이라는 공간이 주일에는 예배의 처소로 쓰이고 있지만, 주중에는 다양한 만남과 열림 셀의 공간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주중교회의 필요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각자 처지에 맞는 자들을 위한 주중교회와 주주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비전을 Day Church는 가지고 있다. 심준호는 주중교회의 분립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원래 올해부터 분립개척을 하려고 했다. 그게 주중교회이다. 우리는 주일만 쓰니 주중에

429) *Ibids.*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고민되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불신자들과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분립개척을 위한 준비를 위해 부목사를 준비시키고 있다. 부목사와 함께 가는 것 자체가 큰 숲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큰숲운동의 일환이다. 사실 부목사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Day Church의 분립개척을 함께 하면서 이러한 큰숲운동의 정신을 함께 경험하고 도전하도록 하고 있다. 분립개척에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시대적인 부르심과 선교사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⁴³⁰

Day Church의 이러한 준비와 도전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시도되지 않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미셔널체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화되고 다원화된 한국사회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Day Church는 다양한 실험실이 있는 공동체이고 ‘큰숲운동’의 실험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적 예배

Day Church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참여가 이는 코이노니아가 강한 예배이다. 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신학이다. 때문에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적 특성은 교회의 예배속에서도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다. Day Church는 이런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가 통합세대예배이다. 이러한 통합세대 예배는 한국교회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실험되어지고 있는 요소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 간의 분리를 깨고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는 좋은 배경이 되어 진다. 그러나 자칫 세대 간의 특성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Day Church는 예배 속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특징 지워진다. 첫째는 ‘DayStory’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둘째는 ‘인도자 없는 자발적 예배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심준호는 이 두 가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Day Church는 통합세대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있는 예배로 세팅되고 있다. 그리고 그 포커스는 예배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설교 듣고 정리해서 한 주간 본인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다짐하는 글을 쓰게 한다. 이것이 ‘DayStory’이다. 그것을 써서 올리는 사람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눈다. 아이들도 참여한다. 성경본문을

430) Ibid.

그림으로 그려서 색칠하도록 매주 만든다. 아이들은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으로 아이들의 고백을 올린다. 그것이 'DayKidsStory'이다. 그 참여를 통해서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신선한 충격도 받지만, 성도들의 삶이 고백 되어지는 예배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인도자가 없는 자발적인 예배'이다. 이런 예배를 정한 날에 드러지고 있다. 이 예배는 사회자가 이끌어 가지 않는다. 찬양시간이 되면 인도자가 없이 진행된다. 연주자가 찬송가를 연주하면 회중이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른다. 스스로 예배에 들어가고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 찬양이 시작된다.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울동을 한다. 그리고 설교자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특송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자기 고백과 간증이 담긴 찬양을 여러 달 준비하고 연습하면 그 찬양에 은혜가 흐르고 감동이 된다. 그리고 예배 찬양 중에 특송한 찬양이 준비되면 특송했던 그 사람이 그 찬양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매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배인도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⁴³¹

Day Church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이다. 인도자에 의해서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 성도가 들어가는 예배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회중들이 함께 공감되는 공동체적 코이노니아가 있는 예배이다. 이러한 예배를 위한 노력은 예배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가나안신자들과 교회에 대한 박탈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시도들이다.

(3) 지역사회속에 공동체로 함께 공존하는 쉼플

Day Church가 하고 있는 사역은 공간 '쉼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쉼플은 쉼이 있는 공간(Place)의 의미와 함께 심플(Simple)한 삶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이 공간은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공연문화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대화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위치 확보는 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곳이 이곳이다. 공연장은 경기도 가수협회에서 도와 달라고 한다. 가수는 많은데 공연장이 없고 무명하

431) Ibid.

사람들은 돈도 없다. 그래서 무료로 공연장을 대관을 해준다. 이런 시도는 지역사회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은 교회라는 공간을 지역사회가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에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씬플은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 곳곳에서 대관문의가 들어오고 공연과 경기도에서도 빌려서 쓴다. 대학교의 동아리의 공연이나 대학교의 예비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 연극도 씬플에서 공연되어진다. 이미 지역에서 공연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연장 대표로 자리매김을 했다. 지금도 지역사회와 편하게 소통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공연장을 걱정해주고 잘되기를 축복해준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일을 가능케 해줬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에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씬플이라는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⁴³²

Day Church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일에 잘 다가서고 있다.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Day Church가 가지고 있는 ‘션플’공간의 기능이다.

(4) 설교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하는 목회 네트워크

Day Church의 ‘션플’을 통한 다양한 공간의 활용은 설교를 배우기 위한 사역자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심준호는 설교협동조합 ‘PAN’(Preaching And Next)을 만들었다. 이것은 설교자네트워크 모임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공동체 운동이고 ‘큰숲운동’이다. 지역마다 설교에 대해 고민하는 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교회공동체의 건강을 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이다. 심준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수진들과 스텝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거두어 지는 재정은 한국교회 많은 개척자들과 실험적인 목회를 하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진다. 심준호는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나눈다:

“설교자 네트워크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설교를 돕고 좋은 정보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자 한다. 설교세미나를 참석하거나 하면 많은 돈이 들지만, 설교자 네트워크를

432) Ibid.

통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약간의 회비를 내면 이것으로 교회를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열악한 교회들도 도울 수 있다. 서로의 설교를 피드백하고 소통하게 되면 성장이 일어난다. 각 지역에 뜻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섬기는 스텝이 가서 도우면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설교를 피드백 해주고 도와주면 된다.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다. 이게 ‘PAN’협동조합이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힘든 것을 돕고, 실험적인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큰숲운동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목회의 리더십을 세워 교회를 자라게 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⁴³³

Day Church는 다양한 공동체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숲운동’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운동이다. 이런 면에서 ‘큰숲운동’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사역의 분립개척이기도하고 건강한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큰 숲을 이루는 의미있는 사역으로 여겨진다.

11) 배곧동산교회 - 함께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큰숲운동’

배곧동산교회는 2019년 1월에 박덕영이 파송되어 배곧신도시에 개척된 열한 번째 교회로 개척한지 2년차 된 교회이다. 현재 주일학교 포함해서 250명이 출석하고 있다.

(1) 섬김이 강한 리더십으로 관계를 엮어내는 셀목회

배곧동산교회는 섬김이 강한 셀목회를 지향하고 있다. 셀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이다. 이런 섬김이 강한 디아코니아는 먼저 리더의 리더십에서 셀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박덕영은 셀라이프에 있어서 디아코니아가 매우 강한 사역자이다. 안산동산교회에 있을 때에 불신자 가족들, 낙심자들, 상처를 입은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강한 섬김을 통해 셀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일에 성공경험이 많다. 셀의 본질에 있어서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리더가 셀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비전이 부어졌을 때에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것이 리더가 리더를 낳고 셀이

433) Ibid.

셀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박덕영은 이렇게 말한다: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다. 교구사역을 10년간 하면서 내게 맞는 주요 사역 대상이 장년목회를 통한 셀목회라는 것을 확신했다. 사람마다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룹과 코드가 잘 통하고 시너지가 생기는 그룹이 장년이였다. 교구사역 10년 동안 장년들을 담당하면서 무엇을 했나 살펴보니, 각 가정의 잠자는 남편들을 많이 끄집어냈다. 아내와 가족들의 10년 20년 기도제목인 잠자는 남편들을 교구의 양육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섬기고 셀로 엮어줬다. 이런 결실로 안산동산교회 양육 1,3단계에 남성들만 큰숲회복수양회까지 54명이나 참석했다. 미래목회연구소에서도 대단하다고 놀라기까지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실험한 것은 부부지역을 만드는 것이었다. 교구 특성상 젊은 부부가 많이 유입되었는데, 장기결석자를 위한 부부 셀을 만들게 되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교회 장로님의 아들 가정이었고, 신혼부부 한 가정, 교구의 지역장 아들 가정 등을 부지런히 섬겼다. 만나서 교제하고 직장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부지런히 섬겼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셀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셀이 지금은 분가하게 되어서 부부지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 때에 이것을 함께 경험했던 분들이 배곧동산교회를 분립개척할 때에 개척에 합류했다. 이것을 함께 경험했던 셀리더와 잠자던 신앙을 깨우게 되었던 가정들이 개척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셀목회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⁴³⁴

배곧동산교회의 셀목회에 흐르는 리더십은 관계를 엮어내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박덕영은 큰숲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이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장년 셀목회에 대한 경험 속에서 목회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섬김이 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셀목회를 성공해봤던 리더들에 의해서 여전히 배곧동산교회의 셀목회에 시도되어지고 있다.

(2) 함께 참여함으로 한 몸 되는 비전공동체

배곧동산교회는 공동체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독창이다. 보통 교회는 담임목사에 의해서 교회의 비전이 전달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434) 박덕영과의 인터뷰, 2020년 2월 20일, 동탄동산교회 목양실.

배곧동산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 참여하여 비전을 결정하고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

배곧동산교회는 해마다 ‘비전수련회’를 진행한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100명이 모이면

비전수련회를 하자고 약속했던 것이 개척 4개월 만에 100명이 모이면서 그 약속을 바로 지키게

되었다. 비전수련회를 하기 앞서 교회는 비전수련회를 위한 한 달 간의 기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그해의 무엇을 집중해서 사역해야

할지를 성도들이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덕영은 비전수련회의 의미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더 효과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성도들의 손길과 섬김을 통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개척 7년의 모든 로드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할 것을 믿고 비전수련회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찾았다. 모든 셀이 나와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발표하고, 나는 그들의 생각을 카테고리화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것을 하고 나니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가야 할 지가 눈에 보였다. 성도들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목회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부계획까지 다 나왔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공동체를 통해서 직접 세우신다는 것이다. 머리 되신 주님과 한 몸이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다.”⁴³⁵

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하기를 힘쓴다.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게 만든다.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큰숲운동’

배곧동산교회는 비전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 자녀 세대에 믿음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 배곧동산코이노니아와 큰숲상담센터를 통해

435) Ibid.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입니다. 배곧동산교회는 셀이 셀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으로 함께 합니다.”라고 소개한다.⁴³⁶ 교회의 비전속에 셀이 셀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큰숲운동’의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큰숲상담센터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사역과 배곧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지역사회에까지 가는 ‘큰숲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박덕영은 지역사회를 위한 ‘큰숲운동’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큰숲분립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제 개척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숲운동과 관련되어 지금은 분립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그것보다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신도시에 종교부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온 몇몇 교회들의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다. 배곧 신도시는 일반 상가에 법적으로 교회의 간판을 걸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가 들어오는데, 기존의 교회들이 민원을 넣어서 교회를 간판을 떼게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 그런 교회가 온라인 카페 상에서 불신자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척교회의 목사들이 초 교파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고민을 나누고 도시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다. 성당의 신부님도 함께 참여하자고 하고 있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속에 함께 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배곧신도시의 평균연령을 31.5세이다. 때문에 어린 자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전 리서치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상담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하는 4주간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실제로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⁴³⁷

배곧동산교회는 도시를 향한 ‘큰숲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을 넘어서 도시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주중에 도시와의 코이노니아를 위해 교회를 설립하면서 세운 ‘큰숲상담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심리미술과 테라피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 육아를 돕는 엄마 아빠학교,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실용미술 배우기, 치매예방 미술, 심리치료를 위한 실용 장식 미술 배우기 등을 실시하여, 도시의 어린 자녀와 육아에 지친 부모와 자존감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과 관계회복이 필요한 장년 부부, 치매 예방을 원하는 노년층까지 모든 대상을 향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36) 교회소개, 배곧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bd21.kr/?page_id=4717, 2020년 2월 29일 접속.

437) 박덕영과의 인터뷰.

2. 11 개 교회의 ‘큰숲운동’에 대한 소결론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된 11개 교회의 ‘큰숲운동’은 4장에서 설문조사한 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된 교회들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지속하고 있는 ‘큰숲운동’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큰숲운동’의 지속성이다. ‘큰숲운동’은 셀목회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나라에 기여하는 운동이다. 때문에 리더가 리더를 낳고 셀이 셀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셀교회의 정신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1개 교회의 대부분은 셀목회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셀교회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큰숲운동’의 큰 정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다. 이 비전이 각 교회에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큰숲운동’을 통해서 분립개척된 교회가 이미 8개의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분립개척은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교회들이 대형교회로 가는 목회적 야망이 아닌 건강한 교회를 위한 ‘큰숲운동’에 동참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큰숲운동’의 확장성이다. ‘큰숲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개척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도시의 지역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사역하고 있다. 다수의 교회는 미셔널처치로 도시와 지역사회를 선교지로 여기고 들어가는 시도들을 통해서 도시와 지역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또한 인정받고 있다.

셋째, ‘큰숲운동’의 다양성이다. ‘큰숲운동’의 사역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만들었다. 분립개척을 시도하는 것과 더불어 각 교회마다의 ‘큰숲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각 교회의 형태와 목회적인 방식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교회가 지역사회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은사가 반영되고 개척자의 리더십과 더불어 시도되고 있다. 학교, 어린이집, 복합문화공간, 공연장, 아티스트사역, NGO, 설교자협동조합, 상담센터, 기도의집 등을 통한 사역과 영혼구원, 선교, 다양한 예배와 공동체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다.

넷째, ‘큰숲운동’의 안정성이다. ‘큰숲운동’을 통해서 분립개척된 교회들은 안산동산교회의 지원과 함께 분립개척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주는 것을 통해서 개척초기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셀목회의 경험이 있는 사역자와 개척 동참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새가족 정착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목회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성은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안정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개척한 11개의 분립개척교회들은 모두 재정적으로 자립했고 각 교회의 성장은 그 사역적 특성과 리더십과 도시적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두다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큰숲운동’의 모험성이다. 안산동산교회는 가장 큰 장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회가 모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개척자들은 교회에서 몸소 훈련받고 경험하게 되어진다. 때문에 모험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분립개척된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교회가 활발하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으며 모두 창의적이고 정제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모험은 ‘큰숲운동’으로 개척된 교회들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목회적 창의성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모험은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일과 위임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장을 강하게 이끌어 내는 특징이 있다.

여섯째, ‘큰숲운동’의 창의성이다. 창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적인 특성을 반영한 말이다. 가장 창의적인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이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모든 창의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실현되어 져야한다. 분립개척된 교회들 마다 리더십의 전형적인 특징은 리더가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창의적인 동참을 한다는 것에 있다.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가 사역과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모든 부분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발성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것은 개발되어지고 끊임없이 교회에 시도되고 적용되어진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이고, 공동체적인 디아코니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각 교회를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다. 분립개혁된 열한 개 교회 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째, ‘큰숲운동’의 발전성이다. ‘큰숲운동’의 발전성은 그 확장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큰숲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들은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개혁을 시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귀한 모델로서 분립개혁교회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미 이것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셀세미나와 세뫼세세미나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에 의해서 이미 ‘큰숲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큰숲운동’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큰숲PLAT’을 통해서, ‘세뫼세코리아’를 통해서 발전적인 교회 공동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각 분립개혁된 교회들 안에서도 저마다 ‘큰숲운동’은 발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여덟째, ‘큰숲운동’의 자립성이다. ‘큰숲운동’으로 분립개혁된 교회들은 개혁한지 1년에서 2년내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 이것은 셀목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목회적 능력이 토대가 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자립성은 목회의 안정감을 주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목회적 공간을 만들어 준다. ‘큰숲운동’을 통해서 분립개혁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의 ‘큰숲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큰숲운동’을 통해서 분립개혁된 교회들과 ‘큰숲운동’을 통해서 분립개혁을 진행한 안산동산교회와의 좀더 긴밀한 소통이다. 안산동산교회의 분립개혁은 각각의 교회가 독립성과 자립성이 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런 면에서 연구자가 볼 때에 만족스러울 만큼 교회들은 잘 자라고 있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저마다 ‘큰숲운동’의 정신으로 사역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으나 분립개혁된 교회들 간의 좀 더 발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요청되어진다. 이것은 저마다의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정신이 반영된 교회의 사역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의 의의와 더불어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목회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역자의 목회를 함에 있어서의 목회적 건강도와 각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와의 밸런스를 위해서도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3. 한국교회의 분립개척을 위한 발전적 제언

한국교회는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상당한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한국교회가 교회 개척을 통해서 부흥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구는 급감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기성교회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성장에 큰 타격이 되어지고 교회 개척에 대한 회의론과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대형교회와 숫자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목회에 전환을 주는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분립개척된 열한 개의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그 성장의 배경 속에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신학과 실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로 셀목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배우고 따를 만한 모델이라고 확신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분립개척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형교회 및 역량이 있는 교회들의 공동체신학의 갱신과 분립개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목회성공과 더불어 교회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지교회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공동체 신학의 갱신이 절실하다. 분립개척이라는 것은 대형교회가 가진 재정과 성도들의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형교회들과 교회를 분립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교회는 저마다의 ‘큰숲운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회의 본질에 충실한 셀목회에 대한 도전이 요청되어진다. 분립개척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한다. 때문에 기존 교회의 목회자와 개척을 하려는 개척자는 반드시 공동체를 세워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셀목회이다. 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족이라는 정신과 함께, 관계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하나되고 연결되게 만드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상호책임지고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종이 되어 섬기는 디아코니아를 경험하고 배워야한다. 이런 공동체적인 본질에 충실한 목회가 셀목회이다. 셀은 경험하는 것이다. 이론과 머리로 되지 않는다. 때문에 공동체를 충분히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분립개척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절대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충분한 준비를 통한 분립개척이 요청되어진다. 교회의 개척은 준비없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준비는 분립개척을 시도하는 준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목회자가 목회적인 역량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개척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과 비전과 희생과 그리고 설교와 사역과 모든 면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진 역량이 요청되어진다. 개척을 시작한 이후에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안산동산교회가 충분히 검증되고 사역적인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을 세워서 분립개척을 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역량을 개척을 실행할 때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준비 없는 사명과 믿음만으로 개척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

넷째, 셀공동체를 직접 만들고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립개척에 있어서 사역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일이다. 사도바울이 아비가 되어서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전도여행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웠던 것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셀공동체를 만들고, 셀모임을 인도하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립개척을 할 경우 모교회에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함께 몸을 만드는 것은 또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이다. 리더십이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셀공동체를 경험하고 셀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경험을 한 개척자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분립개척을 했을지라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일이다. 반면에 분립개척이 아닌 전혀 지원이 없는 개척을 해야 할 경우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영혼을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일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적 역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밟게 될 때에 공동체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충분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개척되어야 한다. 개척은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재정이 들기에 후원이 필요하고 동참이 필요하다. 때문에 모교회는 분립개척을 할 때에 전체적인 지원과 후원의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만 후원하고 성도들을 보내지 않는다. 그럴 경우 개척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척자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매우 힘든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는 개척을 할 경우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을 성도를 빼내어 가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함께 동참하고 싶고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비협조적인 공동체문화가 바뀌고 개선되어야 한다. 교회는 재정과 더불어 개척 동참자들이 마음껏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 동참하도록 후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여섯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교회는 홀로 세워지지 않는다. 협력이 필요하고 동참이 필요하다. 분립개척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비전을 가진 공동체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것은 비전의 연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연대이다. 이것을 통해서 개척의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감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지에 대한 모델과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개척자의 준비를 도와줄 뿐 아니라, 개척자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협력자와 위로자의 기능을 해야 한다. 개척의 현장은 끝없는 위기와 갈등으로 가득하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개척자들의 모임이 필요하다.

일곱째, 현장성과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개척준비가 필요하다. 개척은 현실이기 때문에 냉철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고 도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분립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절대다수가 젊은 세대가 모인 도시에서는 반드시 어린이 사역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 사역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한 것이다. 홍대거리에 교회를 세울 때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전통적인 목회로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과 도시와 대상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맞는 전략적 사고를 통한 목회준비는 필수적이다.

여덟째,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공급해야 한다. 11개의 교회들 모두가 각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통일되어지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교회의 개 교회성에서 나온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아진다. 지역사회와 공존하거나 지역사회에 들어가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교회로 교회는 자리 잡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진취적인 교회의 모델이 개발되고 공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사회는 교회의 통전성이 부족하다. 교회의 공공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교회 간의 연합을 손상시켰고 세상 앞에서 교회의 공공성의 한계를 보게 만들었다. 때문에 지역사회와 공존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교회 개척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아직까지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 다양한 대상들의 교회, 지역사회 속에 함께 숨을 쉬는 교회 등 다양한 교회들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론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둔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속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둔화는 소극적인 교회 개척과 더불어 교회 개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목회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어질 만한 좋은 사례가 되기에 질적연구 방법으로 11명의 대상자와의 인터뷰와 의견을 분석하고 자료를 연구하였다.

4장을 통해서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목회의 현장에서 활발한 ‘큰숲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산동산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셀목회를 통한 ‘큰숲운동’은 교회들 마다 활발하게 계승되고 확장되고 있다. 설문에 응한 10개의 교회 모두가 셀목회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셀의 중요성과 셀모임에 대한 강조를 실제로 목회에 반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분립개척된 10개의 교회 모두가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에 대한 의지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0개의 교회는 100% 분립개척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이미 10개의 교회 중 4개의 교회가 8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한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분립개척된 교회들도 구체적인 분립개척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립개척의 계획도 결국 셀목회가 근거가 된 분립개척이다. 그리고 5장 통해서는 이렇게 분석된 교회들이 실제로 목회 현장속에서 ‘큰숲운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11개의 분립개척된 모든 교회는 셀목회를 통한 ‘큰숲운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교회들 마다 리더를 세우고, 셀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교회를 분립개척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교회가 분립개척되어 ‘큰숲운동’은 각 교회에서 일상처럼 되었다. 그것뿐 아니라 ‘큰숲운동’의 영향력이 분립개척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선교와 사역과 문화의 영역까지 ‘큰숲운동’의 개척정신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다. 학교와 어린이집의 설립, 공연장과 문화사역, NGO설립과 활동, 상담센터의 설립,

지역사회 봉사, 다문화사역과 선교, 전문사역의 개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숲운동’은 진행되고 있다.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를 통한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분립개척된 교회들의 다양성과 사역적 특성은 분립개척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회의 개척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연구 대상이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된 교회의 목회자로 제한이 되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셀목회와 ‘큰숲운동’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 셀목회와 ‘큰숲운동’의 관점은 배제된 것이다. 둘째는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에 대한 연구가 극히 초대형교회인 안산동산교회의 사례라는 점에서 제한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셀목회를 통한 ‘큰숲운동’의 비전은 공감되나, 분립개척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중소형교회와는 현실적인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논문의 연구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의 장점을 강조한 나머지 단점과 개선점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립개척한 11개 교회 모두를 다루다 보니 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임을 밝힌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이 몇 가지 보완되어지는 연구가 있기를 소망해본다. 첫째는 ‘큰숲운동’과 분립개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는 2세대 분립개척교회의 현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분립개척의 1세대를 넘어서 2세대 교회가 8개가 개척이 되었다. 초대형 교회인 안산동산교회가 분립개척을 주도하는 것에 비해, 2세대 교회는 모교회의 기반이 약한 가운데에서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러므로 2세대 교회의 분립개척의 목회현장이 담긴 ‘큰숲운동’이 연구되길 소망해 본다. 셋째는 분립개척된 교회의 성도들이 체감하는 ‘큰숲운동’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분립개척된 교회의 성도들 절대다수는 새롭게 등록된 자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큰숲운동’과 셀목회에 대한 경험이 약할 수 있고, 이것은 ‘큰숲운동’이 새로운 토양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통한 분립개척은 한국교회의 목회와 개척의 중요한 대안과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안산동산교회의 목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대형교회가 하나의 큰 나무를 이루기보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을 통해서 큰 숲을 이루는 공동체 회복 운동이다. 이것은 한국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비전이다. 앞으로 ‘큰숲운동’과 같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셀목회 운동과 개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제이, 제삼의 ‘큰숲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동의서(한글)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 연구: 분립개척을 중심으로

박동성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귀하를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연구: 분립개척을 중심으로”에 초대되었습니다. 귀하는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목회자로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일환으로 분립개척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주세요.

리버티대학교의 신학대학원박사과정 중에 있는 박동성이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경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연구함에 있습니다. 큰숲운동의 일환으로 분립개척된 11개의 교회를 연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개척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개척운동이 일어나도록 돕고자 합니다.

연구진행과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1시간의 인터뷰시간과 무기명 설문조사를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위험요소: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비밀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게시할 수 있는 보고서의 어떤 종류에서, 저는 그것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기록들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단지 연구자만 기록들에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의 어떠한 형태의 출판으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발표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 년 후에 삭제될 것입니다. 설문참여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그룹밖의 사람들과 그룹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 고지(告知): 해당사항 없음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의 가부가 귀하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대학교, 안산동산교회와 분립개척한 12개의 교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참여중단이 위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연구참여중단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박동성(DONGSUNG PARK)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 말고 82-10-9232-0067/ dpark8@liberty.edu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 교수: 82-01-2031-9885 yjlee@liberty.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B**부록 B**

CONSENT FORM

A STUDY ON ‘BIG FOREST MOVEMENT’ OF ANSANDONGSAN CHURCH: THE CASE OF CHURCH PLANTING

DONGSUNG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You are invited to be in a research study on the conflict resolution in church. You were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you are one of the pastors who have conducted Separation Church Planting through *the Big Forest Movement*.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be in the study.

DONGSUNG PARK,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Background Information: The purpose of my research is to study *the Big Forest Movement* of Ansan Dongsan Church and Separation Planting which is conducted as a part of *the Big Forest Movement*. Henceforth, my research will deal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Big Forest Movement* and thereby suggest healthy alternatives for Separation Planting of Korean Churches.

Procedures: If you agree to be in this study, I would ask you to do the following things:

1. Complete and answer a 1-hour long survey.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Participants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Compensation: Participant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Confidentiality: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Participant survey responses will be anonymous.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in a locked desk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and all paper records will be shredded.

Voluntary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Ansan Dongsan Church, or any of 11 churches that were separated from Ansan Dongsan Church and planted.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are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submitting the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How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from the study, please do not complete or submit your study materials. Your responses will not be recorded or included in the study.

Contacts and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Dongsung Park.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9232-0067/ dpark8@liberty.edu.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Yoojung Lee, at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C

부록 C

설문서 (한글)

큰숲운동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

(해당 문항에 체크 ✓ 해 주세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① 40-45세 ② 45-50세 ③ 50-55세 ④ 60-65세 ⑤ 65세 이상

2. 당신은 분립개척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 ① 1-2년 ② 3-5년 ③ 6-10년 ④ 10-15년 ⑤ 15년 이상

(개척교회와 셀목회에 대한 질문)

3. 당신은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좋지 않다.

4. 당신은 교회에서 셀목회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당신은 성도들이나 리더들에게 셀목회를 통한 셀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 셀의 중요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당신은 셀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셀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②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 때문에
 ③ 셀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돌봄, 치유, 회복)

- ④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 ⑤ 셀전도를 통한 교회의 성장에 대한 확신 때문에
8. 셀목회를 강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설교를 통한 강조 ② 셀리더 양성을 위한 양육 ③ 셀리더(순장) 모임
- ④ 셀리더세미나 혹은 수련회 ⑤ 셀리더 팀웍을 위한 단합회
9. 당신은 성도들이 셀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셀과 셀 모임이 잘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

11. 당신은 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12.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제(관계) ② 섬김과 돌봄 ③ 영적인 성장 ④ 셀 예배 ⑤ 고백을 통한 나눔
13. 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셀은 기독교 기초공동체이다 ② 셀은 가족이다 ③ 셀은 경험하는 것이다
- ④ 셀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⑤ 셀은 전도가 중요하다 ⑥ 셀은 상호책임 저야 한다
- ⑦ 셀은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

(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질문)

14. 당신의 정기적인 셀모임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15. 당신은 셀리더(지역장)들과 직접 셀모임을 진행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16. 당신은 셀과 셀모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7. 당신의 교회는 셀을 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셀 안에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당신의 교회의 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교제(관계) ② 섬김과 돌봄 ③ 영적인 성장 ④ 셀 예배 모임 ⑤ 고백을 통한 나눔
⑥ 셀을 통한 전도 ⑦ 새가족정착 ⑧ 함께 봉사하는 일

20. 당신의 교회는 셀 안에서 셀리더들이 잘 준비되고 성장되어 세워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당신 교회는 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 당신의 교회는 셀 안에서 셀리더들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3. 당신의 교회는 셀의 전도를 통해서 분셀(분가)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4. 당신의 교회는 셀의 성장을 통해서 분셀(분가)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개척에 대한 설문)

25. 당신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6. 당신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분립개척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7. 당신은 분립개척을 위한 실제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8. 당신의 교회는 분립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3회 이상

29. 당신은 셀목회의 가치를 통해서 교회를 분립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기독교대연감편찬위원회. 「기독교 대연감」. 서울: 기독교문사, 1991.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서울: 두란노, 2013.

———. 「나는 행복한 전도자」. 서울: 규장, 1996.

———. 「백질불굴의 크리스천」. 서울: 규장, 2004.

———. 「새로운 삶의 시작」. 안산: 큰숲, 2019.

———. 「새로운 삶의 실천」. 안산: 큰숲, 2010.

———.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8.

———.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07.

———.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울: 두란노, 2009.

———. 「안산동산교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5.

———. 「큰숲회복수양회」. 안산: 큰숲, 2010.

김준삼. 「교의신학 3권」. 서울: 흥신출판사, 1995.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박만. 「현대 삼위일체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4.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안산: 큰숲, 2009.

———. 「근대교회사」. 서울: 흥신대학교출판부, 2007.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서울: 도서출판 KMC, 2008.

-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V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변종길. 「두란노 HOW주석 시리즈 40」.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손석태. 「두란노 HOW주석 시리즈 1」.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 신현기. 「사회적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2009.
-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 오현철. 「새천년을 향한 한국교회에서의 교회개혁에 관한 전략연구」. 성결대학교 역사연구소, 1995.
- 옥스퍼드 원서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서울: 제자원, 2006.
-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이규승. 「성공적인 개혁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1997.
- 이승규. 「성공적인 교회개혁 교회론」.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7.
- 이상대. 「교회개혁 컨설팅」. 서울: 서로사랑, 2002.
- 이상규. 「교회 개혁」.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 이평강. 「만점짜리 셀리더로 서기」. 서울: 두란노, 2012.
- 장승익. 「디아코니아신학 선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 정성욱. 「삼위일체신학」. 서울: 홍성사, 2007.
-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도: 소그룹하우스, 2010.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7.
- Augustinus, Aurelius.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4.

- Banks, J. Robert. 「바울의 공동체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18.
- Beckham, Bill.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사역팀 역. 경기도: NCD, 2012.
- Beckham, A. Willi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 Berkhof, Louis.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 Bloesch, G. Donald. 「세계의 예수 공동체」. 김현진 역. 서울: 무실, 1991.
- Boff, Leonardo. 「삼위일체와 사회」. 이세형 역. 서울: 기독교서회, 2011.
- Branick,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 신문사, 2005.
- Brown, W. Dale. 「경건주의 이해」. 오창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Carson, A. D and France, T. R and Motyer, A. J and Wenham, J. G. 「IVP 성경주석」. 신현기 역. 서울: IVP, 2010.
- Colson, W. Charles. 「이것이 교회다」. 김애진 외 역. 서울: 홍성사, 1997.
-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Donahue, Bill and Robinson, Russ.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Finnell, David.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 Foster, John. 「새롭게 조명한 초대교회의 역사」. 심창섭, 최은수 역. 서울: 웨스터민스터 출판부, 1998.
- Frank, Karl Suso.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최형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6.
- González, L. Justo.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88.
- Guelich, A. Robert. 「WBC 성경주석 마가복음(상)」.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 Hagner, A. Donald. 「WBC 성경주석 마태복음(하)」.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 Hodges, L. Melvin. 「교회개혁의 가이드」.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 Jone, R. Tuder. 「기독교교회사」.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사, 1990.
- McIntosh, L. Gary and Engle, Paul.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교회성장학에 대한 다섯 가지

- 관점)」.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Neighbour, W. Ralph.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nyder, A. Haward.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 Stott, R. W. John. 「사도행전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8.
- Thiessen, C. Henry. 「조직신학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Towns, Elmer. 「사도행전식 교회개척」. 김재권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Wagner, C. Peter. 「교회성장을 위한 교회개척 가이드」.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 .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 Wenham, J. Gordon. 「WBC 성경주석 창세기(상)」.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1.
- Winter, D. Ralph. 「교회의 이중구조」. IVP 역. 서울: IVP, 1993.
2. 영서
- Anderson, S. Ray.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 Estep, R. William. *The Anabaptist Story*. Michigan: Eerdmans Press, 1995.
- Friedmann, Robert. "On Mennonite Historiography and on Individualism and Brotherhood". *Mennonite Quarterly Review*, X V III. 1944.
- George, Timothy.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8.
- Hooft, Willem Adolph Visser't. *The Renewal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1956.
- Hyma, Albert. *Brethren of the Common Lif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 Icenogle, W. Gareth. *Building Community th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 Ladd, E. Gorge. *A Theology of New Testament*. Michigan: Grand Rapids, 1979.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Vol. 5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5.
- Strand, A. Kennth. *A Reformation Paradox*. Ann Arbor: Ann Arbor Publishers, 1960.

3. 정기간행물

교회성장연구소.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설교뱅크」. 2010년 10월.

김성태. “신앙 선교단체들을 위한 선교운동(18-20세기).” 「미션월드」. 1983년 5월.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교회성장」. 2008년 10월.

김인호. “교회개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서.” 「목회와 신학」. 2002년 4월.

박영철. “한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오성춘. “삼위일체 교리와 섬김의 공동체 비전.” 「장신논단」 제10집 . 1994.

이상규. “교회사로 살펴본 교회개혁과 교회 성장.” 「목회와 신학」. 1999년 3월.

임창복. “성경적 관점의 코이노니아 교육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제35집 . 2009.

정준기. “니콜라스 진젠도르프에 관한 연구.” 「광신논단」. 1992년 4월.

국민일보. “안산동산교회 입당 및 복지문화센터 개관예배.” 2006년 8월 11일.

기독신문. “교회 분립으로 동사 목회 실천.” 1999년 11월 10일.

———. “안산동산교회, 현장 경험 바탕 독창적 세미나 준비.” 2007년 7월 16일.

Lim, Isaac. “Wesleyan Preaching and Small Group Ministry.” *Asia Journal of Theology*, Volume3. 1989.

4. 학위논문

김용국. “한국교회에서의 교회분립개혁전략.”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신경식.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역동적인 셀교회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심민수. “공동체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셀교회와 셀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6.

이영배.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5. 기타 자료

김광이. “사랑의동산교회 개척의 진정한 가치.” 기쁨의동산교회 2014년 12월 14일 주보.

김인중.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안산동산교회 2011년 동계교역자수련회 강의1 녹취록.

김인중.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산동산교회 2011년 동계교역자수련회 강의2 녹취록.

「안산동산교회 25년사 1979-2004 자료집」. 안산: 안산동산교회, 2004.

안산동산교회. 교역자 셀리더훈련 교재. 2012년.

———. 교역자 셀세미나 강의안. 2019년.

———. 동계교역자수련회 교재. 2011년.

———. 셀비전트립 가이드북. 2010년.

더행복한교회. 큰숲분립개척 기획안.

동탄동산교회. 큰숲분립개척 기획안.

복음의빛동산교회. 주보.

안산동산교회. 주보.

6. 온라인 자료

교갱뉴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36>. 2020년 1월 11일 접속.

국민일보.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교회-이도영목사(더불어숲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mytwel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 2020년 2월 14일 접속.

국민일보. “또 하나의 ‘사과나무’ 기쁨의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m.kmib.co.kr/view.asp?arcid=0009349721#RedyAi>. 2020년 2월 11일 접속.

국민일보.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열어 교류의 장 마련한 김인중 · 송창근목사” [온라인자료]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3306#RedyAi>. 2020년 1월 20일 접속.

———.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두 교회 이야기-더불어숲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34013>. 2020년 2월 14일 접속.

- . 한국의 공교회 - the 행복한교회” [온라인자료]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579913#RedyAi>. 2020년 2월 3일 접속.
- 그린시티교회홈페이지. “비전” [온라인자료] <http://www.greencitychurch.org/>. 2020년 2월 23일 접속.
- 기독신문. “경우의 수는 달라도 ‘교회 본질 회복’ 한마음”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20>. 2020년 2월 13일 접속.
- . “셀전환을 도와드립니다”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91>. 2020년 2월 9일 접속.
- . “우리 시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13) 기쁨의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45>. 2020년 2월 11일 접속.
- . “혁신과 상생의 사역 가치로 건강한 교회 세우기 돕는다”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77>. 2020년 2월 8일 접속.
- 당당뉴스. “선교적교회와 마을목회 모델 - 봉담 더블어숲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90>. 2020년 2월 14일 접속.
- 더블어숲동산교회. “더숲이야기” [온라인자료] http://gf21.org/wp/?page_id=12205&paged=6. 2020년 3월 3일 접속.
- . “교역자소개” [온라인자료] http://gf21.org/wp/?page_id=11485. 2020년 2월 10일 접속.
- . “비전” [온라인자료] http://gf21.org/wp/?page_id=11618. 2020년 3월 2일 접속.
- . “사역” [온라인자료] http://gf21.org/wp/?page_id=11618. 2020년 3월 3일 접속.
- . “페어라이프” [온라인자료] http://gf21.org/wp/?page_id=11509. 2020년 3월 3일 접속.
- 더행복한교회. “비전” [온라인자료] <http://thehappystage.net/church/>. 2020년 2월 28일 접속.
- 데이처치. “열한 번째 큰숲분립개척교회” [온라인자료]
<https://www.facebook.com/daychurch2017/photos/a.517159615154211/524826777720828/?type=3&theater>. 2020년 1월 1일 접속.
- 동탄동산교회. “선교” [온라인자료] http://ddc21.or.kr/?page_id=7909. 2020년 3월 1일 접속.
- . “GoodFam” [온라인자료] http://ddc21.or.kr/?page_id=16. 2020. 2. 11접속.
- 문화선교리포트. “지역과 함께 숨쉬는 공간,
 더블어숲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s://www.cricum.org/1440>. 2020년 2월 16일 접속.
- 배곧동산교회. “소개” [온라인자료] http://bd21.kr/?page_id=4717. 2020년 2월 29일 접속.

복음기도신문. “안산 지역교회 연합, 52주 기도 릴레이 출발” [온라인자료]

https://gnpnews.tistory.com/entry/안산_지역교회_연합_52주_기도_릴레이_출발. 2020년 2월 10일 접속.

복음의빛동산교회. “교회비전” [온라인자료] <http://glc21.com/>. 2020년 2월 22일 접속.

———. “담임목사소개” [온라인자료] <http://glc21.com/>. 2020년 2월 10일 접속.

———. “미디어갤러리” [온라인자료]

http://glc21.com/user/saveDir/board/www73/21_1475158559_0.mp4. 2020년 2월 11일 접속.

———. “양육과 교육” [온라인자료] <http://glc21.com/>. 2020년 2월 22일 접속.

블루라이트교회. “History” [온라인자료] <http://bluelightchurch.com/about-history/>. 2020년 3월 2일 접속.

———. “Lead Pastor” [온라인자료] <http://bluelightchurch.com/about-leadpastor/>. 2020년 3월 2일 접속.

세뽀세코리아. “정보” [온라인자료] https://www.facebook.com/pg/3PM2016/about/?ref=page_internal. 2020년 1월 15일 접속.

———. 세뽀세코리아, “3040목회와 어린이사역” [온라인자료]

<https://www.facebook.com/3PM2016/photos/a.340235576352358/790457981330113/?type=3&theater>. 2020년 2월 28일 접속.

아름다운동행(160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더불어숲 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iwithjesu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9>. 2020년 2월 4일 접속.

안산동산교회. “교회비전” [온라인자료] <http://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1월 10일 접속.

———. “교회조직도” [온라인자료] http://d21.org/01intro/Organization_chart.aspx. 2020년 2월 10일 접속.

———. “생수의강” [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D00/stone_water_about.aspx. 2020년 2월 9일 접속.

———. “양육소개” [온라인자료] http://d21.org/02cell_training/celltraining_intro.aspx. 2020년 2월 9일 접속.

———. “큰숲” [온라인자료] http://d21.org/02cell_training/big_Forest.aspx.

2020년 1월 10일 접속.

———. “큰숲분림개척” [온라인자료] http://d21.org/02cell_training/big_Forest.aspx.

2020년 1월 13일 접속.

- . “큰숲형제교회 분립개척준비기도회” (주보 2019년 10월 13일) [온라인자료]
http://ev.d21.org/Views/Jubo/Jubo_View_IEdge.aspx?page=0&Category=weekBook&Title=2019-10-13. 2020년 2월 10일 접속.
- 은혜의동산교회. “4대 VISION” [온라인자료] <http://7grace.com/>. 2020년 2월 20일 접속.
- . “교회소개” [온라인자료] <http://7grace.com/>. 2020년 2월 20일 접속.
- .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7grace.com/>. 2020년 2월 20일 접속.
- 조선일보. “복음 ‘떼창’하는 공연장 교회, 노랑머리 목사님” [온라인자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3/2013010302702.html. 2020년 1월 7일 접속.
- 큰숲플랫폼. “큰숲PLAT설립목적” [온라인자료] <http://ksplat.org>. 2020년 2월 10일 접속.
- 회복의동산교회. “기도의집 소개” [온라인자료] http://www.red21.org/html/24_7.php. 2020년 3월 1일 접속.
- . “목적과 비전” [온라인자료] <http://www.red21.org/html/info03.php>. 2020년 3월 1일 접속.
- . “사진으로보는 교회 일지” [온라인자료]
http://www.red21.org/bbs/board.php?bo_table=daily&page=40&page=39. 2020년 2월 11일 접속.
- . “영적DNA” [온라인자료] <http://www.red21.org/html/dna.php>. 2020년 3월 1일 접속.
- . “행사” [온라인자료] http://www.red21.org/bbs/board.php?bo_table=Event. 2020년 3월 1일 접속.
- . “LTG & Cell” [온라인자료] http://www.red21.org/html/ltg_cell.php. 2020년 3월 1일 접속.
- 희망아동가족상담센터. “상담센터소개” [온라인자료]
<http://heemam.or.kr/%ec%83%81%eb%8b%b4%ec%84%bc%ed%84%b0-%ec%86%8c%ea%b%9c/>. 2020년 2월 20일 접속.
- 한겨레신문. “교회인 듯 교회 아닌 듯 마을과 지역 품은 사랑방” [온라인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19025.html>. 2020년 2월 14일 접속.
- 한국기독교공보. “세월호 아픔 간직한 안산, 마을에서 희망찾기” [온라인자료]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7666428466>. 2020년 2월 3일 접속.
- . “세월호 아픔 간직한 안산, 마을에서 희망찾기” [온라인자료]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7666428466>. 2020년 2월 13일 접속.

7. 인터뷰자료

그린시티교회 조성의목사. 2020년 2월 19일.

더불어숲동산교회 이도영목사. 2020년 3월 4일.

더행복한교회 손병세목사. 2020년 2월 28일.

데이치치 심준호목사. 2020년 3월 4일.

배곧동산교회 박덕영목사. 2020년 2월 20일.

복음의빛동산교회 나희석목사. 2020년 2월 18일.

블루라이트교회 송창근목사. 2020년 3월 3일.

회복의동산교회 이득진목사. 2020년 2월 20일.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목사. 2020년 2월 20일.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ril 3, 2020

DongSung Park
YooJung Lee

Re: IRB Exemption - IRB-FY19-20-200 A Study on the Big Forest Movement in Ansan Dongsan Church: A Focus on Separation Planting

Dear DongSung Park, YooJung Lee: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the following exemption category,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

101(b):

Category 2.(iii). Research that only includes interactions involving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including visual or auditory recording)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met:

The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in such a manner that the identity of the human subjects can readily be ascertain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and an IRB conducts a limited IRB review to make the determination required by §46.111(a)(7).

Your stamped consent form can be found under the Attachments tab within the Submission Details section of your study on Cayuse IRB. This form should be copied and used to gain the consent of your research participants. If you plan to provide your consent information electronically, the contents of the attached consent document should be made available without alter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Universi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completing a modification submission through your Cayuse IRB accoun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Research Ethics Office